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 **'공공누리'**

4가지만 기억하세요!

공공누리는 공공저작물만을 대상으로 하는 이용허락 표시제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공누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ww.kogl.or.kr

공공누리의 4가지 유형

출처표시
상업적 ·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가능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출처표시,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출처표시+변경금지
출처표시, 상업적 ·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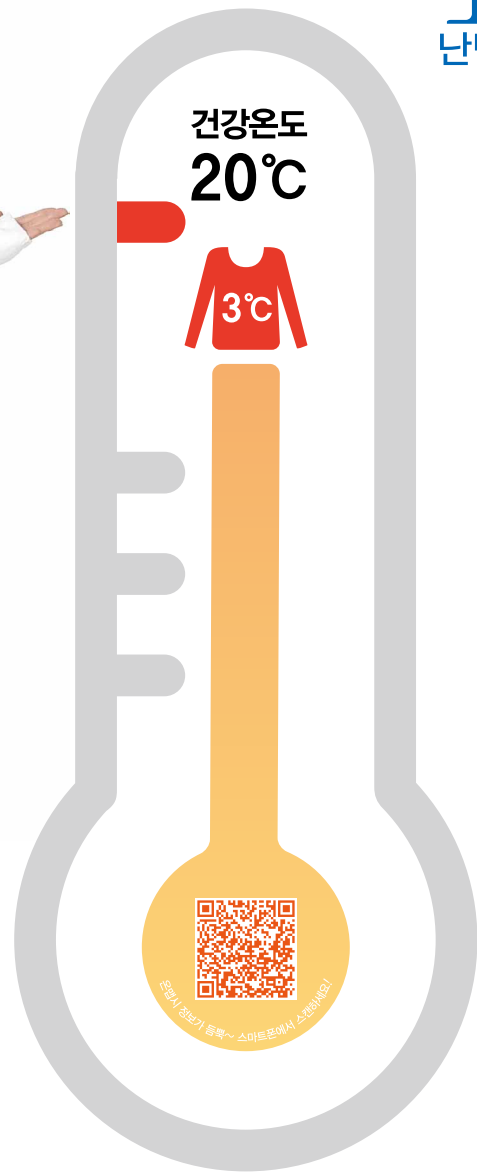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출처표시,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2012.11.21 NO.184
korea.kr/gonggam

Weekly 공감

웰컴 투 코리아! 외래관광객 1천만 시대 P24~37

연평도 포격도발 2주년… "그날을 영원히 기억합니다" P16~19

2013 평창 동계스페셜올림픽… 기업들도 함께해요 P40~41

품격 있는 한국 관광을 위하여

정기은
숙명여대 문화관광학부 교수

관광(觀光)이란 말은 주역(周易)에서 유래됐다. 본래 의미는 다른 나라의 '빛(光)'을 본다는 것. 따라서 관광이란 자신의 생활환경과 다른 풍광(風光)을 찾아 새로운 곳을 방문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 한류라는 큰 빛이 일어나 연간 1천만명에 가까운 관광객들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를 찾고 있다. 그 어느 때보다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한국의 빛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

고궁·사찰 등 역사유적이 풍부한 우리나라는 패션 공연 축제 등 볼거리 등 매우 다양한 볼거리를 갖고 있다. 김치·삼겹살·비빔밥 등 먹거리, IT·의료 등 첨단기술 역시 '한국의 빛'으로 꼽을 수 있을 것이다. 〈Rough Guide〉, 〈Catoville〉, 〈Book of Everything〉 같은 세계 유수의 여행책자들이 앞다퉈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 대한 정보를 담아내기 시작한 것도 이러한 흐름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최근 보도된 '아름답지 못한 빛'들이 우리 스스로를 부끄럽고 걱정스럽게 한다. 김치전 1장과 맥주 2병에 5만원을 받은 포장마차, 미터기로 6천5백원이 나오는 남산 케이블카 주차장~서울타워까지 4만원을 받는 택시 기사, 2킬로미터를 태워주고 33만원을 요구한 콜밴 택시 등 일부 상인들의 추악한 행위는 많은 사람들이 정성스럽게 만들어낸 한국의 '아름다운 빛'을 시들게 하는 독소와 같다.

이제는 진정으로 변해야 할 때다. 우선 관광 현장에서 관광객들을 직접 응대하는 상인들 스스로가 관광객들을 고객으로 인식하고 한사람 한사람을 단골손님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래야만 외래관광객들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더 많은 소비가 이루어질 것이며, 나아가 문화강국 대한민국이 진정한 '한류'의 매력과 관광의 '아름다운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한류라는 큰 빛이 일어 연간 1천만명에 가까운 관광객들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를 찾고 있다. 외래관광객은 단순한 소비자가 아닌 우리를 찾아온 손님이다. 이들을 진심으로 대하고 감동을 전할 때 일부 스타들에 의한 한류가 아니라 국민들에 의한 진정한 한류가 완성될 것이다.

정부 차원에서도 바가지 요금 근절 등에 대한 외국인 접객상황 개선을 위해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펼쳐야 한다. 최근 각 지자체에 관광을 전담하는 기구들이 설치되고 있다. 이들 전담기구를 적극 활용해 서비스 실태를 모니터링하고 합리적인 개선 방안과 불법상혼 방지 시스템을 구축해나간다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아울러 외래관광객들이 대한민국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동시에 주의할 점을 사전에 알고 방문할 수 있도록 가이드북, 브로슈어, 웹사이트, SNS 등 온라인 정보망을 두루 활용해 공신력 있는 정보를 확대 배포해야 한다. 이 역시 기존의 구색 갖추기 식의 자료 제작이 아니라 외래방문객의 눈높이에 맞춰 각 지역의 맞춤식 정보가 흥미 있게 제공될 수 있도록 전담기구들을 활용해야 할 것이다.

외래관광객은 단순한 소비자가 아닌 우리를 찾아온 손님이다. 이들을 진심으로 대하고 감동을 전할 때 일부 스타들에 의한 한류가 아니라 국민들에 의한 진정한 한류가 완성될 것이며 세계인들에게 한국관광의 진정한 '품격 있고 아름다운 빛'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G

Contents

184호
2012.11.21 통권 285호

표지 이야기 | 한국관광공사는 인기 한류 아이돌 그룹인 2PM과 미쓰에이를 한국관광의 새로운 명예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이들은 지난 9월부터 한국 알리기 CF와 영화, TV 등에 출연해 한국의 전통과 아름다운 모습을 소개하고 있다. 외래관광객 1천만명 시대를 맞아 관광의 질을 높이는 노력도 뒤따라야 한다. 사진·한국관광공사

기획특집

코리아의 멋과 맛 느끼자 외국인들 한국 순례 물결

드디어 외래관광객이 1천만명을 돌파했다. 지난 3년간 관광객이 연 1백만명씩 증가한 결과다. 이는 한국이라는 국가브랜드가 해외에서 그만큼 매력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관광이 유례없는 성장을 하고 있는 배경으로 2012 여수엑스포 개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세계 6위의 국제회의 개최지 부상 등과 함께 K팝, 드라마, 영화로 대변되는 한류 콘텐츠의 국제경쟁력을 꼽고 있다. 하지만 양적 성장에만 급급해서는 지속 가능한 성장이 힘들다는 지적도 잇따른다. 이제부터는 관광대국에 걸맞은 관광의 질적 성장을 위한 전략을 고민해야 할 때다.

21

42

54

38

위클리 공감 korea.kr/gonggam
발행일 2012.11.21 **발행처** 문화체육관광부 **발행인** 최광식 **제작협력** 조선뉴스프레스 **인쇄제본** 삼화인쇄 **문의** 02-3704-9887
정기구독 희망하시는 분은 02-2625-3294로 연락주십시오. 현재 구독자이지만 구독을 희망하지 않으신다면 02-2625-3294 또는 jjsmall@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Weekly 공감〉에 수록된 내용은 정부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알림** 이 책을 펼치면 오른쪽 윗부분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변환 바코드가 인쇄돼 있습니다.
이 잡지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부 정책을 빠르고 쉽게 알리기 위해 무료로 배포하는 주간지입니다.

공감라운지

Lounge

〈Weekly 공감〉은 독자 여러분과 소통하고자 다양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주소, 전화번호와 함께 11월 29일(목) 오전까지 gonggam@korea.kr로 보내주십시오. 관심 있게 읽은 기사, 기획특집에 대한 의견, 앞으로 다뤘으면 하는 내용 등 다양한 독자 의견을 보내주시면 〈Weekly 공감〉 제작에 반영하겠습니다. 의견이 채택된 분에게는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로 보내드리는 〈Weekly 공감〉 뉴스레터를 받아보고 싶으신 분은 성명과 이메일 주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호를 읽고

친환경 글로벌 자전거투어상품 잘되길 기대

182호의 '새로운 한국관광 상품'편을 읽었습니다. 해외에서 국내 자전거투어 루트를 탐방했다는 소식은 정말 반갑네요. 자전거도로가 전체적으로 잘 정비돼 있고 숙소와 식사가 만족스러웠다는 해외 관계자의 평이 시선을 사로잡네요. 친환경 레저 관광자원을 고부가가치 상품과 연계해 자전거 관광상품으로 개발하고 있다니 뿌듯합니다. 자전거길 안내, 정밀 안내지도를 보완해 글로벌 자전거 투어 상품으로 발돋움하길 기대합니다. **이예은(31세 · 회사원 ·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한글날의 의미를 생각해보는 한글날 공휴일 지정

내년부터 한글날이 다시 공휴일로 지정된다는 기사를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기사에서 말한 것처럼 한글날의 공휴일 지정은 단순히 휴일이 하루 늘어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국경일이면서도 공휴일로 지정되지 않아 한글날의 의미가 점점 퇴색하고 있어 안타까웠습니다. 83퍼센트가 넘는 국민이 한글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데 찬성했다는 자체가 우리 민족이 한글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글날 공휴일 재지정을 계기로 국어를 더욱 정확하게 구사하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임수연(35 · 회사원 · 서울 성북구 삼선동)

중소기업들에게 희망이 되어준 FTA

183호 'FTA로 성공시대 연 중소기업의 대표들'편을 관심 있게 보았습니다. 장차 해외시장으로 눈을 돌릴 사업주들과 미래 창업자들에게 좋은 선례가 될 이야기들이 아닐까 싶네요. 좁은 내수시장의 한계에서 벗어나 드넓은 해외에서 틈새시장을 발견할 수 있고, 다양한 산업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요? 세계금융위기로 성장 동력이 정체하고 있는 요즘 많은 중소기업들이 해외진출을 해서 한국경제를 윤택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전경욱 (36 · 회사원 · 경기 평택시 안중읍)

문화공휴일 부활돼 너무 기뻐

183호 '한글날 공휴일 지정'기사 잘 읽었습니다. 우리의 문화공휴일이 부활돼 너무 기쁩니다. 20년 만에 공휴일로 지정된 만큼 의미 있는 날로 기념되면 좋겠어요. 특히, 한글날은 다른 공휴일과 달리 우리 한글의 우수성과 독창성을 알리고 한글을 만드신 세종대왕의 뜻을 기리는 날이니까요. 세계화, 국제화, 개방화, 정보화 시대를 맞아 한글이 더욱 빛나고 만방에 알려 세계 공용어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우리말을 갈고 닦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명연(31 · 간호사 · 대구 달서구 죽전동)

독자 인터뷰

"공공사업 관련 기사 보고 사업 아이디어 많이 얻어요"

박선주(44 · 부천시 새마을회 사무국장)

부천시 새마을회 사무국장으로 일하고 있는 박선주씨는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과 관련한 에너지 절약 교육, 그린 마을 만들기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박씨는 〈위클리 공감〉을 통해 정부에서 시행하는 각종 정책들을 한눈에 볼 수 있어 좋다고 했다.

183호에서 재미있게 읽은 기사는

"'파이팅 소방공무원'편입니다. 올해 태풍 때 새마을회관 건물 외벽이 무너져 소방관들이 도와주러 오셔서 5층에서 사다리차도 없이 위험하게 작업하셨어요. 그때 불안했는데, 결국 한 분이 손을 다쳐서 마음이 아팠어요. 소방관의 업무가 희생과 양보정신 없으면 할 수 없잖아요. 그에 비해 소방관들에 대한 처우나 장비가 매우 열악해 안타깝습니다."

그 외에 눈길이 가는 기사는

"공감카툰이요. 공감카툰은 단순하면서도 쉬운 그림과 희망을 주는 글들로 돼있어 빼놓지 않고 본답니다. 저는 매호마다 기사를 스크랩하는데 주위에 나눠주기도 하고 좋은 말들은 기억해두었다가 강연하거나 사회 볼 때 인용하기도 한답니다."

〈위클리 공감〉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새로운 코너를 제안하고 싶어요. 이번 '감성여행'편에 실린 은행사진이 장관이더라고요. 〈위클리 공감〉에는 좋은 글도 많지만 사진이나 일러스트도 아름답다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아름다운 사진 아래 가슴속에 담아두면 좋은 글귀를 짧게 싣는 단독 코너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독자 인터뷰 신청받습니다. 〈위클리 공감〉을 읽으신 후 느낀 점을 간략한 자기소개, 연락처, 얼굴이 잘 나온 사진과 함께 메일(jjsmall@korea.kr)로 보내주십시오.

알 림

해파랑길의 사계(四季) 사진 공모전

문화체육관광부와 (사)한국의 길과 문화가 '해파랑길'을 주제로 사진 공모전을 연다. '해파랑길'은 떠오르는 해와 푸른 바다를 보면서 너와 내가 함께 걷는 길이란 뜻이다. 부산 오륙도 해맞이공원에서 강원도 고성군 통일전망대까지 동해안을 따라 조성되고 있는 국내 최장거리의 탐방로다. 자세한 사항은 (사)한국의 길과 문화 홈페이지(www.tnc.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모대상 | 해파랑길에 관심 있는 내·외국인 모두
공모분야 | 일반사진/모바일사진
공모기간 | 11월 30일까지
시상내역 | ▲일반사진 부문 – 최우수상 1점 5백만원 / 우수상 1점 3백만원 / 가작 10점 각 30만원 ▲모바일사진 부문 – 모바일 50점 각 2만원 모바일 상품권
응모방법 | ▲일반사진 부문 –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신청양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사진과 함께 이메일 접수(zent09@nate.com) ▲모바일사진 부문 –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사진을 facebook(http://www.facebook.com/haeparang)으로 업로드 후 사연 등록
문의 | 한국의 길과 문화 이성훈 과장 ☎02-6013-6011

'도시가 들려주는 노래' 수필 공모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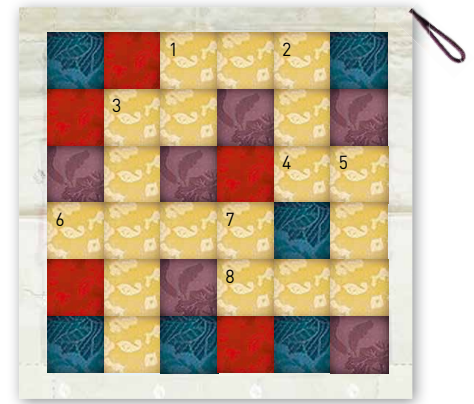
경기도시공사에서 '도시가 들려주는 노래'라는 주제로 수필을 공모한다. 도시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와 함께했던 따뜻한 기억이나 추억을 쓰면 된다. 국내외 타 공모전, 문학지 등에 출품되지 않은 순수한 창작물이어야 하며, 심사 과정에서 표절 작품으로 판명될 경우 시상에서 제외된다. 입선 이상 당선작은 온·오프라인 공공미디어를 통해 발표·활용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gico.or.kr)에서 확인하면 된다.

공모대상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등단작가 제외, 1인 1작품)
공모기간 | 11월 30일 자정까지 *11월 30일 우편소인까지 유효
시상내역 | 대상 1명 3백만원 / 우수상 2명 각 2백만원 / 장려상 3명 각 50만원 / 입선 50명 각 3만원 상당 상품권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제6회 경기도시공사 수필공모전' 접수페이지(www.gicoessay.co.kr)로 이동, 참가신청서 입력 후 작품 업로드 ▲우편접수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권중로 46 경기도시공사 1층 고객홍보팀 수필공모전 담당자 앞(우편번호 441-836)
문의 | ☎1588-0466

바로잡습니다 183호 16쪽과 19쪽 '민간 조종사의 꿈' 기사와 사진 설명 중 활주로 가로 1천8백미터는 활주로 길이 1천8백미터로 바로잡습니다.

사과드립니다 위클리 공감 54호(2010년 3월 31일자) 40페이지 낙동강-물길따라 생태공원 천리길 기사 중 '습지와 새들의 친구' 사진을 무단 이용하였음을 사과드립니다. 해당 사진은 침해고지를 받은 당일 삭제하였으며 향후 재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거듭 밝힙니다. 피해를 드린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Puzzle 공감퍼즐

1 2 3 4 5 6 7 8

빈칸의 답을 '공감퍼즐 몇 호'라는 제목과 함께 주소, 전화번호를 적어 11월 29일 오전까지 jjsmall@korea.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아이폰 〈정책투데이〉 앱에서도 응모하실 수 있습니다.

가 로

1. 그림, 조각, 공예 등의 작품을 전시하는 곳이죠.
3. 일이 진행되는 빠르기. 악곡을 연주하는 속도나 박자.
4. 객지에서 느끼는 쓸쓸함이나 시름. 여수.
6. 국화과의 꽃나무. 여름과 가을에 OOOO~한들한들.
8. 운행 중인 자동차·기차·배·여객기 안에서 운행과 승객을 돌보는 일을 하는 사람.

세 로

1. 울산에 있는 동(洞)이며, 조선소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2. 빈칸에 들어갈 말은? "외래OOO 1천만명 시대가 열리면서, 이제 대한민국도 관광대국의 반열에 올랐다."
3. 절이나 선원(禪院) 등에 머무르면서 사찰생활을 체험하거나 휴식을 취하죠. 관광상품이기도 합니다.
5. 다양한 산림자원을 볼 수 있는 곳. 광릉OOO
7. 자기를 가르치고 이끌어주는 사람. 사부.

〈Weekly 공감〉 182호(11월 7일자) '공감 퍼즐' 정답
가로 1 사군자 3 신바람 4 동거 5 등뼈동물 7 국격상승
세로 1 사람 2 자전거 3 신용등급 4 동물 6 동맹국

〈Weekly 공감〉 182호 '공감 퍼즐' 당첨자
최병기 · 충남 아산시 신창면
신혜선 ·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김상표 ·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송기백 · 부산시 사상구 괘법동
안준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프레데릭 덴마크 왕세자의 영접을 받으며

기후변화 현장 시찰

오슬로대학에서 코리아 루트 역설

국내 최초 대통령 순방 다큐 제작

아리랑TV·KTV 공동기획… 아리랑TV 11월 21일 오전 9시·KTV 오후 4시 20분 방송

지난 9월 이명박 대통령은 러시아와 그린란드 그리고 노르웨이, 카자흐스탄까지 7박 8일 동안 지구 반 바퀴 이상을 도는 해외순방 길에 올랐다. 대한민국 대통령 최초로 북극의 그린란드를 방문한 이 대통령은 지속가능한 녹색성장을 위한 협력 방안을 고민했다. 아리랑TV는 이 대통령이 밟은 코리아 루트를 따라가며 지속가능한 녹색성장 협력 방안을 소개한다.

전 세계 1백38개국 1억 수신 가구를 보유한 아리랑TV와 한국정책방송(KTV)이 공동기획한 정책 다큐멘터리 '코리아 루트를 찾아서'가 전 세계 시청자들을 찾아간다. '코리아 루트를 찾아서'는 이명박 대통령의 러시아, 북유럽 순방을 동행 취재한 기록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9월 초 제20차 블라디보스토크 APEC 정상회담 참석 직후 7박 8일 동안 그린란드, 노르웨이, 카자흐스탄을 방문해 지속가능한 녹색성장을 위한 협력 방안을 찾는 과정을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았다.

이 다큐멘터리는 이 대통령이 러시아로부터 그린란드, 노르웨이, 카자흐스탄까지 지구 반 바퀴 이상을 도는 강행군을 통해 대한민국 자원 외교의 새로운 길을 열고, 친환경 자원개발을 위해 발로 뛰는 모습에 주목한다.

아리랑TV 이은서 프로듀서는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부터 계속 추구해온 '더 큰 대한민국'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러시아, 북유럽을 잇는 코리아 루트를 열었다고 생각한다"며 "이 대통령이 보여준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이번 다큐멘터리에 담으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다큐멘터리는 블라디보스토크 공항을 이륙해 그린란드로 날아가는 대통령 전용기 모습을 보여주며 시작한다. 러시아를 떠나 처음 도착한 곳은 그린란드의 일루리사트. 그린란드는 한반도의 열 배가 넘는 면적에 80퍼센트 이상이 빙하로 덮여 있는 아름다운 나라다. 원래 덴마크령이었던 이곳은 2009년 자치권을 인정받아 그린란드 자치정부를 수립했다.

이 대통령, 그린란드 방문 등 코리아 루트 개척

이 대통령은 한국 대통령 최초로 토닝 슈미트 덴마크 총리와 쿠피크 클라이스트 그린란드 자치정부 총리의 공동초청으로 9월 9일(현지시각) 그린란드에 도착해 그린란드 일루리사트에 위치한 피오르 빙하를 방문해 기후변화 현장을 시찰했다. 다큐멘터리는 7시간의 시차를 건너뛴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그린란드의 자원협력을 위해 4건의 MOU를 체결하는 이 대통령과 정부 인사들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 대통령은 일루리사트 현장에서 구멍난 거대한 빙하를 바라보며, "북극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얼음이 많이 녹았다"며 "기후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와 국제사회의 긴밀한 협력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그동안 추진해온 녹색성장 협력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앞으로 정책추진 과정 및 기후변화 협상 등에서 그린란드와 같이 지구온난화에 취약한 지역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일 것을 다짐했다.

오슬로대학 연설 전엔 대통령도 긴장

이틀간의 그린란드 방문을 마친 이 대통령은 9월 10일 노르웨이 오슬로로 향했다. 노르웨이에 도착한 이 대통령은 11일 오전 오슬로대학교를 방문해 '코리아 루트의 새 지평'을 주제로 특별연설을 했다. 학생들에게 연설하기 전 연설문을 꼼꼼하게 훑어보며 메모를 하는 이 대통령의 다소 긴장한 듯한 옆 모습은 일반 뉴스 프로그램에서는 볼 수 없는 장면이다.

이날 특별 연설장은 동양의 극빈국에서 G20 국가로 성장한 한국 대통령을 보려 몰려든 수백 명의 오슬로대학교 학생과 교수, 직원들로 가득 찼다. 특히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노르웨이 노익장들의 흥분한 모습이 인상적이다.

이 대통령은 12일 오전에는 옌스 스톨텐베르그 노르웨이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우호 증진과 실질협력 발전에 대해 심도 있는 협의를 가졌다. 이 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외교·경제 분야에서의 전통적 협력을 지속 증진시켜나가는 동시에 기후변화 대응 및 북극의 친환경적 개발·보전 등 21세기 새로운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지향적 파트너십을 구축해나가기로 했다.

다큐멘터리는 노르웨이 순방을 마치고, 카자흐스탄으로 출발하는 비행기의 출발 준비 모습을 보여주며 7박 8일 동안의 코리아 루트 탐방 동행취재를 마친다.

해외순방 준비하는 스태프들도 담아

제작진은 이 대통령의 순방 모습뿐만 아니라 이번 코리아 루트를 개척하기 위해 노력한 정부 각 부처의 공무원, 스태프들에게도 주목했다. 제작진에 따르면 대통령의 해외순방은 철저한 사전 준비로 이루어진다. 순방 한 달 전 답사팀은 순방 계획에 따라 대통령이 이동할 경로부터 숙소, 보안까지 철저히 현장 답사를 한다.

순방이 시작되면 사전 준비팀은 대통령보다 한발 먼저 움직이며 성공적인 순방을 위해 긴장을 늦추지 않는다. 사전 준비 시 예상치 못한 일을 만나는 것도 한두 번이 아니다. 이번 순방 때는 대통령 전용기가 그린란드 일루리사트 공항에 착륙할 수 없었다. 공항 활주로가 짧았기 때문이다.

사전 준비팀은 그린란드항공이 운행한 모든 비행기 종류와 운행 결과, 조종사의 능력 등이 담긴 파일을 그린란드 정부와 항공사로부터 넘겨받아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르는 사고에 대비했다. 쉽게 만 보인 대통령 해외 순방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이뤄지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은서 프로듀서는 "이 대통령 순방 기간 동안 해외에는 작은 청와대가 생긴다"며 "제작진은 작은 청와대를 그대로 옮겨 다니며 코리아 루트를 만드는 대통령의 사람들의 준비과정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고 밝혔다. G

글 김남성 기자

올 겨울 전력수급 대책이 예년보다 한 달 일찍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 정부는 적극적인 전력수급 대책을 통해 예비전력을 4백50만킬로와트대로 유지할 방침이다.

“예비전력 4백50만킬로와트 반드시 확보”

전력수급 비상대책 기간 돌입… 수요관리 강화·공급능력 확대에 초점

지난 11월 16일 정부는 ‘2012 동계 전력수급 대책’을 발표했다. 수요 감축과 공급능력 극대화, 비상시 대책 보완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했다. 국민불편은 최소화하고 효과는 극대화해 예비전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전력 당국이 본격적인 월동 준비에 들어갔다. 겨울철 전력수급 대책에 일찌감치 나선 것이다. 먼저 지난 11월 12일부터 ‘전력수급 비상대책 기간’에 돌입했다. 예년의 경우 12월 초부터 시작하던 것을 한 달 가까이 앞당긴 것이다. 이어 16일에는 ‘2012년 동계 전력수급 대책’을 발표했다. 역시 예년보다 서둘러 ‘겨울나기’를 준비한 것이다.

정부가 올 겨울 전력수급 대책을 한 박자 빨리 마련한 것은 사정이 그만큼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먼저 전력수요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2000~2010년 사이 우리나라의 1인당 연간 전력소비 증가율은 4.9퍼센트로 OECD 평균 0.4퍼센트보다 12배가량 많다.

최대 피크 요금제 등 스마트 수요관리

특히 2009년 이후 증가세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2008~2009년 6천2백65만킬로와트였던 최대 전력수요는 2009~2010년 6천9백43만킬로와트, 2010~2011년 7천4백67만킬로와트로 급상승했다. 2년 사이에 무려 20퍼센트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다른 연료에 비해 전기요금이 상대적으로 저렴해 난방용 전열기 사용이 늘어 전환수요가 급증한 탓이 크다는 분석이다.

더욱이 이번 겨울에는 공급량도 여의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영광 원자력발전소 3기의 가동이 중지됐기 때문이다.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예비전력이 12월 1백71만킬로와트, 1월에는 1백27만킬로와트까지 하락할 것으로 우려된다. 3단계로 이뤄진 현행 전력수급 비상 대책에 따르면 예비전력이 2백만킬로와트면 가장 높은 단계인 ‘경계 단계’가 발령된다. 겨울 내내 아슬아슬한 상황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하지만 예비전력이 2백만킬로와트 아래로 떨어질 것이란 우려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의 시나리오일 뿐이다. 정부는 적극적인 수급 대책을 통해 4백50만킬로와트의 예비전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핵심전략은 ‘스마트한 수요 감축과 공급자원 총동원’으로 요약된다.

먼저 전력을 많이 사용하는 곳에 대해 수요 감축을 유도할 계획이다. 수요관리를 통해 1백30만킬로와트, 절전 규제를 통해 1백70만킬로와트, 최대 피크 요금제를 통해 20만킬로와트의 수요를 줄인다는 목표다.

발전소 조기 준공·폐지 연기 조치

수요관리는 말 그대로 전력소비를 분산시키거나 줄일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다. 수요관리는 이미 효과가 검증된 방식이다. 지난해의 경우 한국전력과 전력거래소는 주간예고와 수요입찰시장 등의 수요관리를 통해 전력난을 예방할 수 있었다.

한국전력의 주간예고는 예비전력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거나 전력사용량이 최대치를 경신할 것으로 예상되는 날에 전력사용을 일정 수준 이상 줄이면 지원금을 주는 제도다. 전력거래소의 수요입찰시장은 전력소비자들이 각자 감축 가능한 사용량과 가격을 입찰하면 시장원리에 따라 낙찰받은 소비자에게 감축한 양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한다.

올해부터는 새로운 수요관리 프로그램도 도입된다. 한국전력의 ‘당일예고제’가 그것이다. 주간예고가 주간 단위로 시행되는 데 비해 당일예고제는 일 단위로 시행된다. 전력소비량 예측이 불확실한 월요일과 저녁의 피크 시간대의 수요 급증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요일별로는 월요일과 목요일이, 시간대별로는 오전 10~12시와 오후 5~7시에 전력 피크 발생 빈도가 높다.

수요자원 전담관리제도 시행한다. 한전의 수요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할 것을 약정한 기업마다 한국전력 직원 1명을 전담 배치해 전력소비 감축 이행력을 높이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한전 직원 2천5백명이 투입된다.

의무적으로 전력사용량을 줄여야 하는 절전 규제도 시행하기로 했다. 기간과 대상은 지난해에 비해 완화한다. 기업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다. 대신 규제 방식을 개선해 지난해 수준(1백75만킬로와트)인 1백70만킬로와트를 감축할 계획이다. 우선 지난해 12주에 걸쳐 시행했던 것을 올해는 1~2월 사이 7주로 규제 기간을 줄였다. 규제 대상도 지난해 계약전력 1천킬로와트 이상인 1만4천곳에서 3천킬로와트 이상, 6천곳으로 대폭 줄어든다.

최대 피크 요금제를 통해서도 수요 감축을 유도할 예정이다. 피크 시간대에는 할증요금을 부과하는 대신 평상시에는 요금을 할인해줘 피크 시간대 사용량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피크 날짜와 피크 시간은 해당일 하루 전에 지정해 안내된다. 계약전력 3백~3천킬로

2011년과 2012년 동계 절전 규제 비교

구분	2011년 동계		올해 동계
시행기간	동계기간 전체 12주 (2011 .12. 15~2012. 2. 29)	➡	1~2월 피크기간 7주 (2013. 1 .7~2013. 2. 22)
적용시간	오전 10~12시, 저녁 17~19시		동일
규제대상	계약전력 1천kW 이상 1만4천호		계약전력 3천kW 이상 6천호
감축의무	10% 일률감축 (단, 규제시행 후 이의신청으로 업체별 감축의무 대폭 완화)		기업불편 최소화를 위해 2011년 부하변동률 실적에 따라 3~10% 수준 부과
기준 사용량	2010년 동계(규제시행 1년 전) 피크시간대 전력사용량		올해 12월 전력사용량
과태료 및 페널티	1회 위반 시 3백만원 ※ 61%가 감축의무 위반		1회 위반 시 3백만원 (필요 시 이행률 낮은 주요 기업 명단 공표)

와트 전력수용가(소비자)면 이 요금제를 신청할 수 있다. 오는 12월 중에 고객을 모집해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공급량도 최대한 확보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가동이 중단된 영광 원자력발전소 3, 5, 6기를 조기에 원상회복할 예정이다. 미검증 부품을 조기교체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검증과 허가를 받고 지역 주민을 설득해 12월 중에 5호기와 6호기를 재가동하는 것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추가적인 공급자원도 확보한다. 이를 위해 민간의 자가발전기를 활용할 계획이다. 구역 전기사업자와 민간 상용발전기 등을 활용해 40만킬로와트의 전력을 추가로 확보한다. 또 2013년 1월 예정이던 오성 복합화력발전소의 준공을 2012년 12월로 앞당기고 지난 9월이었던 남제주 내연발전기의 폐지 시기도 2013년 3월로 연기하는 등 발전기의 조기 준공과 폐지 연기를 통해 87만킬로와트의 전력을 확보할 예정이다. 1~2월 피크 기간 동안에는 소용량 발전기를 임대·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기존의 석탄화력발전소에는 고열량탄 사용을 권장해 출력을 높이기로 했다.

공급량이 빠듯한 상황에서 수급상황을 좌우하는 중요한 변수 중 하나는 발전기의 고장 여부다. 하지만 올해 들어 발전기 고장 건수는 예년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2010년 1백13건, 2011년 1백17건에서 올해는 10월까지만 1백61건으로 불어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정부는 발전기 고장으로 인한 전력공급 차질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발전소 책임운영제를 시행하고 주말 간이정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비상단계별 3단계 대책도 보완

비상시 대책도 보완했다. 예비전력에 따라 발령하는 관심, 주의, 경계 등 비상단계 조치를 보강한 것이다. 예비전력이 4백만킬로와트 이하인 관심 단계에선 전압 조정을 통해 감축하는 수요량은 40만킬로와트에서 1백20만킬로와트로 3배 늘렸다. 전기 품질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급 전압을 하락시켜 수요를 줄이는 방식이다. 공공기관의 비상발전기도 활용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30만킬로와트를 조달한다는 계획이다. 5백킬로와트 용량의 비상발전기를 보유한 공공기관이 대상이다.

예비전력 3백만킬로와트 이하인 주의 단계에선 긴급절전을 시행한다. 대규모 수용가를 대상으로 강력한 감축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미이행한 수용가에는 페널티를 부여한다. 감축지원금은 1킬로와트당 2천5백~3천원이며 페널티는 7백50~1천5백원이다. 또 화력발전기별로 최대보증 출력 범위 내에서 1시간 동안 극대 출력 운전을 실시해 30만킬로와트를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예비전력 2백만킬로와트 이하인 경계 단계에선 공공기관 강제단전을 실시한다. 순환단전을 시행하기 직전에 최후 수단으로 치안과 소방, 공항, 의료 등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시설을 제외한 1만 5천개의 공공기관을 강제단전해 최대 40만킬로와트의 전력소비를 감축할 예정이다.

순환단전은 종전대로 주택용, 상업용, 산업용 순서로 시행되지만 세부 단전 순위는 정전 민감지수에 따라 재조정하기로 했다. 범국민적인 에너지 절약운동도 실시할 예정이다. Ⓖ 글·변형주 객원기자

그때 그 시절의 월동준비 "정겹네"

KTV '김원효·심진화의 거꾸로 늬우스'

어떤 풍속이든 시대에 따라 변화하기 마련이다. 겨울을 대비하는 월동준비도 마찬가지다.

요즘에는 사실 이렇다 할 준비가 필요없지만 과거에는 본격적인 추위에 앞서 분주하게 움직여야 했다. KTV가 지난 11월 16일 방영한 '김원효, 심진화의 거꾸로 늬우스'를 보면 이전 세대의 다양하고도 향수 어린 월동준비를 만날 수 있다.

세월에 따라 모습을 바꾸어온 김장 풍속도, 탄광촌의 연탄 보급 현장, 중앙청과시장의 풍경, 논산훈련소의 방한시설, 시민들의 겨우살이를 정겹게 소개했다.

또 김치박물관을 방문해 시대별 김치의 형태, 김장 체험프로그램 등을 전해 색다른 재미를 선사했다. '밥상공동체·연탄은행'의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현장을 찾아 나눔의 의미도 되새겼다.

'김원효, 심진화의 거꾸로 늬우스'는 1945년부터 제작된 '대한뉴스(대한늬우스)'를 통해 지난 역사를 되짚어보는 프로그램으로 기성세대엔 향수를, 젊은이에겐 그때 그 시절의 감동을 전해주고 있다. KTV 인터넷 홈페이지(www.ktv.go.kr)의 '프로그램 바로가기'에서 지난 방송을 시청할 수 있다.

공공 및 일반용 에너지 사용 제한 실시

❶ 난방온도 제한

전력 사용량이 많은(계약 전력 1백~3천킬로와트) 공공기관과 일반 시설에 실내 난방온도를 제한한다. 공공기관은 섭씨 18도 이하, 일반 시설은 섭씨 20도 이하를 적용한다.

❷ 개인 전열기 사용 금지

공공기관에서는 전기 스토브, 전기 온풍기 등 개인 전열기 사용을 전면 금지하게 된다. 또 중앙난방이 설치된 민간 건물은 사용 자제를 권고한다.

❸ 에너지 낭비 사례 근절

절전 분위기 확산을 저해하는 '문 열고 난방기를 가동하는 영업행위'를 단속한다. 오후 피크시간대(17~19시) 네온사인을 이용한 광고(업소당 1개만 허용), 관공서·대형건물 등의 옥외 경관조명 사용을 금지한다.

❹ 공공부문 에너지 사용량 공개

기관별 자율절전 목표를 선언하고 월 단위로 전력사용 내역을 공표한다. 각 지자체에는 '에너지절약 대책본부'(17개 시·도, 227개 시·군·구에 대책반)를 구성하여 절전 운동의 지역 확산을 촉진한다.

겨울 '아싸, 가자!' 운동 실천

'아싸 가자' 캠페인은 지식경제부의 에너지 절약 운동인 '국민발전소' 계획중 에너지 절약 4대 실천 운동을 말한다. '국민발전소'란 국민들의 절전 실천이 발전소를 건설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갖는다는 의미로 전기절약을 통해 만들어진 상징적인 발전소다.

아끼자 '두 번'
하루 두 번, 두 시간씩(10~12시, 17~19시) 전기를 아낍시다.

싸랑한다 '20도'
실내에서는 건강온도인 섭씨 20도를 꼭 지킵시다.

가볍다 '내복'
내복을 입으면 체감온도가 3도 올라갑니다.

자~ 뽑자 '전열기'
개인용 전열기의 플러그를 뽑읍시다.

제1회 서울안보대화(SDD) 제1세션에서 '아·태지역 공동안보 도전과 WMD 확산'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는 제임스 프리스텁 선임연구원(왼쪽)과 왕이저우 베이징대 교수(오른쪽). 사회는 이상우 신아시아연구소장이 맡았다.

"북한이 한반도와 아·태지역 평화 저해"

제1회 '서울안보대화'… 17개 국가·국제기구 대표 토론

한반도를 포함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보에 대해 논의하는 차관급 다자(多者) 안보회의인 '제1회 서울안보대화(Seoul Defense Dialogue·SDD)'가 서울에서 열렸다. 매년 싱가포르에서 개최되는 장관급 다자 안보회의인 '상그릴라 대화'의 차관급 회의로,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다자 안보대화 중 가장 최고위급이다.

지난 11월 14일부터 사흘간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회 서울안보대화'에는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아·태 지역 15개국과 유럽연합(EU),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등 2개 국제기구에서는 차관급 또는 국·차장급 인사들로 구성된 대표단을 파견했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개회사에서 "최근 안보 영역은 군사적 측면뿐 아니라 경제·사회·환경 등 다양한 분야로 확산되고 있으며, 특히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군사 도발은 한반도와 아·태지역 평화를 저해하고 있다"며 "각국의 국방 관료들과 안보 전문가들이 모인 서울안보대화(SDD)에서 진지한 대화를 통해 서로의 관계를 발전시켜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제1회 서울안보대화는 '더욱 안전한 아·태지역을 위한 협력– 과제와 해법'을 주제로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방지 ▲사이버 위협 대응 ▲국방운영 효율화 등을 소주제로 다루는 3개의 세션으로 진행됐다.

"북한의 쿠바식 경제정책 여부에 관심"

15일 오전 개최된 제1세션의 주제는 '아·태지역의 공동안보 도전과 WMD 확산– 대응 및 협력 방안'이었다. 국가전략연구소의 제임스 프지스텁(James J. Przystup) 선임연구원은 '동북아시아의 대량살상무기 확산 문제– 북한과 관련하여'라는 논문 발표에서 "이 지역에서 위기를 초래하는 가장 핵심적인 근원은 북한"이라고 단언했다.

제임스 연구원은 "북한은 핵 관련 기술, 생화학무기와 관련된 기술을 확산시키려 할 뿐만 아니라 탄도미사일과 관련된 기술의 확산을 동시에 기도하고 있다"며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통제가 불안전하기 때문에 대량살상무기 확산에 관한 문제는 북한 내부 체제의 문제와 함께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중국 베이징대학의 왕이저우(Wang Yizhou) 교수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 증진 방안– 중국의 입장'이란 주제를 발표했다. 왕 교수는 북한의 새 리더인 김정은에 대해 "세습을 통해 특별경제구역을 설정하는 등 인민의 생활을 개선하는 데 긍정적 역할을 한 측면이 있다"며 "관심은 북한이 미국과 체제적 갈등에도 불구하고 쿠바같이 새로운 경제정책을 추구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에 집중된다"고 했다.

사이버 위협 대응할 국제협의 채널 제안

15일 오후에 개최된 제2세션의 주제는 '사이버 위협의 실태와 대응방안'이었다. 이용걸 국방부 차관은 제2세션 기조연설에서 "사이버 위협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실질적인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며 "국경을 초월해 공동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우리 국민은 금융, 정보통신, 상품거래, 서비스 등 각 분야에서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사이버 테러는 적은 비용으로 큰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대표적 비대칭 전력으로, 사이버 안보를 위한 국제법 정비 등 국제공조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이버 안보 보장을 위해 국제협력을 증진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는 지역 단위의 국제 공조를 강화하며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국제조약을 만들고 ▲정례적인 국제협의 채널을 만들 것을 제안했다.

고려대학교 임종인 정보보호대학원장은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의존도 증가가 사이버 위협의 증가와 피해의 증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임 원장은 "사이버 위협은 해킹, 크래킹 등 소극적 공격에서 사회 혼란 유발을 위한 사이버 테러,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사이버전으로 진화하고 있다"면서 "사이버전에서는 기존 방어체계와 개념의 확장이 아닌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일본의 사이버 보안과 정보활동– 동아시아의 새로운 위협에 대한 대응'이란 주제로 제2세션 발표를 맡은 게이오대학의 모토히로 수치야(Motohiro Tsuchiya) 교수는 일본이 2005년 설립한 국가정보보안센터(National Information Security Center·NISC)의 기능을 소개했다.

제1회 서울안보대화 개막식에서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총리실 내각 산하에 설치돼 있는 이 센터는 '새로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일본 정부의 핵심기관으로 과거에는 사이버 안보와 관련된 기술적 문제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수치야 교수는 "하지만 2009년 7월 미국 독립기념일 직후 발생한 대규모 디도스 공격 이후, 국가안보에 초점을 맞춰 빠르게 변하고 있다"며 "사법당국과 정보기관 간의 협동 시스템인 NISC가 미래 사이버 위협과 기타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일본 정보 시스템 재조직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럽·아시아 국가 간 '스마트 국방협력' 강조

안보대화 제3세션은 마지막 날인 16일 개최됐다. 드미트리 트레닌(Dmitri Trenin) 카네기 모스크바 센터장은 '러시아 군의 근대화– 21세기 전략을 찾아서'라는 주제 발표에서 "러시아는 지난 2008년 거의 20년간의 침묵을 깨고 군 변혁에 착수, 2011년 대규모 군 현대화를 실시했다"고 했다.

그는 "이를 통해 러시아는 군 안보 조직을 간소화하고, 무기 장비 훈련 수준을 높이는 성과를 거뒀다"며 "중복기능을 제거해 군 간부들에 대한 급여를 대폭 인상해 군인의 위상을 높였다"고 했다.

마지막 주제발표를 맡은 하이코 보르헤르트(Heiko Borchert) 독일 안보·국방 컨설턴트(Sandfire AG 오너 겸 관리책임자)는 '미국의 역내 존속과 유럽의 개입 도모– 아·태지역이 전략적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스마트 국방'이란 논문을 발표했다.

하이코 보르헤르트는 "통합과 공유를 통해 국방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서는 대서양 연안 국가공동체 전체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화물의 원격 검색에 중점을 두고 해양무역 안보 상황을 개선하며, 국방 전자기술을 사용한 북극해 루트를 개방하고, 이를 위해 유럽과 아·태지역 국가 간 스마트 국방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이범진 기자 / 사진·한준호 기자

중국 선전의 옌텐항구에 화물들이 가득 들어서 있다. 초고속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중국 경제는 미국과 정상을 다툴 정도로 규모를 확장하고 있다.

10년간 최대 1.45퍼센트 추가성장 기대

일본·중국의 비관세·투자장벽 계산 땐 효과 더 커져

한·중·일FTA가 실현되면 국내 경제에 얼마만큼 도움이 될까. 지난 10월 24일 열린 공청회에서 한·중·일FTA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에 관한 연구들이 소개됐다. 농업계의 우려가 있지만 경제성장, 소비자 후생, 산업별 생산 및 수출입 등 다양한 측면에서 그 효과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지난 5월 개최된 제5차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3국 정상은 올해 안에 한·중·일FTA를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는 데 합의하였다. FTA 협상을 추진하기 위한 국내 절차 중 공청회는 공식적으로 국민여론을 수렴하는 중요한 자리이다.

한·중·일FTA를 위한 공청회는 지난 10월 24일에 개최되었고, 여기에서 3국 간 FTA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에 관한 연구들이 소개되었다. 올해 초 열린 한·중FTA 공청회와 마찬가지로, 중국이 포함된 FTA에 대한 농업계의 우려와 함께 동아시아 경제통합과정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이 오갔다.

이번 공청회에서 발표된 연구들은 최근 통상환경을 반영하기 위하여 올해 수행된 것들이지만, 사실 한·중·일FTA에 대한 공식적인 연구는 2003년부터 약 6년에 걸쳐 한·중·일의 대표적인 연구기관들이 공동으로 진행해왔다.

또한 그 중요성을 감안해 2009년 10월에는 산·관·학 공동연구로 격상시켜 2년간 추가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그 결과가 올해 개최된 3국 정상회의에 보고되어 한·중·일FTA에 관한 합의를 이끌어낸 것이다.

연산가능 일반균형 모형 이용해 분석

FTA를 체결하는 목적은 무역자유화를 통해 협상당사국들이 상호 이익을 추구하는 데 있다. FTA의 긍정적인 효과는 당사국들이 좀 더 다양한 분야에서 많이 개방할수록 커지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포괄적이고 수준 높은 FTA를 추구하고 있다.

하지만 개방의 수준을 높이다 보면 경쟁력이 충분한 산업에서는 큰 이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취약한 산업에서는 피해가 우려된다. 따라서 FTA를 추진하기 전에 각 산업에서의 이해득실을 따져 경제 전반적인 효과를 분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한·중·일FTA의 효과는 경제성장, 소비자 후생, 산업별 생산 및 수출입 등 다양한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산업별 효과는 해당 산업의 경쟁력에 따라 긍정적일 수도 부정적일 수도 있기 때문에 FTA 추진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반적인 효과가 어떠한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난 10월 30일 경주에서 한·중FTA 제4차 협상이 열렸다.

이를 위해 사용되는 방법이 연산가능 일반균형(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CGE) 모형이다. 이 모형은 한·미FTA나 한·EU FTA와 같이 경제 전반에 영향을 주는 정책의 거시경제적 효과를 추정할 때 사용된 바 있다. 여기에는 한 국가의 산업별 생산, 소비, 투자, 교역 등이 어떻게 결정되고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설명하는 여러 방정식들이 들어 있다.

개방 수준은 세가지 시나리오를 분석

그래서 FTA 같은 정책이 도입되었을 때 산업별로 생산이나 소비, 투자, 교역 등이 어떻게 영향을 받으며 그 결과 경제성장이나 소비자 후생이 얼마나 변화하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

이번 공청회에서 발표된 결과는 한·중·일FTA로 인해 각국이 관세를 낮추는 경우의 효과이다. 예를 들어, 한국이 중국과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 상품에 부과하던 관세를 낮추면 중국산과 일본산 상품의 수입이 증가하게 된다.

이로 인해 경쟁관계에 있던 국내 기업들은 생산을 줄이게 되지만 해당 상품을 이용해 다른 상품을 만들던 기업들은 값싼 수입중간재로 가격경쟁력을 갖출 수 있고 소비자들도 값싼 수입재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경쟁이 활성화되어 가격이 안정화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연산가능 일반균형 모형을 이용해 한·중·일이 동시에 상품에 대한 관세를 낮추는 경우 각국의 경제 내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상호작용과 산업 연관관계를 모두 고려해 각국의 경제성장이나 소비자 후생 등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했다.

본격적인 한·중·일FTA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사전적으로 협상 결과 개방 수준을 예단하기 힘들기 때문에 낮은 수준, 중간 수준, 높은 수준으로 나눠 세 가지 시나리오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개방 수준에 따라 한·중·일FTA 발효 5년 동안에 걸쳐 약 0.32~0.44퍼센트, 10년에 걸쳐서는 약 1.17~1.45퍼센트의 추가적인 경제성장이 이루어질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 수치는 한·중·일FTA가 없었을 경우 우리 경제의 성장 추세와 한·중·일FTA로 인해 새롭게 만들어진 성장 추세의 차이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한·중·일 FTA로 인한 추가적인 경제성장으로 해석할 수 있다.

무역에 따른 관세인하 효과만 측정

한·중·일FTA는 상품 교역의 관세뿐 아니라 다양한 비관세 장벽, 서비스 교역 장벽, 투자 장벽 등을 낮추는 포괄적인 자유무역협정이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앞의 결과는 관세 감축으로 인한 효과만을 분석한 것이다.

그 이유는 관세 감축과 달리 비관세 장벽 감축이나 투자 관련 법, 제도의 개선 등은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선행연구에 따르면 일본은 다양한 비관세 장벽을 유지하고 있으며 그 크기가 관세 장벽에 비해 매우 높다.

또한 중국의 서비스나 투자 장벽은 전 세계 평균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객관적으로 측정하기는 쉽지 않지만 한·중·일FTA가 3국 간 무역장벽을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다면 그 경제적 효과는 현재 분석한 결과보다 클 것이다. G

글·김영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역통상팀장)

연평도 포격도발 1주기를 맞아 지난해 11월 23일 연평도 평화추모공원에서 열린 고 서정우 하사, 문광욱 일병의 흉상 제막식. 올해 2주기에는 이들을 기리는 '안보수호탑' 제막식이 열린다.

"자랑스러운 젊은 영웅들이여 편히 쉬소서"

고 서정우 하사·문광욱 일병 위령탑 제막식 등 다양한 추모행사

2010년 11월 23일 발생한 연평도 포격도발은 6·25전쟁 이후 처음으로 북한이 우리 영토에 무차별 포격을 가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앗아간 만행이었다. 연평도 포격도발 2주년을 맞이해 장렬히 산화한 젊은 병사들의 희생정신을 기리고자 추모 및 평화기원 행사, 전사자 위령탑 제막식, 사이버추모관 운영 등 다양한 추모행사가 개최된다.

북한의 기습적인 포격도발에 맞서 싸우다 전사한 해병 장병들의 위국헌신 정신을 기리기 위한 연평도 포격도발 2주기 행사가 11월 23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평화의 광장에서 개최된다.

2주기 행사에는 전사자 유가족 및 부대원, 정부 주요인사, 각계 대표, 시민, 학생, 장병 등 4천여 명이 참석할 예정. 2주기 행사에 참가를 희망하는 국민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에 접속, 참가신청을 할 수 있다.

이날 연평도 현지에서도 추모 및 평화기원 행사가 열린다. 오전 9시 인천시 옹진군의 연평도 평화추모공원에서는 옹진군 주관으로 인천시장, 국회의원, 옹진군 각 면민 대표 등 50여 명이 참석하는 추모식이 열린다. 또 안보교육장 준공식, 포격도발 피해복구 현장 방문 등이 이어지고 연평도 한마음 예술공연, 포격도발 사진전 등도 마련된다.

새롭게 오픈하는 연평도 안보교육장은 추모공간인 '애도의 벽'을 지나 '풍요의 섬', '공포의 그날' 등 4개의 전시실과 피폭 보존구역을 차례로 둘러보며 연평도 포격도발의 참상을 느낄 수 있게 해주고 있다.

북한의 기습적인 연평도 포격도발에 맞서 싸우다 전사한 고 서정우 하사와 문광욱 일병의 희생정신을 기리는 위령탑 제막식은 다음날인 11월 24일 연평도 평화추모공원에서 해병대 주최로 열린다.

'안보수호탑'으로 명명된 이 위령탑은 높이 4.5미터, 폭 7미터 규모로 만들어졌다. 탑의 중앙에는 두 전사자의 얼굴 부조와 함께 "조국 수호를 위한 뜨거운 염원을 가슴에 품은 자랑스런 대한민국의 젊은 영웅들이여 그대들의 숭고한 희생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곳에 편히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조국은 절대 잊지 않을 것이니, 부디 저 하늘에서 평화의 수호신이 되어 우리를 굽어보며 편히 쉬소서"란 내용의 추모글이 새겨져 있다.

안보특별사진전·사이버 추모관 운영

연평도에서는 24일 또 북한의 포격도발 당시 투철한 군인정신을 보여준 해병대 연평부대원들의 투혼을 기리는 기념관 개관식이 열린다. 기념관은 당시 피폭 현장에 세워졌으며, 첨단 전시 연출기법을 사용해 포격도발 상황을 생생하게 재현할 수 있다.

기념관 내부는 ▲평화로운 연평도 ▲서북도서를 둘러싼 전쟁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 ▲서북도서방위사령부 ▲미래 해병대 ▲포토존 등 6개의 주제로 전시 공간을 마련했다. 야외에는 전투에 참가한 연평부대원들의 명판과 포격도발 때 철모에 불이 붙은 채 임무를 수행한 임준영 상병(당시 계급)의 불탄 철모 조형물을 전시했다.

해병대는 이 기념관을 장병 정신교육, 국민 안보교육의 도장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11월 한 달간 국가보훈처, 전국 지방보훈청·지청, 보훈단체, 전쟁기념관 등지에서 연평도 포격도발 관련 사진과 영상을 한자리에 모은 안보특별사진전시회가 열린다.

이 전시회에서는 북한의 포격도발 이전 평화롭던 연평도의 모습에서부터 기습포격을 받고 반격에 나선 장병들의 긴박한 모습, 처참하게 파괴된 가옥들, 전쟁의 공포와 아픔이 서린 주민들의 표정, 그리고 다시 일상을 찾아가는 연평도의 모습까지 연평도의 아픔과 치유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다.

11월 21일부터 23일까지 사흘간 전쟁기념관 등 서울 지역 행사장 주변도로에는 가로기가 게양되고, "튼튼한 안보 없이는 평화도 번영도 없습니다"란 문안을 쓴 현판, 현수막이 설치된다.

또 국방부와 국가보훈처, 해병대, 각군 인터넷 홈페이지 및 내부 인트라넷 홈페이지에서는 지난 11월 12일부터 사이버 추모관을 운영하고 있다. 서 하사와 문 일병을 기리는 사이버추모관은 이들 홈페이지에서 11월 24일까지 운영된다.

연평도 포격도발은 지난 2010년 11월 23일 연평부대의 K-9 자주포 해상사격 훈련 도중 북한이 기습적으로 방사포 1백70여 발을 연평도 민간 시설을 포함한 군부대 시설에 무차별 포격을 감행한 사건이다.

우리 군은 당시 북한의 1, 2차 포격에 맞서 자주포로 80여 발의 대응사격을 했다. 이날 오후 2시 34분부터 3시 41분까지 1시간여 동안 진행된 교전으로 우리 해병 장병 2명이 전사하고, 16명이 부상당했으며 군부대에서 공사 중이던 민간인 2명이 사망했다.

연평도 포격도발 2주년 관련 행사

행사명	날짜	장소	주관	내용
안보 특별사진전	11월 1~30일	전국의 국가보훈처 각 지청·청 전쟁기념관 등	전국 보훈 지청·청	연평도 포격도발 관련 사진 전시
사이버 추모관 운영	11월 12~24일	국방부, 해병대 등 정부기관 홈페이지	해병대 사령부	연평도 포격도발 전사자 추모
전사자 묘역 참배 행사	11월 22일	국립대전현충원	국가보훈처, 해병대 사령부	충혼탑 및 전사자 묘역 참배
연평도 포격도발 2주기 행사	11월 23일	서울 전쟁기념관 평화의 광장	국가보훈처	정부 인사와 국회의원, 전사자 유족, 시민장병 등 참석
연평도 현지 추모 및 평화 기원 행사	11월 23일	평화공원 등 연평도 일원	옹진군	추모식, 안보교육장 준공식, 사진전 등
안보수호탑 제막식	11월 24일	연평도 평화공원	해병대 사령부	헌화와 분향, 제막식 등

문의 국가보훈처 ☎02-2020-5331

서북도서방위사령부 창설 등 방어체계 강화

연평도 포격도발은 1953년 정전 이후 처음으로 우리 영토에 포격을 가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앗아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심각한 도발행위였다.

정부는 연평도 포격도발을 계기로 연평도·백령도 등 서북도서의 방어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2011년 6월 15일 육·해·공군이 해병대의 도서방어 전력을 원활히 지원할 수 있는 작전체계 구심점으로 서북도서방위사령부를 창설했다. 또 감시정찰·표적획득·타격·기동 분야의 장비를 증강했으며, 군 시설과 주민대피소를 보강하거나 신축했다. G

글·박경아 기자

조선DB

“우리 아들을 기억해주세요.” 어머니 소망은 그러했다. 고(故) 서정우 하사의 어머니 김오복씨와 아버지 서래일씨가 지난해 11월 22일 포항 해병대 교육훈련단 해병의 집에서 아들 흉상을 어루만지고 있다.

“아들 기억해주는 분들이 고맙습니다”

유족들, 마음의 상처는 여전… 주민들에게도 전쟁의 기억 남아

서해 연평도에 북한이 기습적인 포격도발을 가한 지 2년이 지났다. 포화 속에 맞서 싸우던 젊은 병사, 일터로 나갔던 평범한 우리 국민이 희생되고 섬 주민들은 졸지에 생활터전을 잃었다. 그로부터 2년, 연평도는 일상을 회복하고 있지만 각인된 전쟁의 공포는 흔적을 남기고, 희생자 가족에게 평생 아물지 않을 상처를 남겼다.

우리나라에서 여덟번째로 큰 섬인 연평도에 가자면 인천 연안여객터미널에서 뱃길로 2시간 30분가량 걸린다.

배가 드나드는 것도 하루 한 차례. 2천여 명, 약 1천2백 세대가 살고 있던 연평도에 북한은 지난 2010년 11월 23일 오후 두 차례에 걸쳐 포격도발을 자행했다. 1차 포격에만 1백70여 발에 달하는 포탄이 쏟아져 해병대원 2명과 민간인 2명이 목숨을 잃었다. 군 시설은 물론 3백채 가까운 민가가 파괴되고 피해를 입었다.

“그때 마침 수업을 마치고 잠시 복도에 서 있다가 쿵 하는 소리가 들려 학교 뒷산을 바라봤더니 불길이 치솟아 오르더군요. 처음에는 우리 군이 훈련하다 생긴 오발탄이 아닌가 생각했는데, 포탄이 마구 쏟아지는 걸 보고 비상상황이란 걸 깨달았습니다. 당시 학교 안에는 유치원생을 포함해 아이들이 1백명가량 있었어요. 급히 대피소로 피하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평소 대피훈련을 해둔 것이 큰 도움이 됐습니다.”

“포격도발의 순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

연평유초중고등학교의 초등 1학년 담임 한상준(41) 교사는 포격도발의 순간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인천이 고향인 한 교사는 4년 전부터 이곳에 근무하고 있다.

한 교사는 1차 포격이 잦아든 뒤 정신을 차리고 대피소 안을 둘러보니 아내와 당시 초등학교 4학년이던 아들이 보이지 않더라고 했다. 교내 대피소를 나와보니 학교 관사 앞에서 아내와 아이가 애타게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가족을 근처 대피소로 피신시킨 한 교사가 다시 아이들이 있는 교내 대피소로 돌아 올 무렵 2차 포격이 시작됐다.

“2차 포격 때 학교 관사 바로 뒤로 포탄이 떨어져 우리 집 현관문이며 실내까지 완전히 망가졌어요. 놀란 아내는 그 후로 한 달간 밥을 먹다가도 눈물을 흘릴 정도로 충격이 심했습니다.”

교내 대피소에 있던 아이들 가운데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저학년생들은 두려움에 떨며 부모를 찾아 울었다고 한다. 아이를 찾아 황급히 학교로 온 부모도 있었으나 다행히 1차 포격 직후 1시간가량은 전화가 연결되어 부모들 상당수가 전화로 아이들의 안부를 확인해 아이들을 찾아헤매는 혼란은 없었다고 한다.

“아내도 그렇지만 전쟁의 공포 속에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한 가지 다행인 것은 아들이 공포를 극복하고 오히려 ‘외상후 성장’을 한 것입니다.”

희생자 유족들, 명절 때는 전화로 안부 나눠

지금은 초등 6학년인 한 교사의 아들 원규(12)군은 지난해 자유수호웅변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는 등 여러 웅변대회에 나가 상을 받았다. 원규군은 11월 23일 서울 전쟁기념관에서 열리는 연평도 포격도발 2주기 행사에 추모편지 낭독자로 초청받았다.

연평도 포격도발 2주기 행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이들이 고 서정우 하사와 문광욱 일병의 가족들이다. 지난해 열린 1주기 행사에서 흉상으로 돌아온 아들들의 얼굴을 손으로 어루만지며 보는 이들의 가슴을 저미게 한 이들이다.

서정우 하사 어머니 김오복(52)씨는 2주기 행사를 앞두고 전화를 건 기자에게 “전화를 준 것만도 고맙다”고 했다. 아들을 기억해주어서 말이다.

“22일에는 국립대전현충원의 아들 묘소를 찾고, 23일에는 전쟁기념관에서 열리는 2주기 행사에 참석해요. 다음날에는 연평도로 들어가 위령탑 제막식에 가고요.”

휴가를 나오겠다던 아들을 기다리다 졸지에 전사소식을 들었던 김씨는 요즘도 광주에서 대전까지 2주일에 한 번은 아들 묘소를 다녀라 오간다고 했다. 아들 묘소를 갔다 오면, 마치 연인을 만나고 온 것처럼 마음이 편안해진다고한다. 군 입대 전 단국대에 다니던 아들은 지난해 2월 명예졸업장을 받았다.

김씨는 그동안 포격도발을 저지른 북한보다 오히려 우리 정부를 탓하는 주장들 때문에 마음고생이 많았다고 했다.

“아까운 생명들이 희생됐는데도 북한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기는커녕 오히려 우리 정부의 대북 강경정책이 낳은 결과란 주장들을 들을 때면 밤잠이 안 왔어요. 포격도발을 한 북한이 아니라 우리 정부만 탓하는 분들을 볼 때면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속이 상합니다.”

아들을 잃은 아픔에, 그런 아픔조차도 왜곡되는 현실 속에서 김씨는 아들과 같은 전장에서 전사한 고 문광욱 일병의 가족들과 종종 같은 묘역에서 만나 아픔을 달래고, 명절 때면 전화로 안부도 묻는다고 했다.

전북 군산에서 사는 문 일병의 아버지 문영조(49)씨는 1주일에 두어 번 국립대전현충원을 찾는다고 한다. 문 일병의 싸이월드 미니홈피는 아직도 열려 있다.

평생 치유하지 못할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 가야 할 김씨는 “당사자가 아니면 그 아픔을 절대 모를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나라의 안보가 흔들릴 때 누구라도 그러한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것, 연평도 포격도발 2주년이 주는 교훈일 것이다. G 글·박경아 기자

연평초등학교 6학년 한원규군의
연평도 포격도발 2주기 행사 추모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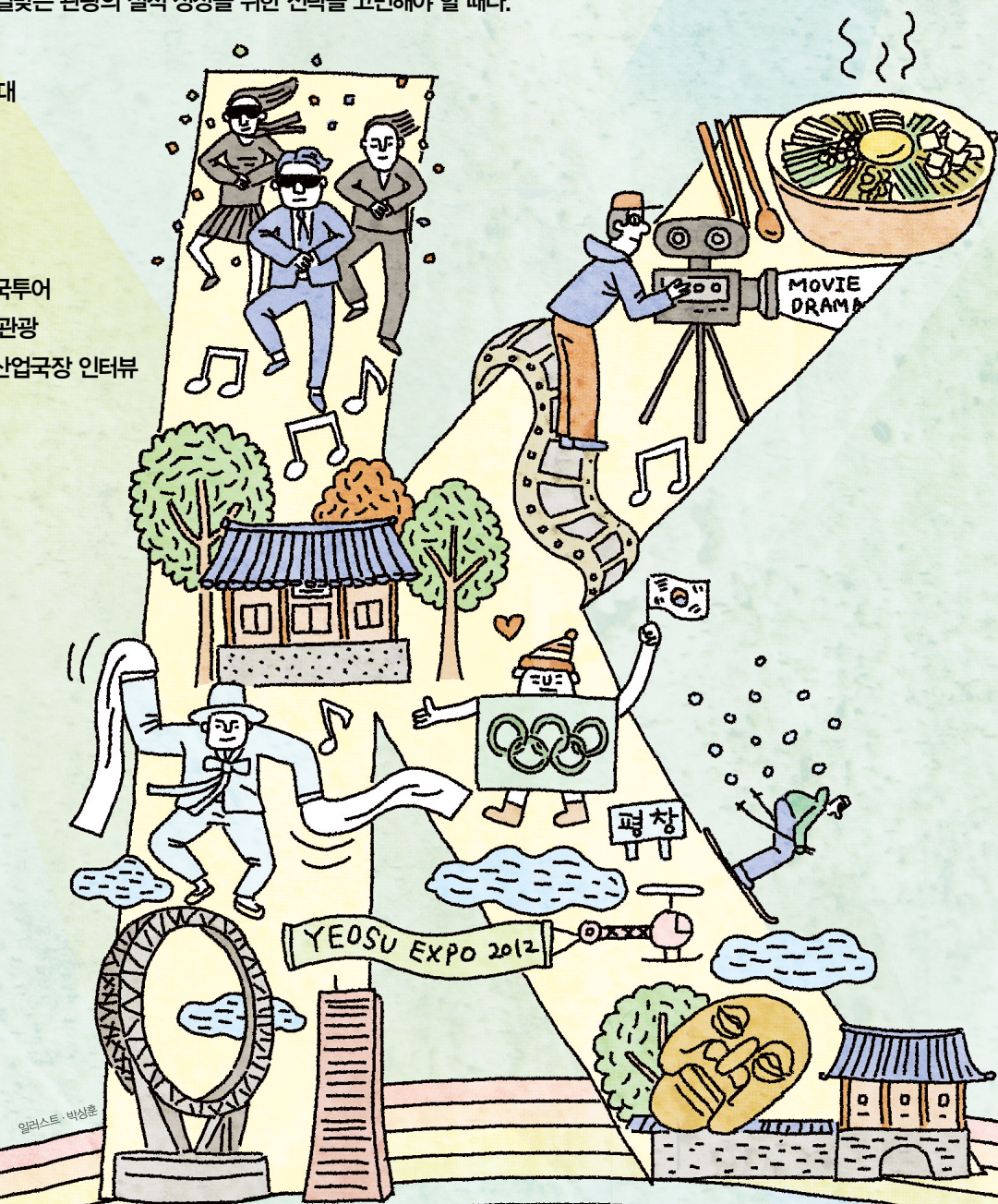
“많이 추우시죠?”
저는 요즘 바닷바람이 아무리 매섭고 추워도
절대 춥다고 말하지 않기로 약속했답니다.
제가 태어나 살고 있는 연평도는 꽃게잡이가 유명하지만
바다가 잔잔하고 파란 하늘이 눈부신 아름다운 곳이랍니다.
그런 우리 동네에 2010년 11월 23일 무서운 포탄이 날아왔습니다…
포탄이 쏟아지던 그날 밤 깜깜한 방공호에서 나를 꼬옥 안아주신
우리 엄마의 따스한 품에서 죽을지도 모른다는 무서운 생각도 했지만
공부하라는 엄마의 잔소리도, 학교운동장에서 친구들과 축구를 하고,
귀찮기만 했던 아버지와 함께 인천에 있는 시장에 가는 일도
그런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행복한 일인지도 알았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는 서정우형 문광욱 형에게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지켜주신
국군 아저씨들 감사합니다.”
저도 크면 형들처럼 군인이 되어
우리나라를 지킬 겁니다.
아버지께서 그러셨어요.
연평도 바다는 형들이 지킬 거라고.
“많이 추우시죠?”
아직도 연평도 바닷가에서
우리나라를 지키고 있을
정우 형, 광욱이 형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조선DB

기 획 특 집

뷰티풀! 원더풀! 한국 매력에 빠지다

드디어 외래관광객이 1천만명을 돌파했다. 지난 3년간 관광객이 연 1백만명씩 증가한 결과다.
이는 한국이라는 국가브랜드가 해외에서 그만큼 매력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관광이 유례없는 성장을 하고 있는 배경으로 2012 여수엑스포 개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세계 6위의 국제회의 개최지 부상 등과 함께
K팝, 드라마, 영화로 대변되는 한류 콘텐츠의 국제경쟁력을 꼽고 있다.
하지만 양적 성장에만 급급해서는 지속 가능한 성장이 힘들다는 지적도 잇따른다.
이제부터는 관광대국에 걸맞은 관광의 질적 성장을 위한 전략을 고민해야 할 때다.

일러스트 : 박상훈

2012년 10월 2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면세점 본점이 중국인 쇼핑객들로 붐비고 있다. 중국 관광객은 해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무분별한 저가관광에 따른 불만도 높다. 이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 관광정책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세계 17위권 관광 선진국으로 도약

관광 강국 스위스·호주 앞질러… 39위 일본 점점 더 따돌려

올해 한국을 찾은 외래관광객이 1천만명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1962년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은 연간 1만5천명 정도였다. 정부와 관련기관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50년이 지난 지금 무려 6백53배의 성장을 이룩한 것이다. 관광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양(量)보다 질(質)적인 성장에 역량을 기울일 때라는 것이 관광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우리나라가 외래관광객 1천만명 시대를 맞이함에 따라 명실상부한 '관광 강국'으로 도약했다. 올 연말까지 외래관광객이 1천1백20만명(추산)에 달해 세계 17위권에 이르는 관광 선진국에 본격적으로 진입하게 된다.

유엔세계관광기구(UNTWO)의 조사에 따르면 2011년 방한(訪韓)한 외래관광객 수는 약 9백80만명으로 세계 25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외래관광객 증가율은 OECD 주요 국가 중 우리가 단연 세계 최고다. 2009~2011년 3년간 우리나라의 외래관광객 증가율은 12.5퍼센트로 프랑스(1퍼센트), 미국(2.9퍼센트), 중국(2.9퍼센트) 등에 비해 월등히 앞선다.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의 관광객 순위 상승은 그동안 관광 강국으로 여겨지던 스위스(30위·8백50만명), 호주(42위·5백80만명)보다 높은 순위다. 특히 우리와 기후, 지리, 역사, 문화적 조건이 유사한 일본(39위·6백20만명)과는 그 격차가 점점 벌어지는 상황이다.

외화가득률 82.3퍼센트인 알짜산업

관광산업은 흔히 '굴뚝 없는 산업'으로 불린다. 인적 서비스가 많은 관광산업은 그 특성상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효자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세계민간여행기구(WTTC)에 따르면 관광산업은 2011년 기준으로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9.1퍼센트, 고용의 8.8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관광산업의 부가가치율은 57.3퍼센트로, 전 산업평균(36.1퍼센트)이나, 제조업(24.1퍼센트)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한다. 수출할 경우 수입원자재의 비중을 공제해 실질적인 외화획득 수치를 계산하는 '외화가득률'에 있어서도 관광산업은 82.3퍼센트로 전 산업평균(67.4퍼센트), 제조업(58.7퍼센트)보다 월등히 높다. 한마디로 관광은 큰 자본을 들이지 않고, 오염원도 발생시키지 않으면서 외화를 벌 수 있는 알짜산업인 것이다.

'외래관광객 1천만명 돌파'라는 관광 한국의 새 역사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1978년 최초로 1백만명의 외래관광객을 유치한 후, 1988년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우리나라는 외래관광객 2백만명을 돌파했다. 이후 3년 만인 1991년 우리나라를 찾은 관광객이 3백만명을 넘어섰다.

2002년 한·일 월드컵은 우리 관광산업을 획기적으로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1994년에 이어 또 한 번의 '한국방문의 해'를 지정한 정부는 월드컵과 연계시키는 각종 대형 이벤트를 연달아 개최했고, 월드컵을 통해 '다이내믹 코리아'라는 이미지를 세계인에게 확실하게 각인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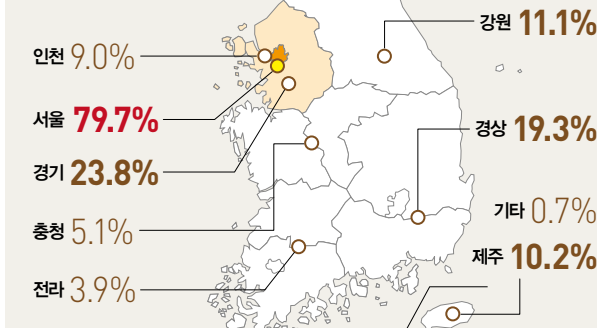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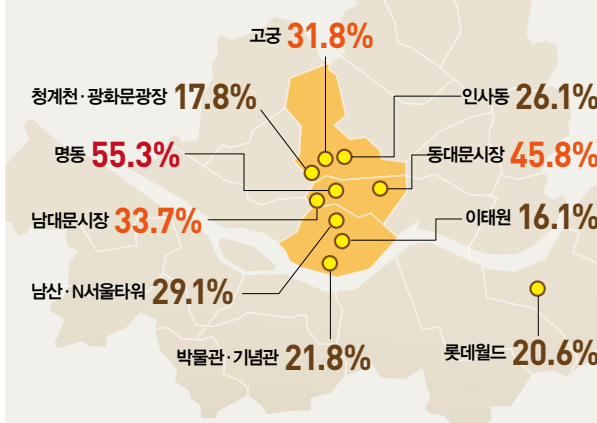
수년간의 정부 차원 지원정책 큰 효과

이와 더불어 2000년부터 아시아를 중심으로 불기 시작한 한류 열풍은 2003년부터 관광부문 활성화에 가장 큰 견인차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 결과 2000년 최초로 5백만명을 돌파한 외래관광객 수는 6년 만인 2006년에는 6백만명, 2007년 9월에는 누적 방한 외래관광객이 1억명을 돌파했다.

이제 우리의 관광산업을 이끄는 것은 한류뿐 아니라 쇼핑, 의료관광과 MICE(회의, 포상관광, 컨벤션, 전시회의 머리글자) 산업 등으로 다양화해지고 있다.

의료관광에 따른 외국인 진료수입은 2009년 5백47억원에서 지난해 1천8백9억원으로 3배 이상 늘었으며, MICE 산업 분야 중 '국제회의 개최'는 2007년 2백68건에서 2011년 4백69건으로 73퍼센트나 증가했다.

문제는 이제부터다. 양적인 팽창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나라 관광 수지는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올해 12억달러 적자 예상). 관광객의 서울 편중 현상(80퍼센트)도 심각하고 숙박, 쇼핑, 교통, 음식, 언어, 환대 서비스 등에 대해서 관광 선진국에 비해 높은 점수를 받지 못하는 형편이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나라 재방문율(40퍼센트 수준)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심원섭 관광정책연구실장은 "관광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양적인 성장 정책에서 벗어나 질적인 성장을 이루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며 "특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중국 관광객을 위해 더욱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 관광객은 지난 2007년 1백7만명에서 2012년 현재 3백만명으로 2백만명 가까이 증가하는 등 폭발적인 신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저가관광에 따른 물건 강매, 바가지요금, 수용능력 부족 등에 따른 민원도 급증하고 있다.

중국인 저가관광 문제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내놓고 있다. 지난 11월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저가관광 개선 및 고부가가치 관광 활성화 방안'을 보고했다.

이 보고서에서 문광부는 관광사업의 체질을 선진국형으로 바꾸기 위한 ▲저가관광 개선 ▲한·중 단일 관광권역화 ▲고부가가치 관광 육성 모두 3가지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문광부는 저가상품을 팔아 말썽을 야기한 여행사를 관리하고, 제재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G

글·이상흔 기자

한국방문의해위원회

지난 9월 열린 'K팝 커버댄스 대회' 참가차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들이 경복궁을 찾았다. 한국 드라마와 K팝을 즐기는 외국의 한류팬 증가로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래관광객이 증가하고 있다.

강남스타일!… 강남이 어디야?… 레츠고 강남!

'강남스타일'로 세계인들의 호기심 불러일으켜… 한국 관광에 호재로 작용

몇년 전만 해도 한국이란 나라를 몰랐던 이들이 한국 드라마와 K팝의 매력에 푹 빠졌다. 멀리서 보고 듣는 데 그치지 않고 한국을 직접 방문하는 관광객으로 발전했다. 여기에 '강남스타일'이 가세했다. 전 세계에 말춤을 유행시키고 있는 강남스타일은 한국을 알리고 강남에 대한 궁금증을 유발하며 한류관광에 불을 지피고 있다.

가수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세계를 강타하며 말춤 팬들과 언론의 관심이 집중된 곳이 강남이다. "대체 강남이 어디야?"

이같은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미국의 NBC, 영국의 BBC, 독일 국영방송 ARD, 호주 국영방송 ABC는 물론 같은 아시아권인 중국의 CCTV, 말레이시아 국영방송 RTM 등이 서울 강남을 찾았다. 미국 NBC 뉴스는 지난 9월 21일 '강남스타일을 여행하는 방법(How to travel 'Gangnam style')'이란 리포트를 올렸다.

뜻하지 않은 세계적 유명세와 해외 언론의 잇따른 취재협조 요청에 서울 강남구청도 적극 대응에 나섰다. 지난 11월 1일 강남구청에 관광과를 신설했으며, 한류스타거리 조성에 나서기로 했다.

올해부터 4년간 연차적으로 조성될 한류스타거리는 압구정동 SM엔터테인먼트에서 청담동 큐브엔터테인먼트까지 약 1.08킬로미터 구간에 들어설 예정이다.

강남구청 공보실 김광수 팀장은 "한류스타거리 조성은 '강남스타일'이 촉발한 한류열풍이 관광열풍으로 이어지는 데 있어 시의적절한 사업"이라며 "지금의 한류열풍으로 우리나라를 찾는 관광객들의 방한이 내년 이후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여 인프라 조성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한국관광공사의 외국어 홍보사이트 '비지트코리아'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무려 91.45퍼센트의 응답자가 싸이의 '강남스타일' 뮤직비디오 시청 후 한국에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고 답했다. 비지트코리아 홈페이지에서 지난 10월 10일부터 23일까지 2주간 실시된 이 설문조사에는 77개국의 외국인 1천5백56명이 참여했다.

한류 팬 중심의 '성지순례' 이미 일상화

'강남스타일'로 인해 다시 한 번 관심이 고조되고 있지만, 드라마 〈겨울연가〉 열풍에서 촉발된 한류관광은 이미 우리나라 관광산업에서 빼놓을 수 없는 매력포인트로 자리 잡았다. 지난 2002년 우리나라에서 방영된 뒤 일본과 중국, 그리고 동남아 지역 등을 평정한 〈겨울연가〉는 많은 '준상 폐인'을 낳았고, '욘사마'란 유행어를 탄생시켰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실시한 '외래관광객 실태조사'에 따르면 외래관광객들이 우리나라를 선택할 때 고려한 요인으로 '드라마 촬영지 방문, 한류스타 팬미팅'을 꼽은 응답(이하 중복응답)이 2007년 이후 2011년까지 적게는 8.2퍼센트, 많게는 11.8퍼센트였다.

또 지난해 조사결과를 놓고 볼 때, 외래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찾은 방문지는 서울권(79.7퍼센트)이었고 다음이 경기권(23.8퍼센트), 경상권(19.3퍼센트)이었으며, 드라마 〈겨울연가〉 팬들에게 성지나 다름없는 남이섬이 위치한 강원권(11.1퍼센트)은 제주권(10.2퍼센트)을 제치고 4위를 차지했다.

춘천·남이섬은 강원권에서 설악산(31.6퍼센트)을 누르고 외래방문객이 가장 많은 지역(64퍼센트)으로 꼽혔다. 경기권 방문지에서도 놀이공원인 에버랜드(41퍼센트)에 이어 드라마 〈대장금〉에서 파생된 대장금 테마파크(27.7퍼센트)는 두번째로 외래방문객이 많은 관광지였다.

〈겨울연가〉의 주인공 준상이의 추억이나 배우 배용준의 흔적을 더듬는 '성지순례' 형태의 관광에서 출발한 한류관광은 K팝 열풍과 함께 K팝 영역으로 확대되어 한류관광 형태는 콘서트 관람, 팬 미팅 등으로 다양화됐다.

조선DB

택연(왼쪽에서 다섯번째) 등 아이돌 스타들과 중화권 관광객들이 지난 6월 26일 서울 갤러리아백화점 신발 매장에서 포즈를 취했다.

드라마와 K팝 스타들은 훌륭한 관광상품이 되고 있다. 지난 7월 15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동방신기 팬 미팅에는 중국, 일본에서 온 팬 1천명이 참석했다. 팬 미팅 행사는 2시간에 불과했지만, 이들은 자신들이 좋아하는 스타를 직접 보기 위해 기꺼이 한국을 찾았다.

한국관광공사 주최로 11월 17일 낮 12시부터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평화의 문 광장에서 열린 '한류스타와 함께하는 외국인 걷기대회' 행사에는 일본, 중국은 물론 동남아, 유럽 등지에서 온 한류팬 약 2천명이 참가했다.

K팝 등 영향 커져 관광객 증가에 가속도

배우 김수현, 장혁과 아이돌그룹 인피니트, 제국의 아이들, 씨스타 등이 참가한 이날 걷기대회 행사가 끝난 뒤에는 평화의 문 광장에서 콘서트도 열렸다. 참가자 중 절반은 일본 현지 여행사를 통해 참가신청을 받았고, 나머지 절반은 '비지트 코리아'를 통해 참가신청을 낸 한류팬들이었다.

한국관광공사 제상원 한류관광팀장은 "외래관광객 실태조사에서는 한류관광객을 '드라마 촬영지 방문, 한류스타 팬 미팅'이란 좁은 범위로 설정해 최근 5년간 평균 10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으나, 한류 드라마나 K팝의 영향을 받아 우리나라를 알게 되고 찾게 되는 관광객들은 실제 그보다 훨씬 많다"면서 "최근의 강남스타일 열풍은 향후 외래관광객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G

글·박경아 기자

비지트코리아 www.visitkorea.or.kr

회의도 하고 관광도 하는 '고부가 산업'

올해 들어 핵안보정상회의 등 초대형 이벤트 14건 유치… 세계 6위 규모로 성장

정부는 올해를 '2020년 외국인 관광객 2천만명, 관광수입 3백억달러 달성'을 위한 '관광산업 재도약의 원년'으로 삼고, '한국방문의 해' 마지막 해인 2012년을 '한국 컨벤션의 해(Korea Convention Year)'로 지정했다. '컨벤션 선진국'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고 국가 신성장동력 산업 중 '고부가가치 서비스' 분야에 선정된 MICE 산업의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지역 균형발전 및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조선DB

부산시 해운대구에 위치한 벡스코 전경. 벡스코는 2001년 개관 이래 총 7백92건의 크고 작은 행사를 개최하며 국내 MICE 산업의 메카로 부상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10년간 세계국제회의 시장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거듭해왔다.

지난 2000년 1백9건의 국제회의 개최로 세계국제회의 시장에서 개최 건수로 24위를 기록했던 것과 달리 지난해에는 총 4백69건의 국제회의를 개최해 싱가포르, 미국, 일본 등에 이어 6위로 성장했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국제회의 개최 건수 기준으로 3위에 올랐다. 세계가 비즈니스 활동의 대표적인 국가로 한국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같은 성과의 배경에는 범정부 차원의 육성 의지와 산업계의 집중적인 컨벤션 유치·개최 및 해외 마케팅 등의 꾸준한 노력이 있었다.

올해 국내에서 개최된 대형 컨벤션 및 전시회는 2012 서울핵안보정상회의, 세계자연보전총회, 세계곤충학회 총회, 2012 경기국제보트쇼, 서울국제공작기계전 등 14건 이상이다. 특히 지난 3월 서울에서 개최된 핵안보정상회의는 우리나라가 개최한 정상회의 중 가장 큰 규모의 행사로, 전 세계 50여 개국 정상과 국제기구 수장이 참여해 세계의 이목을 끌었다.

MICE 산업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타 산업으로의 파급효과가 높은 분야로, 2009년 정부가 선정한 국가 신성장동력 산업의 고부가가치 서비스 분야로 선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는

한 중국 여배우 장징추 같은 세계 유명 배우들도 한국을 찾는 의료관광객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화빈그룹 옌빈 회장, 의료펀드 운용사 쇼어라인퍼시픽 회장 겸 MTV 설립자 할란 클라이만, 글로벌 의류업체 '나이가드 인터내셔널'의 피터 나이가드 회장도 한국의 의료관광을 즐기는 인사들이다.

이처럼 의료관광을 위해 한국을 찾는 외래관광객들이 늘고, 국적도 다양해진 것은 병원들이 다양한 서비스와 마케팅을 하기 때문이다. 최근 한국 병원들은 근거리에서 원거리까지 마케팅을 확대하고 있다. 서울 강남세브란스 병원은 러시아의 경우 블라디보스토크 등 근거리 지역에서 모스크바 등 원거리 지역까지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적극적인 마케팅을 하는 중이다.

최근에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마케팅이 환자와의 신뢰도를 높여준다는 측면에서 새롭게 각광받고 있다. 정승호 휴케어 대표이사는 "우리나라도 환자 중심의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초적인 콘텐츠를 갖춘다면 SNS 마케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해외환자 유치뿐 아니라 병원이 해외로 진출하는 '병원 수출'도 본격화되고 있다. 연세의료원은 2012년 2월 중국 이싱시 인민정부와 이싱시 실버타운에 '이싱 세브란스 VIP 검진센터(가칭)'를 합작 경영하는 계약을 했다. 이 계약으로 연세의료원은 자문과 브랜드 사용료 등으로 향후 5년간 총 5백만달러의 수수료를 받는다.

2020년 1백만명 유치 목표로 10대 과제 추진

지난 5년간 의료관광 성과는 높았지만, 미흡한 것도 많은 게 현실이다. 인근 동남아시아 국가인 태국(1백56만명), 싱가포르(72만명)와 비교하면 여전히 한국을 찾는 의료관광객 수는 낮은 편이다. 경쟁 국가들에 비해서 정부의 지원혜택이 미흡한 게 원인 가운데 하나다.

또 글로벌 사보험과 협력관계가 부족하고 대표 병원이 없는 것 등도 원인 가운데 하나라는 지적이다. '2012 한국국제의료관광컨벤션' 심포지엄에서 한림대 산학협력단 조성욱 교수는 "태국 범룽랏 병원은 병상수 5백38개에 외국인 환자 유치는 42만명인 데 반해 연세세브란스병원은 병상수 2천80개에 외국인 환자 유치는 6천명에 불과하다"며 "외국인들이 안심할 수 있는 보험상품 개발과 대표적인 의료관광 병원을 육성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아시아 다른 국가들과 차별화 정책을 통해 이런 한계를 극복하겠다는 복안이다. 보건복지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0월 31일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32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글로벌 헬스케어 활성화 방안'을 발표, 이러한 내용을

담은 10대 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20년 해외환자 1백만명을 유치, 해외환자 비중을 5퍼센트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기존 목표인 50만명의 2배에 달하며, 지난해 국내에 유치한 해외환자 12만명의 8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올해 외국인 환자 점유율은 상급 종합병원 기준 0.6퍼센트에 불과하다.

정부가 밝힌 10대 과제는 ▲상생적 해외환자 유치, 병원 해외진출 전략 수립 ▲고부가가치 해외환자 발굴·유치 ▲의료서비스 차별화·인지도 제고 ▲전주기 해외환자 서비스 제공체계 구축 ▲글로벌 헬스케어 전문인력 양성 ▲해외환자 유치 복합의료타운 조성 ▲해외환자 유치시장의 투명성·책임성 제고 ▲병원 해외진출 자금 지원 ▲해외진출 지원 전문기업 설립·지원 ▲병원 진출을 위한 투자장벽 해소 등이다.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글로벌 헬스케어는 미래 성장산업으로서 국내 유휴자원을 활용한 의료기관의 새로운 성장 기회가 될 것"이며 "글로벌 의료시장에서 선도국가로 부상할 수 있도록 10대 핵심과제를 차질 없이 실행하겠다"고 말했다. G

글·김남성 기자

러시아 이르쿠츠크 여행사 사장단이 제주도 한 병원을 찾아 건강검진센터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2011년 한국을 찾아온 의료관광객은 12만명을 넘었는데 보건복지부는 2020년 1백만명의 의료관광객을 유치할 계획이다.

뛰어난 의술이 만든 고품격 관광상품

2년 만에 2배 증가… "아시아 최고 의료관광지로 올라설 수 있다"

지난 10월 8일부터 사흘간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2012 한국국제의료관광컨벤션(2012 KIMTC)'이 열렸다. 올해 5회째인 KIMTC는 16개국 1백여 명의 해외 에이전시가 한국을 방문했고 국내 병원,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기업체 등 50여 개 부스가 참여해 활발한 상담이 이뤄졌다. 주최 측인 한국관광공사는 지난 5년간 한국 의료관광의 발전 모습을 볼 때, 앞으로 한국이 아시아 최고 의료관광지로 부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 2009년 의료법 개정으로 해외 환자들의 의료관광이 본격 시작된 후 외국인 환자 수는 2배가량 증가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09년 6만2백1명이던 외국인 실환자 수는 2011년에는 12만2천2백97명으로 2년 만에 2배가량 증가했다. 초기에는 건강검진이나 외래환자 중심이었지만 한국의 의료 수준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면서 수술과 입원환자도 크게 늘어났다. 2009년 실환자 중 입원환자는 3천9백15명으로 6.5퍼센트였다. 2010년에는 7천9백87명(9.8퍼센트), 2011년 1만1천9백45명(9.8퍼센트)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외국인 진료수입도 2009년 5백47억원에서 2011년 1천8백9억원으로 3배 이상 늘었다.

최근에는 중동·러시아 등에서 의료관광객이 몰려들면서 기존 미국·일본·중국 환자 위주에서 신흥시장 등으로 의료관광객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다. 특히 세계 유명 인사들이나 부호들이 한국을 찾는 경우가 늘고 있다.

세계 유명인사·부호들 의료방문도 늘어

서울 강남의 한 병원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이 병원을 찾아 건강검진을 받은 외국인 가운데 미식축구 스타 테렐 오웬스가 있었다. 그는 마이클 조던, 타이거 우즈와 함께 미국을 대표하는 특급 스포츠스타다.

또한 미국 골든글로브 남우주연상을 받은 피터 폰다, 드라마 〈섹스 앤 더 시티〉의 크리스틴 데이비스, 영화 〈적벽대전〉에 출연한 중국 여배우 장징추 같은 세계 유명 배우들도 한국을 찾는 의료관광객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화빈그룹 옌빈 회장, 의료펀드 운용사 쇼어라인퍼시픽 회장 겸 MTV 설립자 할란 클라이만, 글로벌 의류업체 '나이가드 인터내셔널'의 피터 나이가드 회장도 한국의 의료관광을 즐기는 인사들이다.

이처럼 의료관광을 위해 한국을 찾는 외래관광객들이 늘고, 국적도 다양해진 것은 병원들이 다양한 서비스와 마케팅을 하기 때문이다. 최근 한국 병원들은 근거리에서 원거리까지 마케팅을 확대하고 있다. 서울 강남세브란스 병원은 러시아의 경우 블라디보스토크 등 근거리 지역에서 모스크바 등 원거리 지역까지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적극적인 마케팅을 하는 중이다.

최근에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마케팅이 환자와의 신뢰도를 높여준다는 측면에서 새롭게 각광받고 있다. 정승호 휴케어 대표이사는 "우리나라도 환자 중심의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초적인 콘텐츠를 갖춘다면 SNS 마케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해외환자 유치뿐 아니라 병원이 해외로 진출하는 '병원 수출'도 본격화되고 있다. 연세의료원은 2012년 2월 중국 이싱시 인민정부와 이싱시 실버타운에 '이싱 세브란스 VIP 검진센터(가칭)'를 합작 경영하는 계약을 했다. 이 계약으로 연세의료원은 자문과 브랜드 사용료 등으로 향후 5년간 총 5백만달러의 수수료를 받는다.

2020년 1백만명 유치 목표로 10대 과제 추진

지난 5년간 의료관광 성과는 높았지만, 미흡한 것도 많은 게 현실이다. 인근 동남아시아 국가인 태국(1백56만명), 싱가포르(72만명)와 비교하면 여전히 한국을 찾는 의료관광객 수는 낮은 편이다. 경쟁 국가들에 비해서 정부의 지원혜택이 미흡한 게 원인 가운데 하나다.

또 글로벌 사보험과 협력관계가 부족하고 대표 병원이 없는 것 등도 원인 가운데 하나라는 지적이다. '2012 한국국제의료관광컨벤션' 심포지엄에서 한림대 산학협력단 조성욱 교수는 "태국 범룽락 병원은 병상수 5백38개에 외국인 환자 유치는 42만명인 데 반해 연세세브란스병원은 병상수 2천80개에 외국인 환자 유치는 6천명에 불과하다"며 "외국인들이 안심할 수 있는 보험상품 개발과 대표적인 의료관광 병원을 육성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아시아 다른 국가들과 차별화 정책을 통해 이런 한계를 극복하겠다는 복안이다. 보건복지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0월 31일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32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글로벌 헬스케어 활성화 방안'을 발표, 이러한 내용을 담은 10대 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20년 해외환자 1백만명을 유치, 해외환자 비중을 5퍼센트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기존 목표인 50만명의 2배에 달하며, 지난해 국내에 유치한 해외환자 12만명의 8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올해 외국인 환자 점유율은 상급 종합병원 기준 0.6퍼센트에 불과하다.

정부가 밝힌 10대 과제는 ▲상생적 해외환자 유치, 병원 해외진출 전략 수립 ▲고부가가치 해외환자 발굴·유치 ▲의료서비스 차별화·인지도 제고 ▲전주기 해외환자 서비스 제공체계 구축 ▲글로벌 헬스케어 전문인력 양성 ▲해외환자 유치 복합의료타운 조성 ▲해외환자 유치시장의 투명성·책임성 제고 ▲병원 해외진출 자금지원 ▲해외진출 지원 전문기업 설립·지원 ▲병원 진출을 위한 투자장벽 해소 등이다.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글로벌 헬스케어는 미래 성장산업으로서 국내 유휴자원을 활용한 의료기관의 새로운 성장 기회가 될 것"이며 "글로벌 의료시장에서 선도국가로 부상할 수 있도록 10대 핵심과제를 차질 없이 실행하겠다"고 말했다. G

글·김남성 기자

시작한 지 올해로 10년째인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에 대해 외국인 참가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템플스테이에 참여한 외국인들이 차 시음을 하고 있다.

한국문화의 뿌리를 직접 보고 느껴보자

인사동·한옥마을·템플스테이 등 체험관광 만족도 높아

한국 전통 고미술품을 감상하고, 한옥에서 한식을 먹으며 전통 공예품을 만들어보는 등 한국의 전통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외국인이 점점 늘고 있다. 한옥마을 숙박 프로그램과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이 그것이다. 이러한 체험 프로그램의 인기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기관에서는 외국어 예약 시스템을 구비하는 등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

일본인 이노우에 미치코(55)씨는 한국을 자주 찾는다. 한달에 한번은 꼭 시간을 내 서울을 방문한다. 처음엔 '욘사마' 배용준을 비롯한 한류 스타들을 보러 한국을 찾았지만 지금은 한국 문화를 보고 느끼려 서울에 온다. 특히 전통문화에 관심이 많다. 미치코씨 지인 중에는 한국의 사극 드라마를 많이 보다 보니 조선시대 역사에 대한 관심이 생겨 아예 본격적으로 한국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도 있다. 미치코씨가 한국에 오면 어김없이 찾는 곳이 있다. 바로 인사동이다.

인사동의 제 모습이 많이 사라졌다는 지적이 있지만 여전히 인사동은 서울을 대표하는 전통문화 거리다. 인사동 거리 곳곳에는 옛 그림이나 공예품을 파는 가게부터 호떡·엿 같은 저렴한 먹거리를 파는 노점까지 다양한 가게들이 자리해 있다. 거리 전체가 '한국적인 문화란 무엇인가'를 손쉽게 체험할 수 있게 해주는 체험관인 셈이다.

인사동은 영어로 의사소통 가능해 인기

문화관광연구원이 지난해 외래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인사동은 방문했던 관광지 중 좋았던 곳 5위로 꼽혔다. 1위부터 4위는 명동, 동대문시장, 고궁, 남산타워다. 인사동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은 '시내 한복판에 있어 접근성이 좋은 데다 상인들과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점'을 높게 쳤다. 개선할 점도 지적했다. 문화 중심지라기보다는 관광기념품 판매거리로 변해가고 있는 듯하다는 평가다.

전통문화를 좀더 깊이 체험하고 싶은 외국인들이 찾는 곳이 있다. 바로 한옥마을이다. 대표적인 한옥마을로는 서울 종로에 있는 북촌한옥마을을 비롯해 안동 하회마을과 경주 양동마을 등이 있다.

서울시 종로구 북촌 일대는 1천2백여 동의 한옥이 밀집해 있다. 근거리에 경복궁·창덕궁 등 관광명소인 고궁이 있고, 지하철 3호선 안국역도 가까워 외래관광객들이 선호한다.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식 게스트하우스가 30여 곳이 넘는다.

북촌은 한국을 처음 찾는 관광객들보다는 한국을 여러 번 다녀간 외국인들에게 더욱 인기가 높다고 한다.

북촌이 관광지로 급부상한 데는 단순히 한옥이 모여 있어서만은 아니다. 한옥에 머무는 관광객들은 전통문화를 체험해보고 싶어한다. 북촌에는 갤러리뿐만 아니라 자수, 옻칠, 천연 염색, 한복, 장신구, 바느질 등을 직접 배우고 작업할 수 있는 공방이 밀집돼 있다. 올 한 해 동안 북촌마을을 다녀간 외국인이 23만명에 이른다. 지난해 북촌마을을 포함해 하회마을, 양동마을 등 주요 한옥마을에 숙박한 외국인은 3만1천여 명이다.

템플스테이 체험한 외국인 13만명 넘어

한옥마을의 인기가 올라가자 이에 부응하기 위해 관련 기관에서는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 전주시는 내년 3월까지 한옥마을 숙박업소 69개소에 다국어 숙박예약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한국관광공사는 전국의 종택·고택 등 한옥시설에서 잠자리를 제공하는 '한옥스테이'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30개의 한옥 관련 여행코스를 만들어 알리고 있고, 외국인 대상 한옥 체험 이벤트도 열고 있다. 전통 한옥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사대부의 옛 생활상을 경험하는 고품격 한옥 육성 사업인 고택·종택 명품화 사업도 추진 중이다.

템플스테이에도 외국인 관광객이 몰리고 있다. 시작된 지 올해로 10년이 되는 템플스테이는 예불, 참선, 발우공양, 다도 등 다양한 사찰문화를 직접 체험해볼 수 있다. 종교적인 성격을 넘어 마음의 평화를 찾는 산사체험으로 운영되면서 한국의 정신문화를 체험하는 대표적 관광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앞두고 한국 전통문화를 알리기 위해 도입한 템플스테이는 내·외국인의 꾸준한 관심을 받았다. 2002년 사찰 33곳에서 2천5백여 명이 참가했던 템플스테이는 10년 사이 1백9곳 약 22만명이 체험한 프로그램으로 성장했다. 참가자가 2002년보다 1백배 정도 늘어난 수치다. OECD는 2009년 '성공적인 5대 세계 문화 관광 상품' 중 하나로 템플스테이를 선정하기도 했다.

지금까지 총 13만1천여 명의 외국인이 템플스테이에 참여한 것으로 집계된다.

참여한 사람의 만족도도 높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지난해 템플스테이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 조사를 한 결과, 애호도는 10점 만점에 외국인이 8.5점으로 내국인의 8.11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참가 동기에 대해선 내국인은 '휴식·일상의 재충전'이 22퍼센트로 가장 높은 것과 달리 외국인은 '한국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과 '불교문화에 대한 관심'을 우선순위로 꼽았다.

불교문화사업단은 향후 10년을 '템플스테이 시즌2' 기간으로 정하고 '나를 위한 행복한 습관'을 슬로건으로 삼아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내국인, 외국인, 학생, 직장인 등 각 수요자별 브랜드를 강화하고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프로그램으로 의미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한다. G

글·하주희 기자

인사동 관광안내소 insainfo.or.kr ☎02-734-0222
한옥마을 숙박안내 www.hanokstay.or.kr ☎02-729-9600
템플스테이 종합정보센터 www.templestay.com ☎02-2031-2000

상시적으로 템플스테이 운영하는 전국 사찰 16곳

번호	지역	사찰명	연락처	홈페이지
1	서울시 종로구	금선사	☎02-395-9955	www.geumsunsa.org
2	종로구	묘각사	☎02-763-3109	www.myogaksa.net
3	강남구	봉은사	☎02-3218-4826	www.bongeunsa.org
4	양천구	국제선센터	☎02-2650-2242	www.seoncenter.or.kr
5	인천시 강화군	전등사	☎032-937-0125	www.jeondeungsa.org
6	대구시 동구	동화사	☎053-982-0223	www.dhtemple.org
7	부산시 금정구	범어사	☎051-508-5726	www.beomeo.kr
8	강원도 평창군	월정사	☎033-339-6606	www.woljeongsa.org
9	경기도 화성시	용주사	☎031-235-6886	www.yongjoosa.or.kr
10	전라북도 김제시	금산사	☎010-6589-0108	www.geumsansa.org
11	고창군	선운사	☎063-561-1375	www.seonunsa.org
12	전라남도 해남군	미황사	☎061-533-3521	www.mihwangsa.com
13	경상북도 김천시	직지사	☎054-429-1716	www.jikjisa.or.kr
14	경주시	골굴사	☎054-775-1689	www.sunmudo.com
15	경상남도 합천군	해인사	☎055-934-3110	www.haeinsa.or.kr
16	제주도 서귀포시	약천사	☎064-738-5000	www.yakchunsa.org

의류 상가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쇼핑을 하고 있다.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한국 면세점도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관광코스다.

"맛있는 음식 많고 쇼핑이 편해서 좋아요"

"드라마에 나오는 거리 걷다보면 주인공이 된 듯한 기분"

쇼핑과 음식, 거리 풍경과 한류… 외국에서 온 관광객들이 전하는 한국의 즐거움은 다양했다. 외래관광객 1천만명 시대,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한국 관광의 매력과 여행의 재미를 반감시키는 문제점들에 대해 들어봤다.

서울에서 관광객들이 가장 즐겨 찾는 곳은 역시 명동이었다. 일본어, 영어, 중국어, 한글이 병용된 간판만 봐도 '관광특구 명동'의 힘이 느껴졌다. 이곳에서 만난 일본인 관광객 오카다 준지와 오카다 토모코 부부가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한국을 찾는 가장 큰 목적은 '음식'이었다.

부인 토모코씨는 "처음에는 불고기나 삼계탕, 냉면처럼 일본에서도 유명한 음식만 찾았는데, 한국을 찾는 횟수가 늘어나면서 한정식, 감자탕처럼 한국에서가 아니면 먹을 수 없는 음식들을 찾게 된다"며, "떡볶기도 맵긴 하지만 맛있다"고 말했다.

부부가 꼽는 최고의 쇼핑장소는 다름 아닌 '대형마트'. 외국인 관광객들 사이에서 사실 마트가 필수코스로 된 지 이미 오래다.

"대형마트에 가면 살 게 너무나 많아"

대형마트 쇼핑을 선호하는 관광객들은 주로 일본인인데, 서울역이나 용산역 등 서울 시내 교통 요지에 있는 대형마트에는 일본어 안내판이 놓여 있고, 명란젓·김치 등 인기 코너에서는 항공운송용 포장도 해주는 등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오카다 부부의 다음 일정 역시 대형마트라고.

"반찬이랑 명란젓, 김, 한국 라면 등 대형마트에 가면 살 게 너무 많아요. 여행 올 때마다 한가득 사 가서 주위에 선물도 하고 우리도 두고두고 아껴 먹죠."

쾌적한 쇼핑공간에서 높은 할인율과 다양한 이벤트로 쇼핑의 편리함을 추구하는 한국의 면세점도 외국인 관광객들이 선호하는 관광코스다. 명동의 한 면세점에서 만난 일본인 무라카미 히사코와 후쿠야마 토모미, 아라타 아사코는 한국 여행의 목적을 묻는 질문에 주저없이 "면세쇼핑"이라고 대답했다. 스물여섯 동갑내기 친구들이라고 자신들을 소개한 무라카미씨는, "가방 하나만 사도 비행기 값을 뽑을 수 있다"며, "명품 살 돈으로 여행도 하고 맛있는 한국 음식도 마음껏 먹을 수 있어 너무 좋다"고 설명했다.

더러운 거리 · 상인 불친절 등 불만도

부인과 두 아들을 데리고 서울로 가족여행을 왔다는 중국인 웨이밍씨는 "중국에서도 살 수는 있지만 아무래도 중국보다 브랜드 종류도 다양하고 물건도 많고 쇼핑도 편해서 가능하면 한국에서 사는 편이다"라고 전했다. 일본인 관광객들이 대부분이었던 예전과는 달리, 요즘의 면세점은 중국인 관광객들이 '큰손'으로 자리하고 있었다.

물론 모든 중국인들이 면세쇼핑을 선호하는 것은 아니다. 젊은 층은 여전히 알뜰여행을 선호했다. 중국인 팟 체씨는 "한국 면세점이나 백화점에는 중국에선 사기 힘든 명품들이 많아서 부자들이 즐겨 찾는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그래도 나나 내 주위 사람들은 동대문, 명동처럼 알뜰하게 쇼핑할 수 있는 곳이 좋다"고 말했다.

부인과 단둘이 서울 여행을 즐기고 있다는 팟씨는 "오늘은 동대문, 어제는 이대 앞에서 쇼핑했는데 싸고 예쁜 옷들이 많아 아내가 정말 좋아했다"며, "길거리 음식들을 간식으로 먹었는데, 맛이 있어서 다음에 또 찾게 될 것 같다"고 전했다.

한류에 빠져 한국을 찾은 외국인들도 다수였다. 말레이시아에서 왔다는 우미에씨는 "<대장금>, <겨울연가> 같은 한국 드라마를 좋아해서 항상 드라마에 나오는 한국 거리를 동경했다"며, "서울의 북촌, 명동, 남산 거리를 걸어보니 드라마 주인공이 된 듯한 기분이 들어 기분이 너무 좋다"고 웃으며 말했다. 우미에씨 주위에도 한국 드라마와 K팝 등의 영향으로 한류팬들이 많이 있는데, "모두 꼭 한번 가보고 싶은 나라"로 한국을 꼽는다고 전했다.

이처럼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의 매력'에 대해 전했지만 한국 여행에서 즐거운 일들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고 한다. 가장 많은 칭찬과 불평을 들은 곳은 동대문이었다. 실속파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동대문이지만, "물건값이 너무 비싸 불쾌했다", "원하지 않는 물건을 강매당했다"는 불만도 많았다.

중국인 관광객 팟 체(왼쪽)씨는 "서울에 예쁜 옷들이 많아 아내가 정말 좋아했다"며 "다음에도 한국을 찾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거리가 더럽다", "목소리가 너무 크다", "부딪혀놓고 사과하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화가 났다" 등의 불만도 많았다. 호주에서 왔다는 존 센델씨는 "음식점에서 제대로 닦지 않은 테이블로 안내받았는데, 음식도 더러울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 그냥 나왔다"는 불만을 털어놨다.

"거리 중간중간에 쉼터가 있으면 좋겠어요"

관광객들을 위한 표지판이 미비하다는 점도 지적대상이다. 팟씨는 "지도를 보고 이곳저곳을 찾아다녔는데, 길 안내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불편했다"며, "명동이나 이대앞, 동대문, 북촌을 다녀왔는데, 외국인 여행자들의 모습이 많이 보였다. 이런 곳에는 길 중간에 숍이나 식당, 관광명소를 영어로 표기한 지도가 있으면 편할 것 같다"고 제안했다.

쉴 공간이 마땅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었다. 우미에씨는 "관광객들이 잠시 쉬면서 관광정보도 얻고, 다른 여행자들과 정보교환도 할 수 있는 쉼터가 있었으면 좋겠다"며 쉼터를 겸한 관광안내소의 필요성을 전했다.

'외래관광객 1천만명' 시대, 앞으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이들이 한국을 찾는가"가 아니라, "한국에서 얼마나 큰 즐거움을 찾아갔는가"에 있을 것이다. 그런 면에서 그들의 입으로 직접 들은 한국 여행의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해 더 나은 관광한국을 만들어가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일 것이다. G

글 · 이윤진 객원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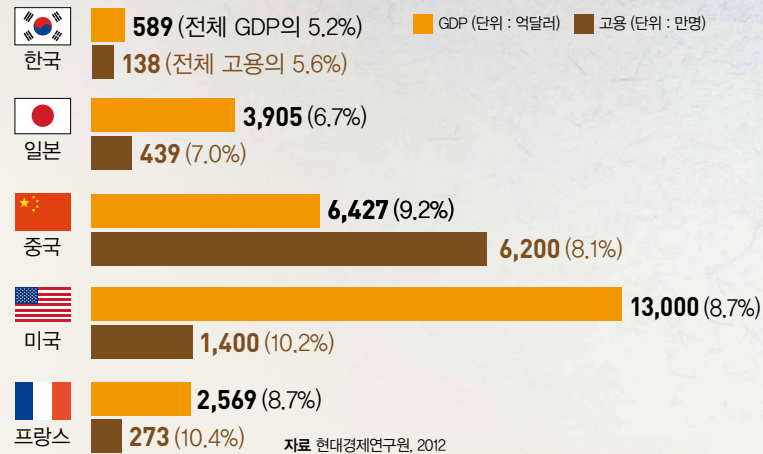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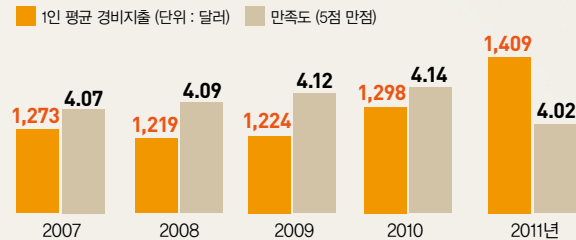
주요국 관광산업의 경제 효과 비교

※숙박·운수·여행업 등 관광산업의 부가가치와 전체 산업에 미치는 효과

국가	GDP (단위 : 억달러)	고용 (단위 : 만명)
한국	589 (전체 GDP의 5.2%)	138 (전체 고용의 5.6%)
일본	3,905 (6.7%)	439 (7.0%)
중국	6,427 (9.2%)	6,200 (8.1%)
미국	13,000 (8.7%)	1,400 (10.2%)
프랑스	2,569 (8.7%)	273 (10.4%)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2012

한국 관광 때 1인 평균 경비지출과 만족도

연도	1인 평균 경비지출 (단위 : 달러)	만족도 (5점 만점)
2007	1,273	4.07
2008	1,219	4.09
2009	1,224	4.12
2010	1,298	4.14
2011년	1,409	4.02

외래관광객 국내 소비금액 대비 경제 효과

외래관광객 10명의 국내소비금액 = 42인치 TV LCD 60대 수출 = 반도체 7,000개 수출 = 자동차 1대 수출

외래관광객 증가 추이

- 1978년 100만명
- 1988년 200만명
- 1991년 300만명
- 2000년 500만명
- 2010년 800만명
- 2012년 1,000만명

1977 제주중문관광단지 종합개발계획 수립
1975 경주보문관광단지 개발
1970 홍콩 선전사무소 개소
1963 워커힐호텔 인수
1963 조선호텔과 반도아케이드 운영
1962 국제관광공사 창립

1987 PATA총회 개최
1987 충무도남관광단지, 남원관광단지 개발
1983 제53차 ASTA총회 개최
1979 국제회의부 신설

1989 해외여행 자유화

1998 금강산 관광 시작
1998 한국관광공사 모스크바 지사 개설
1996 인터넷 관광정보서비스 개시
1995 한국관광공사 북경 지사 개설
1992 '한국 방문의 해' 행사 시행 선포

2007 한국 관광브랜드 'Korea, Sparkling'
2005 전 세계 관광청 사이트 중 1위
2002 한국 관광 해외홍보사이트 구축
2002 ASEM, 월드컵 개최
2002 드라마 〈겨울연가〉 관광상품화

2011 관광수입 1백억달러 돌파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신용언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국장

"이제 관광의 질적 성장을 향해 뛰겠습니다"

2010년부터 3년간 이어진 '한국방문의 해' 캠페인이 올해 말 끝난다. 정부는 한국방문의 해 성공을 위해 국민 환대 서비스 및 안전 한국 캠페인을 개최한 것을 비롯해 해외홍보와 특별마케팅 전개, 외래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 결과 외래관광객 1천만명 시대를 조기에 달성하는 성과를 올렸다는 평가다. 관광정책의 실무를 책임진 문화체육관광부 신용언 관광산업국장으로부터 관광객 1천만명 시대의 의미와 관광산업의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해서 들어보았다.

외래관광객 1천만명의 의미는 무엇인지.

"우리나라는 분단국이기 때문에 사실상 섬나라와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조건에서 우리나라를 찾는 관광객 수가 아시아 관광대국인 일본을 능가했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관광객 순위 20위권 내 국가들의 경제, 면적, 인구 등을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1천만명 돌파는 10위권 진입과 맞먹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양적 확대보다 질적 성장이 필요한 때라는 지적이 많은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오는 2020년에 관광객 2천만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현 시점에 필요한 질 좋은 관광을 제공하고, 방문객들의 수준 있는 지출을 이끌어낼 때입니다. 관광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지난 2월 문광부는 '다시 찾는 관광 한국', '공정하고 품격 있는 관광서비스'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바가지요금 근절 ▲중국 단체관광객 저가관광 개선 ▲가이드 자질 제고 ▲의료관광객 과다요금 징수 근절 ▲해외여행객 안전 확보 등 다섯가지 분야별 현안에 대한 개선 대책을 마련, 시행 중입니다."

중국인 저가관광의 폐해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가칭 '저가관광감시단'을 구성해 여행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질이 낮은 상품을 고가로 팔거나 가이드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지급하는 쇼핑센터도 집중 감시대상입니다. 특히 자격미달의 무분별한 가이드 고용 문제가 시정될 수 있도록 단속과 행정처분을 꾸준하게 펼칠 생각입니다. 아울러 중국정부와 협의하여 표준가격 정보를 중국 현지에 제공하고, 불법행위 중국전담여행사의 명단을 공개하는 등 관광객 피해를 사전에 막고, 저가 여행상품이 자연스럽게 도태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지난 7월에는 고부가가치형 '산업관광'을 위한 포럼도 개최했는데요.

"산업관광은 한 나라가 가진 산업 자체를 관광 자원화하는 것으로 비즈니스와 관광을 결합한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2014년 기준으로 생산 파급 효과가 2조원, 고용창출 효과가 1만5천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고부가가치 융·복합 관광상품입니다. 국제적인 브랜드를 갖춘 기업의 산업자원, 산업유산, 지역특화산업을 활용해 국제적 관광테마 거점을 개발함으로써 관광의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예정입니다."

숙박시설 부족난의 해결 방안은.

"현재 외래관광객의 80퍼센트가 수도권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수도권 호텔은 이들을 수용하기에 8천3백여 실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지난 7월 국무회의에서 '관광 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이 의결되었습니다. 문광부는 2015년까지 호텔객실 3만8천실, 대체 숙박시설 8천실을 확충해 이 문제를 해소할 계획입니다. G

글·이상흔 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11월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외래관광객 1천만명 유치를 기념해 관광업계 유공자들을 초청하여 오찬을 함께 하며 격려했다.

welcome again
"웰컴에 이어 어게인" 관광모델 만들자

"다시 찾는 코리아로"… 지역주민의 참여와 지지가 질적 성장 위한 토대

관광객 1천만명 시대를 맞아 '양적인 관광'에서 '질적인 성장'을 위한 관광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때다. 이를 위해서는 한번 찾아온 관광객들이 다시 찾아올 수 있게 하는 '경험적인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다양하고 품격 높은 복합적인 관광상품과 관광 인프라를 개발하는 것이 시급하다. 아울러 관광 종사자들의 전문성을 더욱 높이고, 관광의 질적 성장을 주도할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지난 10월 대구 이월드를 찾은 관광객들이 남녀 한복을 바꿔 입은 후 익살스러운 표정으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관광산업의 질적인 성장을 위한 정부·지자체·관광업체·주민의 공동 노력이 필요한 때다.

한국 관광은 1962년 외래관광객 1만5천1백84명으로 시작해 2012년 외래관광객 1천만명 시대를 맞이함으로써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다.

우리나라 관광이 세계에서 유례없는 성장세를 기록하는 외부 요인으로 2012 여수 세계박람회 개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2012 제주도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세계 6위의 국제회의 개최지 부상, F1 코리아 그랑프리 개최, GCF(녹색기후기금) 사무국 유치, 그리고 K팝 등 한국적 콘텐츠의 국제화를 꼽을 수 있다.

대한민국 전체의 국력이 신장하면서 관광산업의 체질도 어느덧 외래관광객 1천만명을 유치하는 관광대국의 길을 가고 있다. 관광산업은 타 산업보다 외화가득, 생산유발, 세수 및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다. 무엇보다 국가 이미지 제고 등 사회·문화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높다는 점에서 관광산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다.

외래관광객 1천만명 돌파를 자축하는 현 시점에서 양적으로 성장한 관광산업이 체질을 강화하고 실질적으로 국민 삶의 질(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질적 관광에 관심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저가 관광 체질개선 방안도 모색해야

예를 들면, 최근 관광의 새로운 아이콘으로 떠오른 '한류 관광'의 경우 한류 스타, 드라마 촬영지 등과 연계한 콘텐츠 외에 한류를 다양한 한국 문화와 접목하는 복합관광의 형태까지 나아가지는 못하고 있다. MICE(비즈니스 관광) 산업도 연계 관광을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에 한계를 나타낸다.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래관광객들의 재방문 비율이 다른 관광 선진국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낮은데 이는 관광객들의 경험적인 가치 창출이 그리 높지 않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이다. 이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관광산업의 새로운 질적 성장 패러다임에 대하여 고민해야 할 때다.

1천만명 관광객 시대를 맞아 우리나라 관광이 당면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들을 전방위적으로 모색해야 할 시기이다. 무엇보다 ▲융·복합 관광 인프라 개발을 위한 제도 혁신 ▲저가 관광 체질 개선을 위한 고품격 관광상품 개발 ▲전문 관광인력 양성 등 '한국형 질적 관광 성장 거버넌스(해당 분야의 여러 업무를 관리하는 국정체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관광선진국으로 이끌 컨트롤 타워 필요

관광의 질적 제고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광 종사원의 역할이 중요하다. 양적으로 급성장하는 우리의 관광 현실에서 이 문제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고객과 최접점에 있으면서 관광객들의 방문 가치를 올릴 수 있는 관광 종사원의 자질 부족은 우리 관광산업의 지속 성장을 저해하는 큰 걸림돌이다. 따라서 프리미엄 가이드를 양성하고 관광종사원의 서비스 교육을 강화하는 공적 기관의 역할을 더욱 확대해나가야 한다. 또한 1천만명 관광객 시대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숙박 등 부족한 관광 인프라를 갖추기 위한 규제 완화도 필요하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정부와 민간이 공동 노력을 통해 한번 방문한 관광객의 경험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융·복합 관광상품을 만들어낼 때 진정한 의미에서 질적인 성장의 토대를 갖출 수 있는 것이다.

세계적인 관광명소에는 호텔, 컨벤션센터를 중심으로 테마파크, 쇼핑센터 등이 한데 모여 있다. 관광 관련 복합시설이 집적화되어야 경제적 가치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관광대국들이 양적 성장과 함께 질적 성장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영국, 뉴질랜드, 싱가포르, 홍콩 등의 관광 선진국은 여러 가지 품질제고 제도(예: 뉴질랜드는 숙박업소와 여행서비스 업체를 대상으로 국가인증제도인 '퀄마크' 부여 등)를 도입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 현재 우리도 정부와 지자체가 우수 여행사 선정, 숙박 인증, 생태관광 인증, 쇼핑인증제도 등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덧붙여 전체적인 관광의 질적 성장을 이끌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지난 11월 12일 한 이탈리안 패밀리 레스토랑이 한국방문의 해 외국인 관광객 1천만명 달성을 축하하기 위해 '김치·막걸리 데이' 이벤트를 개최했다.

한편 관광의 질적 가치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참여와 지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역주민들은 관광객들의 향후 재방문 결정 의사를 비롯해 입소문 효과를 일으키는 관광상품의 비공식적 매개자들이기 때문이다.

주민들의 신뢰와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관광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인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은 관광산업의 질적인 성장을 끌어올리는 견인차이기 때문에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관광 모델이 형성되어야 한다.

끝으로 지역관광의 경쟁력이 자생할 수 있도록 국내관광의 활성화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국내관광 활성화는 외국인 관광객의 수용 능력을 높이는 효과와 함께 관광을 통한 국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데 기여한다. 결국 국내관광 활성화가 가치중심의 질적 관광 성장의 가장 중요한 토대가 되는 것이다.

글·김철원 (경희대학교 호텔관광대학장)

“엄홍길 대장과 산에 오르며 꿈도 키워요”

청소년 희망원정대, 매월 한번 등산 등 다양한 체험활동

서울시 강북구청이 유명 산악인 엄홍길 대장과 함께 진행하는 ‘청소년 희망원정대’가 주5일제 수업 실시 이후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자치구 사업 중 가장 우수한 프로그램으로 꼽혔다.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 11월 10일 희망원정대의 산행에 동행해 학생들을 격려했다.

지난 11월 10일 강북구 관내 12개 중학교에서 모인 60여 명의 학생들이 엄홍길 대장,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함께 도봉산을 올랐다.

청소년들이 산행을 통해 도전정신을 배우고 꿈을 키우는 프로그램이 있다. 서울 강북구청(구청장 박겸수)은 매월 둘째 주 토요일을 이용해 산악인 엄홍길 대장과 함께 산을 오르는 ‘청소년 희망원정대’를 운영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강북구청과 엄홍길 대장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이 사업은 2012년 4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총 8회에 걸쳐 진행된다. 봄과 가을에 매달 둘째 주 토요일이면 강북구청 관내 12개 중학교에서 모인 총 60명의 학생이 ‘희망원정대’에 참가하고 있으며 여름과 겨울에는 1박 2일의 캠프를 떠난다. 내년 1월에는 강원도 최전방 부대 인근을 찾아가는 겨울캠프가 예정돼 있다. 희망원정대 사업은 청소년이 지향해야 할 올바른 방향을 선도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특히 주5일제 수업이 실시된 이후에도 청소년들이 쉴 수 있는 공간과 적정한 놀이문화가 마땅치 않다는 점에 착안, 산이라는 열린 공간에서 몸과 정신을 단련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희망원정대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단순히 등산만 하는 게 아니라 스포츠클라이밍, 농구, 래프팅, 영화관람 등 다양한 문화체험 활동을 하게 된다.

주5일제 수업 후 가장 우수한 프로그램

학생들은 주5일 수업제 실시에도 불구하고 휴일이면 학원수업에 내몰리고 있는 게 우리의 교육 현실이다. 인터넷 게임에 중독되거나 집단 따돌림(왕따)과 같은 학교 폭력에 쉽게 노출되고 있어 사회문제로 대두되기도 했다. 강북구청과 엄 대장은 이런 현실을 감안 “산행과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자연을 배우고 자기를 극복하는 과정을 겪으며 사회성, 동료애, 이해심 등을 스스로 깨우치게 하는 게 이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여섯번째로 진행된 지난 11월 10일 산행은 엄씨가 3세 때부터 40년간 살아온 도봉산에서 진행돼 청소년들이 산악인 엄홍길의 삶을 조금 더 가까이 느껴볼 수 있는 기회였다. 이날 원정대는 엄씨의 집터를 지나 원도봉 계곡과 덕제샘, 망월사와 포대능선을 거쳐 내려오는 코스를 밟았다. 엄 대장은 “사춘기 때 산속에 살면서 원망도 많이 하고 힘들게 보냈지만 도봉산은 오늘의 나를 있게 해준 곳이다. 학생들도 이런 경험을 공유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희망원정대에 참가한 학생들이 도봉산 중턱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번 산행에는 주 5일제 수업에 따라 자치구가 운영 중인 청소년 대상 사업 중 우수프로그램을 체험하기 위해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동행하며 학생들에게 더욱 뜻깊은 행사로 각인됐다.

유명인사 재능나눔 통한 ‘1인 2기’ 정책 확대

최 장관은 도봉산 산행에 참석한 학생들에게 “희망원정대는 한국의 대표 산악인 엄홍길 대장과 같이 산을 오르며 산을 통해 체득한 중요한 경험들을 공유하고 다양한 스포츠 체험을 통해 자연사랑과 함께 인내심, 협동심을 배울 수 있는 훌륭한 프로그램이다. 학생들이 산을 오르며 자신의 꿈도 함께 키워나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정한 선진 일류국가를 지향하는 요즘 시대에는 시민들이 경제적 풍요뿐만 아니라 창의적 여가활동과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이런 분위기에 잘 부합하는 청소년 프로그램으로 희망원정대가 주목받게 된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발 더 나아가 앞으로 희망원정대 사업과 유사한 행사들을 적극 권장함으로써 ‘1인 2기’ 정책도 확대해나간다는 계획이다. ‘1인 2기’ 사업은 문화예술 분야와 스포츠 종목에서 각각 한 가지씩 꾸준히 참여해 더욱 건강한 삶을 영위하자는 취지에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 중 하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희망원정대가 강북구에서 시작된 작은 행사이지만 앞으로 유명인사들의 재능나눔을 통해 1인 2기가 전국적으로 퍼져나갈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되고 있다고 했다. G

글·김대현 기자

산악인 엄홍길 대장

“등산을 할수록 아이들이 밝고 건강해져요”

‘청소년 희망원정대’를 추진하게 된 배경은.

“요즘 청소년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다. 닫힌 공간에서 주입식 교육만 받다 보니까 인성교육이 뒷전으로 밀렸다. 주5일 수업제가 시행된 뒤에도 경제력이 뒷받침되는 아이는 학원에 다니기 바쁘고 형편이 좋지 않은 아이는 집에서 겉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게 산행과 캠프였다. 아이들이 자연을 배우고 체력을 기를 수 있는 열린 공간을 만들어주자는 취지였다.”

강북구청과 함께 진행하고 있다던데.

“내 집이 마침 강북구에 있다. 산과 인연을 맺은 내가 아이들을 위해 무언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박겸수 강북구청장이 희망원정대 프로그램을 제안해 왔다. 강북구는 북한산이라는 명산을 끼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산을 통해 학생들이 도전정신, 인내심을 키울 수 있겠다 싶었다. 모든 비용은 강북구청에서 지원하고 있다.”

주로 어떤 학생들이 참가하는가.

“애초에는 이른바 문제학생 위주로 운영하려 했다. 그러나 학생들을 골고루 섞어 진행하는 게 오히려 좋겠다는 결론을 내렸다. 강북구 관내 12개 중학교에서 5명씩 추천받아 총 60명이 참가한다.”

등산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반응이 궁금하다.

“등산을 거듭할수록 아이들이 밝고 건강해지는 걸 느낀다. 처음에는 산에 올라가지 않으려는 아이도 있고 너무 뒤처져 걱정스러운 학생도 있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우리는 하나’라는 공동체 의식이 생겨났다. 등산을 하면서 나는 히말라야 산악지대의 아이들이 어렵게 살아가는 이야기도 해주곤 한다. 아이들이 함께 등산하는 친구를 도와주며 긍정적 마인드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일 때 보람을 느낀다.”

일러스트·신명호

아니 벌써! 기업들 상생의 후원 나섰다

현금·현물·응원 후원 목표 세우고 다양한 아이디어로 참여

미국, 캐나다, 오스트리아 등 주로 선진국에서 열렸던 지적장애인의 스포츠 제전인 스페셜올림픽이 드디어 한국에서도 열린다. 내년 1월 29일 개막하는 2013 평창 동계스페셜올림픽의 개최 준비 작업은 기업들의 적극적인 후원 속에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기업들은 '레드리본 캠페인', '색다른 목도리 프로젝트' 등을 기획해 성공적인 대회를 위해 측면 지원하고 있다.

2013 평창 동계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의 성공 개최를 돕기 위한 기업들의 후원 활동이 활발하다. 대회가 열릴 예정인 평창과 강릉에서는 물론 서울에서도 각종 이벤트를 펼치는 등 대회를 널리 알리고 있다.

2013 평창 동계스페셜올림픽은 전 세계 지적장애인들에게 지속적인 스포츠 훈련 기회를 제공해 운동능력과 사회 적응력을 향상시켜 생산적인 사회구성원으로 인정받도록 하려는 취지로 열리는 국제스포츠대회다. 오는 2013년 1월 29일부터 2월 5일까지 8일간 강원도 평창 및 강릉 일대에서 열린다.

스페셜올림픽 공식후원사인 신한카드는 대회 참가 선수단에 전달할 목도리를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뜨개질해서 기증하는 '색다른 목도리 프로젝트'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직접 뜨개질한 '색다른 목도리' 선물

색다른 목도리는 2013 평창 동계스페셜올림픽 마스코트 라(Ra), 인(In), 바우(Bow)의 색상을 형상화한 것으로, 서로 다른 색이 어울려 아름다운 무지개를 이루듯 지적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할 때 비로소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이룰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Rainbow)를 나타낸다.

이 캠페인은 평창 동계스페셜올림픽에 참가하는 전 세계 1백20여 개국, 3천3백여 명 지적장애 선수 전원에게 손수 뜬 목도리를 본 대회 개막식 때 선물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참가선수들이 대회기간 내내 우리나라의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취지다.

목도리 프로젝트는 지난 5월 19일 서울 여의도 신한금융투자 본사 대강당에서 대회 공식후원사인 신한카드 임직원 2백60명의 참가로 그 막이 열렸다. 이후 부산(1백20명), 광주(35명), 춘천(70명), 강릉(40명), 제주(30명) 등 전국 6곳에서 5백55명이 참가해 목도리를 뜨는 행사를 진행했다. 지난 10월 29일에는 김금래 여성부장관을 비롯해 대한민국 여성단체들이 참가한 가운데 '색다른 목도리' 캠페인을 진행했다.

'색다른 목도리'는 2009년 미국 아이다호에서 개최된 동계스페셜올림픽 때 선수들에게 줄 수 있는 특별한 선물이 무엇일까 고민 끝에 나온 것이다. 5천개를 목표로 시작한 목도리 기부운동은 각종 지면과 온라인상 블로그, 커뮤니티, 뉴스레터 등을 통해 급속도로 확산되어 미국 전역, 호주, 그리스, UAE, 영국, 푸에르토리코, 캐나다, 일본 등 전 세계로 알려지면서 마침내 6만개가 넘는 목도리가 조직위원회로 기증되는 등 스페셜올림픽만의 전통으로 자리매김했다.

'Together We Can' … 따뜻한 기업 이미지

네이버는 **해피빈**과 연계해 지난 1월부터 후원사, 기업·단체를 통한 소액 모금 활성화 프로모션을 추진해 최근까지 약 1억원을 모금했다. 후원 방법은 외국선수단의 참가경비를 지원하는 현금후원, 대회에 사용하는 물자를 후원하는 현물후원, 매칭된 국가의 경기현장 방문과 응원을 하는 응원후원 등이 있다. 스페셜해피 매칭 캠페인은 기관과 개인이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모금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밖에 **LG생활건강**과 **P&G**(위생키트), **MPK그룹**(미스터피자), **대한항공**(항공권), **오리온**(제과류) 등의 후원기업들도 다양한 현물 후원을 하고 있다. 특히 오리온은 '목도리 캠페인', '청계천 걷기대회', '자원봉사 발대식' 등 본대회에 앞서 진행된 사전행사에도 꾸준하게 물품을 지원하고 있다.

레드리본 캠페인·1백만 응원 페스티벌 펼쳐

1968년 스페셜올림픽 창립 당시부터 대회 후원사로 참여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 **코카콜라**는 한국에서도 스페셜올림픽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소비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촉구하는 각종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이벤트로 '레드리본 캠페인'이 있다. 코카콜라의 상징인 '빨간색'과 스페셜올림픽에서 최선의 기량을 보여준 선수들에게 수여하는 '리본'을 조합해 만든 아이콘으로, 레드리본을 통해 일반대중에 친근하게 다가가 스페셜올림픽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관심을 환기시키는 행사이다.

유명인사 1백인을 'Be a Fan' 홍보대사로 선정해 스페셜올림픽을 알리는 행사도 눈에 띈다. 코카콜라는 국제스페셜올림픽 슬로건인 'Be a Fan'의 메시지를 레드리본에 담아 일반대중에게 '다함께 스페셜올림픽의 팬이 될 것'을 권유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향후 홍보대사 1인당 1백만원씩을 매칭해 조직위에 기부하고, 온라인에서는 오프라인 소비자의 호응에 따라 레드리본과 연계한 매칭 기부도 진행할 예정이다. G

글·하주희 기자

연합

런던장애인올림픽에 출전했던 여자 국가대표 선수들이 평창 동계스페셜올림픽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전달할 유니폼을 들어 보이고 있다.

장애인올림픽 선수들도 스페셜올림픽 응원해요

런던장애인올림픽에서 선전하며 국민에게 감동을 안겨줬던 여성장애인 국가대표선수들이 2013 평창 동계스페셜올림픽 응원에 나섰다. 장애인올림픽 양궁 금메달리스트 '숙자매' 이화숙·고희숙·김란숙, 보치아 금메달리스트 최예진, 육상 은메달리스트 전민재, 휠체어펜싱 김선미 등 런던장애인올림픽에서 선전하며 국민에게 감동을 안겨줬던 여성 국가대표 13명은 지난 11월 16일 자신들이 입었던 태극기가 가슴에 달린 경기복을 스페셜올림픽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전달했다. 런던 승리의 기운과 장애인올림픽에서 보여줬던 국민들의 관심이 계속 이어지기를 응원했다. 이번 행사는 2012 KPC(대한장애인올림픽위원회) 여성스포츠위원회 워크숍 사전행사로 지난 11월 16일 이천장애인체육종합훈련원에서 열렸다.

양궁 국가대표 이화숙 선수는 "이번 행사는 어머니이자 언니, 누나인 여성 장애인선수들의 따뜻한 응원과 격려를 스페셜올림픽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며 "2013 평창 동계스페셜올림픽이 국민적 관심 아래 성공적으로 개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 따라 자전거를 달리며 평생 간직할 추억을 만들고 4대강 국토종주 기록도 달성한 남길남, 동윤 부자가 10월 6일 금강 자전거길 종주 중 전북 익산 성당포구 인증센터에서 기념 촬영을 했다.

"아이의 체력이 여행할수록 다져지네요"

중2 아들과 자전거로 4대강 종주한 남길남씨… 인터넷 여행기 뜨거워

4대강 국토종주자전거길 개통 이후 생긴 새로운 트렌드가 가족 단위 자전거여행이다. 인터넷 자전거 동호회 사이트마다 자녀와 함께 한 여행기에 대한 반응도 뜨겁다. 함께 추억을 만들고, 부모와 자녀가 서로 진솔한 모습을 발견해가는 과정, 누구나 한번쯤 해보고 싶은 '위시 리스트'일 것이다.

"5월 12일 토요일 아라뱃길, 운명의 날, 첫 도장: 아들 친구와 토요일 이른 아침 가벼운 마음으로 목동 집부터 자전거를 탄 것이 그만 아라뱃길까지 가버렸네요. 기념으로 수첩을 사서 첫 도장을 찍고 말았습니다…."

첫 도장의 마력에 걸려든 탓일까. '40대 중반의 배불뚝이 아저씨와 고도근시의 중2 아들'은 그날 이후 틈틈이 길을 떠나 4대강 국토종주를 해내고야 말았다. 지난 10월 20일 영산강을 끝으로 국토종주를 마친 아버지는 네이버 블로그 '자전거로 여행하는 사람들(cafe.naver.com/biketravelers)'에 '동앤소'란 아이디로 아들 동윤(14)이와의 자전거 여행기와 사진들을 올렸다.

많은 이들이 부러움이 가득 담긴 댓글로 이 멋진 부자를 격려했다. 자전거여행을 하는 동안 여행거리만큼 쑥쑥 자라나는 아들의 모습을 맛깔나게 적은 글솜씨, 아이와의 자전거여행에 도움이 되는 생생한 정보는 "나도 한번쯤…" 하게 만들기 충분했다.

이렇게 부러움을 산 동앤소님을 오프라인에서 만나고 보니 그의 '정체'는 자본시장연구원 남길남(43) 파생상품실장이었다. 남 실장은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집에서 사무실이 있는 여의도까지 8년째 자전거로 출퇴근해 온 '자출족'이기도 했다.

남 실장의 부친 남태우(73·강원도 춘천)씨도 거뜬하게 서울과 춘천을 자전거로 오가는 자전거마니아. 지난 추석 때에는 3대가 서울에 집결한 뒤 춘천까지 '자전거 추석귀향'을 하려다 일정 문제로 무산되어 다음을 기약하고 있다고.

5월 말 한강서 시작… 10월 20일 영산강서 마무리

내친 김에 국토종주에 나선 남 실장 부자는 5월 27일 양평~충주댐, 6월 3일 충주~문경 새재길, 6월 10일 목동~양평 구간을 완주해 순서는 좀 뒤죽박죽이긴 하지만 한강종주를 마쳤다.

다음 코스를 낙동강으로 정한 남 실장은 아들의 체력을 키워주기 위해 7월 14일부터 매주 토요일마다 세 차례 파주, 가평, 춘천을 오가며 특훈을 했다. 8월 9일 새벽 안동을 출발해 11일 저녁 부산 을숙도까지 무려 4백3킬로미터를 주파했다. 숙소를 찾거나 식사를 위해 국토종주자전거길을 가끔 벗어나다 보니 공식거리 3백85킬로미터보다 더 달린 것이다.

이어 10월 6일 금강, 10월 20일 영산강 종주를 마치면서 부자의 자전거 국토대장정은 마침내 막을 내렸다. 국토종주자전거 인증 등록번호는 부자가 나란히 2639번, 2640번.

남 실장은 자녀가 장거리 자전거여행을 하려면 초등학교 5학년 이상은 돼야 할 것 같다고 했다. 대신 아이의 체력은 처음엔 좀 힘들어해도 여행을 하면서 다져지는 것 같다고.

"아들이 편식이 좀 심했는데 4시반 기상 후 변변한 식사를 못하다가 12시가 다 되어서야 겨우 식사를 하게 되자 남김없이 먹어치웁니다. 충주시에 다 와서 아들이 남한강에 떠 있는 데크로 만든 작은 선착장을 보더니 벌렁 누워버리네요. 날 잡아잡수!"(5월 27일 남한강 종주 기록)

부자에게 가장 소중한 선물은 추억 그 자체

블로그 사진들을 보면 동윤이는 여행 초기 다소 지친 표정의 사진들이 많다. 하지만 중반을 넘어서면 지친 표정이 사라지고 여행에 적응을 잘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부자는 이번 국토종주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고비가 낙동강 자전거길의 달성보와 합천창녕보 사이의 MTB코스와 업힐코스를 지날 때였다고 했다.

"우회로가 있었는데도 우리 자전거가 MTB인 데다 아들도 어느 정도 적응이 된 것 같아 MTB코스로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난코스인 데다 소나기가 제법 내려 시간은 지체되고, 아이는 지치고, 돌아가자니 너무 많이 왔고…. 계속 앞으로 갈 수 있을지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남길남 부자가 국토종주를 완료한 10월 20일 영산강 자전거길에서 동윤이가 포즈를 취했다.

여기에 타이어가 펑크 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하지만 어려움을 참으며 펑크 난 타이어를 수리하고 예정대로 완주를 했다.

동윤이 역시 그때가 가장 힘들었다고 말했다. "처음에는 아버지께서 함께 가자고 해서 따라 나섰습니다. 하지만 힘든 고비를 넘기도 하고, 그동안 보지 못한 세상 모습들을 보며 스스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나 자신에 대한 반성도 많이 하고 깊이 성찰하는 마음가짐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의젓하게 여행소감을 말한 동윤이는 또래 친구들을 위해 "자전거여행이란 단단한 각오를 갖고 출발해야 하는 것 같다. 또 여럿이 하는 것이 안전하고, 지칠 때 서로 격려해줄 수 있다"고 충고했다.

남 실장은 자전거로 누빈 우리 땅 곳곳이 정말 아름다웠다고 했다. 무엇보다 좋았던 것은 사람들을 만난 일이라고 했다.

"걸어서 국토종주를 하는 젊은이도 만났고, 자전거여행을 함께 하는 부부, 자전거세계여행을 준비하고 있는 분도 만났습니다. 낙동강 삼강리 근처에서는 자신의 집에서 수도를 끌어내 지나는 자전거족들에게 사용하게 해주신 어르신을 만나기도 했고요."

부자에게 남은 가장 소중한 선물은 바로 아버지와 아들의 4대강 길 국토종주 추억 자체일 것이다.

"자기에게나 대단한(그것도 지금이나 그렇지만) 아빠지 사회에서는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소시민 중 한 명이라는 것을 아직은 모르다가 이번 여행을 통해 눈치라도 챘으니 저로서는 오히려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속으로 '아들아, 아빠는 슈퍼맨이 아니란다. 결국 네 인생은 너의 힘으로 꾸려가야 한단다' 하고 아들에게 이야기해봅니다."(10월 20일, 국토종주를 마치며) G

글·박경아 기자

25세에 사업 도전한 박보미 GANDA유학 대표

“자신감과 풍부한 경험 믿고 도전했어요”

G20세대들의 거침없는 도전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세계를 무대로 한국의 위상을 높인 스포츠·연예 스타들의 탄생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런 흐름에 발맞춰 국내외를 오가며 다양한 사업에 도전하는 젊은이들도 크게 늘고 있다고 한다. 지난 11월 13일 만난 GANDA유학 박보미 대표도 전형적인 G20세대다.

이신영 기자

20대 사업가 박보미씨를 지난 11월 13일 서울 논현동 사무실에서 만났다. 그는 인터뷰에서 “학생들이 어릴 때부터 다양한 경험을 쌓아야만 자신감을 갖고 스스로 미래를 개척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올해 25세인 박보미 대표는 지난 1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유학원 사무실을 내고 사업을 시작했다. 그는 “조기유학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도 있지만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을 경험한 초·중학교 학생들은 국제적인 감각을 느끼고 돌아옵니다. 단기 어학연수와 캠프를 중계하는 일을 하게 된 배경입니다”라고 말했다.

GANDA유학은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해리스버그에 본사를 두고 있다. GANDA(Global Arena, with your Dream and Ardor)는 꿈과 열정을 세계 무대에서 펼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지난 1994년 재단 형태로 설립된 GANDA는 매년 3백명 안팎의 한국 학생들의 유학을 중계해왔다. 18년간 안정적인 유학서비스를 제공해온 노하우를 갖고 있는 것도 GANDA만의 장점이다.

박 대표가 운영하는 GANDA유학은 미국 본사가 직접 운영에 참여하는 형태로 설립됐다. 무남 독녀인 박 대표는 지난 2006년 초 미국 연수를 할 때 GANDA재단과 인연을 맺었다. 당시 현지에서 업무를 도왔던 걸 계기로, 5년 만에 직접 유학원을 운영하게 된 것이다.

“무엇보다 경험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스무 살의 나이에 홀로 미국에 갔던 것도 그렇고 여기저기를 찾아다니며 줄곧 많은 걸 배우려고 노력해왔어요. 유학원을 처음 시작할 때 자신감도 이런 경험에서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결정을 주저했다면 저는 아직도 창업 준비 중이었을 거예요.”

유학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스무 살 때 미국으로 어학연수를 다녀왔다. 당시 GANDA재단 운영진들과 인연을 맺었는데 저를 인상 깊게 봐주신 게 계기가 됐다. 거기서 유학생들의 인턴 프로그램 업무를 보조하는 일을 했었다. GANDA재단은 한국에 20여 개 유학원과 연계한 유학사업을 하고 있는데, 직영 사업체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던 차에 제가 운영자로 나서게 됐다. 미국과 한국의 제도와 정서가 달라 이를 잘 이해하는 유학원이 필요했던 것이다.”

어린 나이에 창업이 쉽지 않았을 텐데.

“물론 힘들었다. 처음에는 간헐적으로 유학원과 미국 현지를 연결하는 역할 정도만 하다가 직접 유학원을 운영하려니까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손이 안 가는 게 없었다. 생각을 문서화하고 사람을 고용하고 마케팅까지 해야 했다. 다행히 지금은 틈나는 대로 비자 관련 공부를 할 여유도 생겼다. 부모님 도움 없이 유학원을 차린 건 그동안 조금씩 모아놓은 종잣돈이 있어 가능했다. 사무실에 필요한 가구도 내가 직접 중고시장에서 구입했다.”

GANDA유학의 장점은.

“유학생들이 가장 많이 가는 미국 펜실베이니아 지역에 본사가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다. 비용도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다른 유학원에 비해 저렴한 이유는 본사와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어서 중간에 불필요한 지출을 줄일 수 있다. 유학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유학 준비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거치게 마련인데, 우리는 오랜 노하우로 중간에 일정이 변경되거나 수정할 일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또래 친구들을 만나면 대화 주제가 다를 것 같다.

“친구들을 만나면 주로 취업 관련 얘기를 많이 한다. 나는 유학원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대화 주제가 조금 다를 수밖에 없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좋은 분들을 소개받는 일에 더 관심을 갖게 된다.”

본사가 운영에 관여하는가.

“여기서 만드는 각종 연수 및 캠프 프로그램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한다. (본사에서) 그렇게 배려해주고 있다. 최근에는 국제학교 분교를 세워 운영할 계획도 세우고 있다. 미국 현지에서 분교를 설립하자는 제안이 오고 있다.”

유학원을 운영하면서 겪는 어려움이 있다면.

“나이가 어리다는 게 가끔 애로사항이 된다. 어머님들이 문의 전화를 할 때도 목소리 조절에 신경을 많이 쓰게 된다. 안 그러면 ‘어린 사람이잖아’라고 조금 가볍게 생각한다.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다. 방문 상담을 오시는 분들에게도 최대한 신뢰감을 줄 수 있는 말과 행동을 하려고 노력한다. 다른 유학원과 차별화를 위해 전문지식을 갖춘 인력들이 계속 자기계발을 하고 있다.”

나만의 사업 노하우가 있다면.

“많은 경험을 하는 게 중요하다. 그게 내 좌우명이기도 하다. 해외나 국내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지 않았다면 유학원 사업을 직접 할 엄두를 내지 못했을 것 같다. 아이들이 학교 공부보다 해외에서 영어도 배우고 이것저것 보고 느낄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기도 하다. 초등학생의 경우 학원비를 줄이면 충분히 해외 경험을 쌓게 해줄 수 있다.”

학부모들이 유학이나 연수에 만족해하는지 궁금하다.

“기대 이상이라는 반응이 많다. 최근 현지 영어캠프를 다녀온 일부 학생들은 아예 조기 유학을 떠났다. 영어를 배우는 것 말고도 칭찬받는 교육환경을 경험하고 리더십이 좋아진 학생도 있다.” G

글·김대현 기자

> **G20세대란**
> 세계를 무대로 도전하는 창조적인 젊은이들을 일컫는 신조어다. 스포츠스타인 김연아·박태환 선수와 한류 열풍을 이끌고 있는 K팝 가수처럼 이미 세계로 진출했거나 도전하려는 젊은 세대를 말한다.

이신영 기자

사무실 한켠에는 GANDA유학을 통해 미국 영어캠프에 참여했던 학생들의 사진이 걸려 있다.

조선DB

미국으로 유학이나 연수를 떠난 학생들은 현지 학생 및 교사들과 어울리며 적응해간다.

'세계 제빵왕' 오른 박용호 그린하우스 대표

"손님 사랑받는 백년 전통 빵집이 꿈"

세계 3대 제빵왕 대회 중 하나인 독일 이바컵(IBA CUP) 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박용호 대표는 철인 3종 경기를 즐기는 스포츠광이다. 건강한 신체가 어려움을 포기하지 않는 건강한 정신을 가져다준다고 믿는다. 그는 "제과·제빵을 배우려는 청년들이 많지만, 금방 포기하는 사람 또한 많다"며 "제과 기술을 배우기 위한 가장 중요한 재능은 성실함"이라고 강조했다.

이상훈 기자

창원에서 '그린하우스'라는 제과점을 운영하는 박용호 대표. 그는 "우리나라에서 모범이 되는 제과 업체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경남 창원 경남은행 옆에 있는 그린하우스는 우리가 흔히 만날 수 있는 동네 제과점이다. 퇴근 무렵이 되자 끊임없이 몰려드는 손님을 맞느라 종업원들이 눈코 뜰 새가 없었다. 빵을 구워내고, 진열하고, 계산하는 직원들의 바쁜 움직임은 마치 서울의 인기 있는 어느 대형 식당의 '피크타임'을 연상시켰다.

이 제과점 주인이 얼마 전 세계 3대 제빵왕 대회 중 하나인 독일 이바컵(IBA CUP) 대회에서 우리나라 대표로 출전해 금메달을 획득한 박용호(40)씨다. 박 대표는 "인근에 대형 프랜차이즈 제과점이 두 개 있지만, 개의치 않는다. 맛과 품질에서 절대로 그들에게 밀리지 않는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박 대표는 지난 9월 16~21일까지 6일간 독일 뮌헨에서 열린 국제 제과제빵 박람회 중 마지막 이틀간 개최된 이바컵 대회 제과 분야에서 부산에서 제과점을 운영하는 권순승(41)씨와 한 조를 이뤄 이 대회에 출전한 8개 팀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3년에 한 번씩 열리는 이 박람회는 세계 최대 규모의 제과·제빵 박람회로, 이바컵 대회는 미국과 프랑스 박람회 때 열리는 대회와 함께 세계 3대 대회로 꼽힌다.

"대형 제과점도 맛과 품질에선 나를 못 꺾어"

참가 선수들은 ▲설탕 공예작품 ▲초콜릿 작품 ▲작은 구운 과자로 가로세로 3센티미터 이내 크기로 작업 ▲음식으로 여러 동물 캐릭터 표현 ▲케이크 ▲각국의 전통과자 등 6개 분야에서 경연을 벌였다. 박용호-권순승 조는 '한국의 가을'을 주제로 작품을 구현했다. 박용호 대표의 설명.

"첫날 경연 후 심사위원들과 관중이 우리 팀에 많은 관심을 보이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대회 후 심사위원들은 '한국 선수들의 위생적인 작업 모습과 데코레이션, 맛에서 다른 나라 선수들이 배울 것이 많다'는 평을 내놓더군요. 그동안 한국에서 많은 분이 도전해 왔는데 우리 팀이 최초로 금메달을 따서 무척 기뻤습니다."

박 대표는 이미 이바컵 대회 출전 이전부터 제과·제빵 분야에서 실력을 인정받아 왔다. 그는 2011년 2년마다 열리는 서울 국제 빵 박람회 중 빵 공예 부문에서 1등인 '최우수상'을 획득했고, 2009년에는 2등인 '금상'을 받았다. 또한 각종 제과·제빵왕 선발대회에 나가는 경남 출신의 후배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내도록 코치도 해오고 있다.

박용호 대표는 원래 수영강사 출신이다. 스물네 살, 5년차 베테랑 수영강사로 입지를 굳히고 있던 그에게 제빵 분야는 전혀 새로운 도전이었다.

"제가 근무하던 수영장 옆에 작은 빵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곳을 지날 때마다 빵 굽는 냄새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걸 한번 도전해 봐야겠다고 생각하고, 개인 가게에서 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빵을 만드는 일이 그렇게 힘들 줄 몰랐습니다. 포기하려고 마음먹은 게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빵을 만들수록 이 직업에 묘한 매력을 느꼈고, 배우는 속도도 남보다 빨랐습니다."

"제과점은 고객사랑 없으면 생존할 수 없어"

박 대표는 "빵을 만들면서 빵은 항상 정직하고 노력한 만큼 분명한 대가가 주어진다는 믿음을 가지게 됐다"며 "이런 자신감이 생기면서 1년 만에 독립해서 직접 가게를 차렸다"고 말했다.

"보통 7~8년은 배워야 개인 가게를 차리는 데 1년 만에 시작했으니 고생이 말도 못했습니다. 제가 가게를 차리고 1년 있다가 IMF 외환위기가 왔습니다. 처음에 자금이 없는 상태에서 가게를 했기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빵은 노력을 배반하지 않는다는 믿음이 확고했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3년을 이곳에서 버티면서 가게를 운영하자 손님들이 점점 알아주기 시작하더군요."

박 대표는 "처음에는 기술이 부족해 힘들었고, 3년 후부터는 손님이 너무 많이 밀려들어 와 힘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빵집은 빵맛으로 승부를 해야 한다'는 믿음으로 엄선한 재료로 빵을 만들고, 신제품 개발을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한다. 현재 그의 제과점에서 만드는 빵은 2백50여 가지. 홀이나 주방에서 일하는 종업원 10여 명 외에도 빵을 직접 만드는 기술자만 14명이나 될 정도로 가게가 커졌다고 한다.

"3년 전 창원에 제과점이 1백30개였는데 지금은 80개로 줄어들었습니다. 대형 프랜차이즈 제과점이 들어오면서 수십 년 빵을 만들던 명장들이 줄줄이 업계를 떠났습니다. 다행히 손님들이 맛에 대해 높은 평가를 해주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과점은 고객 사랑을 받지 못하면 생존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린하우스

세계 제빵왕 대회인 이바컵 대회에서 1위를 차지한 박용호(왼쪽)·권순승 팀이 우승상장과 트로피를 들고 활짝 웃고 있다.

이제부터가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박 대표는 직원들과 소통하지 못하면 손님들과도 소통하지 못한다는 철학으로 가게를 운영한다고 말했다. 종업원들과 소통하지 못하면 사장이 어떤 마인드를 가졌는지 직원들이 정확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결국 맛있는 빵을 손님에게 제공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매월 1백만원씩 지역사회 위해 기부

"돈이 아니라, 제가 하는 일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제과점을 운영해 왔습니다. 남에게 뒤처지지 않으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것이 손님들에게 통했고, 자연스럽게 매출도 늘어난 것입니다. 지역민들의 도움으로 지금의 자리에 올 수 있었기 때문에 이들에게 고마움도 표현하고, 나누는 삶을 살고 싶어서 매월 1백만원씩 지역사회를 위해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박 대표는 내년에 현재 가게에서 가까운 곳에 4층짜리 제과 전문 빌딩을 지으려고 한다. 그는 "건물이 완성되면 직원들에게도 제과업계 최고의 복지시설을 제공하고 싶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에서 손님들의 사랑을 받으며 50년, 100년 된 전통 있는 빵집을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지금 제빵업계에 뛰어드는 후배들은 열악한 근무조건을 견디지 못하고 중도에 그만두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후배들과 우리나라 제과·제빵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제가 할 일이 많다고 봅니다. 직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평생직장으로 여기면서 일할 수 있는 모범적인 제과업체의 모델을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G

글·이상훈 기자

백두대간 이화령 87년 만에 연결됐다

"민족정기 바로 세우고 한반도 중심 생태 축 회복 의미"

일제에 의해 끊어진 백두대간 이화령 구간이 복원되었다. 행정안전부와 산림청은 1925년 도로 개설로 단절된 이후 87년 만에 이화령 고개를 연결하고 11월 15일 준공식을 가졌다. 이화령은 백두대간의 본줄기로서 충북 괴산군과 경북 문경시를 잇는 해발 5백48미터의 고개로 영남지방과 중부지방을 연결하는 지역이며, 한강과 낙동강의 분수령이 되는 지점이다.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화령 복원은 일제에 의해 단절된 백두대간을 되살려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는 일임과 동시에 한반도의 중심 생태 축을 연결해 생태계를 복원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화령 복원사업은 행안부와 산림청이 지난 2월부터 백두대간 시민단체·환경·조경·산림전문가 및 향토 사학자 등의 조언을 받아 지난 4월 초 설계를 완료하고 6개월간의 공사를 거쳐 준공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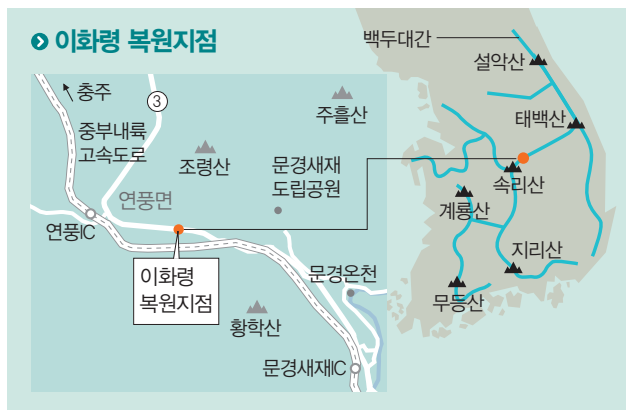
단절된 이화령 고개에 연장 46미터(폭 14미터, 높이 10미터)의 터널을 만들고, 터널 상부를 단절되기 이전의 높이로 성토한 후 수목을 심어 생태통로를 조성, 백두대간을 복원한 것이다.

정부는 이화령 준공과 더불어 앞으로 복원이 시급한 백두대간 단절구간 대관령, 육십령, 벌재 등 12개소를 연차적으로 복원해나갈 계획이다.

백두대간의 이화령이 일제의 도로 공사로 끊어진 지 87년 만에 연결됐다.

대관령·육십령·벌재 등 12곳도 연차 복원

이화령 휴게소 광장에서 개최된 준공식에는 맹형규 장관과 지역주민, 백두대간 보존관련 시민단체(백두대간 보존회, 백두대간 시민연대, 백두대간 진흥회) 대표와 회원 등 2백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준공식에는 취타대 연주와 대북공연을 시작으로 경과보고, 축사 등과 더불어 이화령 복원을 축하하기 위해 작시한 이근배, 유안진 시인의 시비제막식도 함께 거행되었다.

특히 이근배 시인의 '솟아오르는 백두대간이여 하나 되는 국토의 혈맥이여'라는 시를 전남 완도 중앙초등학생 용하정 어린이가 판소리로 공연해 많은 사람의 눈길을 끌었다.

이날 맹형규 장관은 "백두대간 이화령 복원은 우리 민족의 정기와 얼을 바로 세운다는 측면에서 그 역사적 의미가 매우 크다"고 강조하고 "한반도 중심 생태 축이 연결되어 생태계도 원래대로 회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야생동물연합 조범준 사무국장은 "이화령 복원으로 민족정기를 되찾은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한반도 생태계의 연속성이 확보되어 한반도의 생물 다양성을 높이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여성 최초로 백두대간을 종주한 남난희씨는 "곳곳이 파헤쳐지고 끊어진 백두대간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다"며 "이화령 복원은 우리 민족의 자존심을 다시 세운 것이다"라고 했다. G 글·이상흔 기자

"컵라면은 전자레인지로 데우면 안 돼요"

식약청 기준 공개… 삼각김밥은 30초·국물 어묵은 2분간 데우면 인체에 무해

20대 후반의 직장인 김상만씨. 혼자 생활하다 보니 간단한 식사를 위해, 때로는 색다른 입맛을 찾아 편의점을 찾는다. 하지만 즉석식품을 전자레인지에 넣고 데울 때마다 환경 호르몬이 녹아 나오는 것 같아 꺼림칙한 기분이 든다.

전자레인지로 가열한 음식을 섭취해도 건강에는 이상이 없을까. 식품의약품안전청이 11월 14일 식약청 홈페이지와 블로그에 올린 '전자레인지 용기·포장에 대해 알아봅시다'에 따르면 두 가지만 확인하면 된다. 바로 포장용기의 전자레인지 사용가능 여부와 조리시간이다. 식약청 첨가물기준과 전대훈 연구관은 "즉석식품에 표기된 전자레인지 사용가능 여부와 조리시간은 엄격하게 실시된 실험을 근거로 표기된 것이다. 꼭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시중에 나와 있는 즉석식품의 경우 ▲도시락류는 1분 30초 내외 ▲삼각김밥은 20~30초 ▲용기에 담긴 국물 어묵은 2분 이내에 전자레인지로 데울 것을 당부하고 있다. 용기 자체에서 환경 호르몬이 검출되지 않은 데다 표시된 조리시간만 지키면 용기에서 이물질이 음식물에 녹아 들어가는 것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식약청 설명이다.

'전자레인지용' 표기 땐 조리시간 지키면 안심

단, 컵라면은 전자레인지에 넣어서는 안 된다. 전자레인지에 넣고 데울 경우 고온에 용기성분이 녹아 국물에 스며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제품 상당수에는 용기 상단에 전자레인지 사용을 금지하는 안내표시가 돼 있다.

그렇다면 이들 제품의 차이는 무엇일까. 바로 용기의 재질이다. 대다수 컵라면의 용기재질인 폴리스틸렌은 원료물질 '비스페놀A'와 제조과정에서 형태를 쉽게 만들기 위해 첨가하는 가소제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가 내분비계를 교란하는 환경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도시락이나 삼각김밥, 국물 어묵, 용기에 담긴 만두 등 전자레인지 조리가능 표시나 조리시간이 표시된 즉석식품의 용기는 폴리프로필렌과 폴리에틸렌으로 만들어진다. 폴리프로필렌은 가소제와 비스페놀A가 들어 있지 않아 환경 호르몬이 검출되지 않는다.

편의점 등에서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는 즉석식품 이용이 늘면서 즉석식품 포장용기의 안전성에 대한 궁금증이 많아지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최근 안전기준을 공개했다.

섭씨 1백도 이상의 고온에서 녹을 수 있어 수분이 많은 국물류 제품에만 용도가 한정된다.

이밖에 플라스틱 제품 중에서 멜라민수지, 페놀수지, 요소수지로 된 제품들은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가 녹아 나올 수 있으므로 전자레인지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용기에 전자레인지 조리가능 표시가 되어 있더라도 주의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편의점 즉석식품 중 일부 도시락류는 뚜껑이 다른 재질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 벗긴 채 가열해야 한다. 이 경우에도 포장용기 전면에 설명되어 있으니 사용법을 확인해야 한다.

냉동된 음식물을 해동할 때도 전자레인지용 용기·포장이 아닌 제품은 전자레인지용 그릇 옮겨 담아야 한다. 랩은 섭씨 1백도 이상 고온으로 올라가면 랩 제조 시에 사용된 가소제가 녹아 나올 수 있으므로 뚜껑처럼 덮는 용도로만 사용하는 게 바람직하다.

전자레인지는 마이크로파로 물분자를 마찰시켜 열을 발생시킨다. 이 때문에 물의 분자배열을 변화시켜 인체에 해롭다는 논란도 일고 있으나 식약청에서는 "물의 특성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안심해도 좋다"고 밝히고 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에서 '정보자료' 메뉴를 클릭해 들어간 후 화면 하단 '용기포장 정보'란을 살펴보면 된다. G 글·남창희 객원기자

mcst.go.kr 문화체육관광부

시외버스·택시 전좌석 안전벨트 매세요

24일부터 모든 승객 의무화… 위반 사업자·운전자엔 과태료

오는 11월 24일부터 시외버스·택시·전세버스를 이용하는 모든 승객은 반드시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한다. 안전띠 착용 의무를 지키지 않은 운송사업자와 운전자에게는 각각 50만원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탑승자는 처벌받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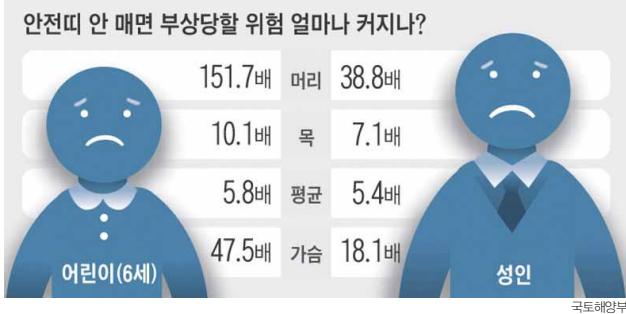
운송사업자는 운전사에게 안전띠 착용 안내, 시기, 점검 방법 등의 교육을 분기마다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일반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는 안전벨트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지난 9월 5일 입법예고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24일부터 시행한다. 국토부 대중교통과 김용석 과장은 "도로를 운행하는 광역급행형 시내버스(M버스), 시외버스, 택시, 전세버스, 장례식 등 특수여객 자동차를 이용하는 승객은 모든 좌석에서 안전띠를 착용해야 한다"며 "다만 택시의 경우엔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를 주행할 경우만 의무화되고, 시내를 주행할 경우엔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에 따르면 운전사는 기점 또는 경유지에서 승차하는 승객에게 출발 전에 안전띠를 착용하라고 안내해야 한다. 다만 임신부와 부상, 질병, 장애, 비만 등 신체 상태에 따라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기가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승객은 의무 착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 12퍼센트에 불과

우리나라 승객들의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은 여전히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지난해 9월 서울에 있는 고속도로 톨게이트 4곳에서 승용차 7천4백여 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은 12퍼센트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카시트를 장착한 차량에 어린이를 태운 비율은 30퍼센트에 불과했고, 어린이가 있는데도 이런 보호장비를 갖추지 않고 운행하는 차량도 42퍼센트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안전띠는 자동차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승객이 앞 유리에 부딪히는 것을 막아 피해를 최소화해주는 유용한 장치다. 운전자가 자동차 운전대에 앞가슴을 부딪혀 입을 수 있는 흉부파열 등의 피해도 방지해준다. 교통안전관리공단 조사에 따르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의 사망률은 착용한 사람보다 1.6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

안전띠를 착용할 때는 우선 운전대와 좌석의 거리, 운전석의 높이를 자신의 키에 맞게 조절해야 한다. 엉덩이를 좌석에 밀착시켜 바르게 한 뒤, 의자에 깊게 앉아 가슴과 허리에 '착' 달라붙는 느낌으로 맨다. 안전띠를 맬 때는 허리띠를 골반에, 어깨띠는 어깨 중앙에 걸쳐서 매야 한다. 특히 어린이의 경우 어깨띠가 목이나 턱, 얼굴을 감싸지 않도록 주의한다.

띠를 당겨 조임쇠에 고정시킬 때는 안전띠가 꼬이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안전띠가 꼬이면 폭이 좁게 말려 들어간 부분에 과도한 힘이 집중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정일영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미국 미시건대학의 연구 결과, 안전띠를 착용한 임신부는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 태아를 보호할 확률이 84퍼센트나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임신부도 반드시 안전띠를 매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G

글·이범진 기자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 확 줄었다

워킹스쿨버스 운영·어린이보호구역 강화 효과 나타나

스쿨존 확대와 워킹스쿨버스 활용으로 어린이 교통사고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직장을 다니느라 일일이 챙기지 못해 아이의 등·하교 시간이 늘 불안했어요. 그런데 워킹스쿨버스가 다닌 후부터는 안심하고 일할 수 있고 아이도 친구들과 같이 다닐 수 있어 좋아하네요."

초등학교 2학년 김나현양의 엄마 여진희씨는 워킹맘이다. 여씨는 최근 초등학교 주변에서 일어난 교통사고, 유괴, 성폭력 등의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걱정이 많았다. 하지만 얼마 전부터 전국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워킹스쿨버스가 운영되면서 한숨 돌리게 됐다. '워킹스쿨버스'란 걸어다니는 스쿨버스란 뜻으로 교통안전지도사가 초등학교 어린이들을 모아서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도록 함께 걸으며 집까지 데려다주는 프로그램이다.

2011년 10만명당 1.3명… OECD 평균보다 낮아

도로교통공단·교통안전공단·한국교통연구원이 공동으로 최근 5년간 우리나라 어린이(13세 미만)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분석한 결과, 2007년 1백79명이었던 사망자 수는 지난해 80명으로 집계돼 55.3퍼센트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가 2007년 6천1백66명에서 2011년 5천2백29명으로 15.2퍼센트 감소한 것과 비교할 때 큰 폭으로 감소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이 2007년 8천4백29개소에서 1만4천9백21개소로 약 77퍼센트 확대되면서 1천개소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07년 1.1명에서 2011년 0.7명으로 36.4퍼센트 감소했다.

어린이 교통안전도도 선진국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4세 이하 어린이 인구 10만명당 사망자는 1.3명으로 OECD 평균 1.4명보다 낮아 선진국 수준으로 진입했음을 보여줬다. 이는 2010년부터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안전관련 시민단체 등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2010년 38개교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했던 워킹스쿨버스를 올해는 5백24개교로 확대한 것이 학부모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서울시가 학부모를 대상으로 지난 3월부터 시내 84개 초등학교에서 운영한 워킹스쿨버스 1학기 만족도 조사를 한 결과, 전체 학부모 1천2백56명 중 응답자의 87.3퍼센트(1천97명)가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어린이가 통학하는 차량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법률도 개정했다. 통학차량 운전자는 어린이가 승·하차하는 것을 확인해야 하며,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다. 또한 통학차량에 광각후사경(일반 자동차 백미러보다 차 뒷부분을 더 넓게 확인할 수 있는 장치)을 부착해야 한다.

지난해부터 어린이보호구역에 서행(시속 30킬로미터) 스티커를 부착하는 '교통사고 없는 어린이보호구역 만들기 민·관 공동 캠페인'을 실시해 운전자가 차량속도를 줄일 수 있도록 했다.

도로교통공단 황상호 교통사고종합분석센터장은 "어린이들의 교통사고가 점차 줄고 있지만 앞으로도 중앙정부, 지자체, 교통전문기관, 시민단체 등을 비롯한 사회구성원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G

글·정소안 인턴기자

'5년 낙제' MS의 모바일 도전, 윈도8!

아이폰의 통제·안드로이드의 다양성 극복 여부에 성공 달려

마이크로소프트가 새로운 운영체제 윈도8을 발표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아이폰으로 촉발된 모바일 컴퓨팅 시대의 주도권을 빼어오기 위해 윈도8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하지만 이런 전략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윈도8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거대 IT기업들 간에 벌어지고 있는 소리 없는 전쟁의 이면을 들여다본다.

AP연합

마이크로소프트는 모바일 운영체제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 10월 31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마이크로소프트 개발자 콘퍼런스에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임원이 윈도8이 어떻게 구현되는지 어플을 작동하며 보여주고 있다.

간장으로 유명한 샘표식품은 사업 다각화를 위해 캔 커피 시장에 진출했다. 전략회의를 거쳐 제품명은 '샘표 커피'로 결정되었다. 회사 내부에서는 '샘표' 브랜드에는 간장으로 쌓아올린 신뢰성 있는 기업 이미지가 담겨 있으므로 이를 활용함으로써 커피 시장에서도 성공할 수 있을 것이란 믿음이 강했다. 하지만 '샘표 커피'는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 '샘표'가 부각된 이미지에 소비자들은 어쩐지 커피가 짤 것 같은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다.

한 가지 브랜드로 여러 제품을 만들지 말라는 것은 마케팅 교과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내용이다. 하지만 수많은 거대 기업이 바로 이 원칙을 어겨왔다. 새로운 도전자를 물리치기 위해 기존의 탄탄한 브랜드를 활용하려는 유혹을 떨쳐버리기 어렵기 때문이다. 최근 모바일 부문에서 경쟁력을 잃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MS) 또한 같은 길을 걷고 있다.

PC지배자도 모바일 컴퓨팅에선 신참에 불과

MS는 PC 시장의 지배자였다. 윈도는 사실상 1백퍼센트에 가까운 PC 운영체제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모바일용 윈도는 달랐다. 모바일 윈도가 사용된 제품은 안정성이 떨어지고 사용이 불편하여 내비게이션 등 단순기능 제품에만 쓰였을 뿐 스마트폰과 같이 다양한 작업을 하는 기기에는 적합지 않았다. 하지만 아이폰이 나오면서 모든 것이 달라졌다.

애플이 만든 멀티터치 인터페이스는 스마트폰을 진정한 모바일 단말기로 쓸 수 있게 해주었다. 아이폰은 사람들이 꿈꾸던 휴대용 컴퓨터의 원형이었다. 전화, MP3, 카메라, 내비게이션, 녹음기, 검색과 웹 서핑 등 수많은 작업을 부드럽게 처리할 수 있는 아이폰에 소비자들이 열광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아이폰은 인간의 행동 양식도 바꾸어버렸다. 더 이상 사람들은 지하철에서 신문을 보지 않는다. 식탁에 앉은 가족이 각자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는 모습이 일상이 되었다.

애플은 아이폰, 아이팟, 아이패드로 모바일 컴퓨팅 시대를 열었다. 이제 PC보다 모바일 단말기가 더 많이 팔리고 있다. 각 가정에는 PC보다 스마트폰과 태블릿PC 수가 더 많으며 모바일 기기로 인터넷을 처음 접한 인구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PC조차 데스크톱보다는 노트북이 더 선호되고 있다.

그동안 MS는 애플의 아이폰으로 촉발된 모바일 혁명에 뒤처져 있었다. PC 시장을 천하통일 한 후 경쟁자가 없어져 방심했던 탓인지 아이폰의 출현에 대응하지도 못했다. 아이폰이 나온 지 4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윈도폰의 시장점유율은 미미한 수준이다. 이 공백을 구글의 안드로이드가 차지하고 말았다.

PC시대 끼워팔기 전략 그대로 사용

오픈소스인 안드로이드는 무료로 제공될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소스 코드를 누구나 마음대로 개조해서 사용할 수 있다. 기술력 있는 업체는 안드로이드 개발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아이폰 출현 후 MS가 대응하지 못한 4년간의 공백기에 제조사들은 안드로이드로 스마트폰을 만들어왔다. 이 과정에서 제조사들은 자연스럽게 안드로이드 위주의 개발 체제를 구축하게 되었다.

상황은 더욱 나빠지고 있다. 운영체제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해도 제조사를 끌어오기가 어려운 판에 MS는 스마트폰 한 대 팔 때마다 라이선스 비용을 챙겨가겠다고 나서고 있다. 그럼에도 제조사는 운영체제 소스를 볼 수 없고 마음대로 고칠 수도 없다. MS가 지정하는 하드웨어 이외에는 쓰지도 못하기 때문에 독자적인 제품을 만들어 경쟁력을 확보할 수도 없는 것이다.

MS는 아이폰과 같은 통제를 통해 제품 안정성을 확보하고 안드로이드와 같은 다양한 제품 지원과 운영체제 제공을 통해 시장을 장악하겠다고 나서고 있지만 이 둘을 동시에 이루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이런 위기감 때문일까? MS는 윈도8에 여러 가지 무리수를 두고 있다. 여태까지 MS는 윈도의 점유율을 무기로 끼워 팔기 전략을 사용해 온 업체다. 웹 브라우저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 익스플로러를 윈도에 끼워 팔았던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 *아이폰은 꿈꾸던 휴대용 컴퓨터의 원형*
> *애플은 사실상 새 모바일 컴퓨팅 시대 열어*
> *MS의 긴 공백기간은 안드로이드에 기회*
> *무료제공 오픈소스로 제조업체들 끌어들여*
> *모든 것을 하나로 해결하겠다는 윈도8*
> *MS의 미래가 달린 도전, 성공 여부에 관심*

MS는 모바일 시대에도 이런 전략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윈도8은 PC용 제품과 모바일용 제품이 동시에 출시되었다. 이것은 사용자뿐만 아니라 개발자와 PC 제조사들에도 혼란을 주고 있다. 같은 윈도 태블릿임에도 CPU 종류에 따라 돌아가는 윈도8의 종류가 다르다. PC용 CPU가 사용된 태블릿은 PC와 같은 소프트웨어를 쓸 수 있지만 모바일용 CPU를 장착한 제품에는 사용할 수 없다.

윈도8은 화면 인터페이스도 통합하고 있다. 전통적인 키보드와 마우스를 사용하는 방식을 지원하며 손가락을 사용한 멀티터치 방식으로도 사용 가능하다. 하지만 이 두 가지 방식을 동시에 지원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두 방식 간을 전환하며 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기존 사용법을 바꾼 탓에 사용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키보드를 쓰다가 화면을 손가락으로 터치하는 것이 힘들다고 불평하고 있으며 MS가 없애버린 시작 버튼을 찾느라고 애를 먹고 있기도 하다.

MS 자원 총동원에도 모두 잃을 가능성

MS는 CPU의 통합, 유저 인터페이스의 통합뿐만 아니라 MS의 게임기 엑스박스와의 통합도 진행하고 있다. 그동안 엑스박스에서만 가능하던 게임을 윈도8에서도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MS가 윈도8의 점유율 확대를 위해서 자사의 모든 자원을 다 동원하겠다고 나선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런 노력은 윈도8의 점유율 확대보다는 그동안 시장에서 선전했던 엑스박스의 매출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 크다. MS가 윈도8 한 제품으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하겠다고 나서고 있지만 이 때문에 모든 것을 잃게 될지도 모른다.

아이폰으로 인해 여태까지 아무도 대적할 수 없었던 IT계의 거대한 공룡인 MS가 몰락할 위기에 처했다. 윈도8의 성공에 MS의 미래가 달린 것은 이 때문이다. 30년 이상 수많은 도전을 물리쳐온 MS가 이번 위기도 헤쳐갈 수 있을까? G

글·김인성(IT칼럼니스트)

물미해안도로 위를 달리다 만나는 푸른 바다와 섬들

돌이켜보면 언제나 경남 남해의 이미지는 굵고 흰 벚꽃이 비처럼 쏟아져 내리는 봄날의 그것이었다. 겨울의 초입에서 만난 남해는 전혀 다른 얼굴로 다가왔다. 고기비늘처럼 반짝이는 눈부신 만추의 햇빛과 두 배로 깊어진 짙은 청록의 바다. 그리고 목청(木靑)의 숲과 시인의 노래가 그곳에 있었다.

그리움을 나누는 남해의 낭만

남해에 발을 들여놓는 여행자들은 순간 시인의 마음으로 돌아간다. 남해대교 또는 사천대교를 지나며 만나는 쪽빛의 바다는 남해의 문학가들을 길러낸 자양분이다. 시시때때로, 바람 따라 구름 흘러가는 대로 그 빛을 달리하며, 보는 이의 가슴을 온통 뒤흔들어놓는 그 바다 앞에서 누구인들 시인이 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어느 11월의 오후에 온통 금칠을 해놓은 듯 빛나는 바다를 따라 물미해안길을 달리고 있었다. 이 길은 시인 고두현의 '물미해안에서 보내는 편지'에 등장하는, 물건리에서 남쪽 미조항에 이르기까지의 15킬로미터의 해안도로이다.

저 바다 단풍 드는 거 보세요/ 낮은 파도에도 멀미하는 노을/ 해안선이 돌아앉아 머리 풀고/ 흰 목덜미 말리는 동안/ 미풍에 말려 올라가는 다홍 치맛단 좀 보세요/ 남해 물건리에서 미조항으로 가는 삼십 리 물미해안, 허리에 낭창낭창/ 감기는 바람을 밀어내며/ 길은 잘 익은 햇살 따라 부드럽게 휘어지고/ 섬들은 수평선 끝을 잡아/ 그대 처음 만난 날처럼 팽팽하게 당기는데/ 바알갛게 옷을 벗는 풍경/ 은점 지나 노구 지나 단감빛으로 물드는 노을/ 남도에서 가장 빨리 가을이 닿는/ 삼십 리 해안길, 그대에게 먼저 보여주려고/ 저토록 몸이 달아 뒤채는 파도/ 그렇게 돌아앉아 있지만 말고/ 속 타는 저 바다 단풍 드는 거 좀 보아요

– '물미해안에서 보내는 편지'

남해 상주가 고향인 고두현의 시에는 그리움이 잔뜩 묻어난다. 시인은 언어의 물고기를 낚아 올리는 어부라 했는데 그의 시 속에서 부지런하고 성실한 어부의 손놀림이 느껴졌다. 홍시 속살같이 붉은 노을 내려앉는 남해의 바다를 향해 구애하는 시인의 마음으로 희게 빛나는 물미해안을 달린다.

낮은 파도에 멀미하는 노을을 볼 수 있을까. 물건리를 지나 은점마을과 대지포, 노구마을을 지나면 항도마을에 이른다. 해가 서쪽 바다로 잠기려는 순간 항도마을의 몽돌해변에 서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해는 그리 많은 시간을 내어주지 않는다. 그 아쉬움은 오후부터 성급하게 떠올랐던 낮달과 마을 앞 작은 섬에서 켜놓은 노란색 카바이트 불빛이 검은 바다에 일렁이는 그림자로 위로받을 수 있다.

죽방멸치를 맛볼 수 있는 지족마을

해변을 굴러다니는 파도의 와글와글한 울림에, 바람을 타고 은은하게 퍼지는 솔잎 냄새에 여행자의 마음은 요동친다. 풀어져 버린 마음을 추슬러 다시 길을 달린다. 뱀처럼 요동치는 물미해안도로의 끝은 미조항이다. 그 이름이 참 예쁘다. 겨울밤의 항구는 차갑지만 포근하고 적막하지만 활기차다. 골목골목 들어선 어촌 사람들의 비릿한 삶의 냄새를 맡으며 밤의 항구를 산책한다.

삼동면 지족마을을 찾아가면 또 다른 풍경이 펼쳐진다. 태곳적부터 전해내려 왔다는 원시어업의 형태인 죽방렴이다. 창선면과 삼동면 사이의 바다를 일컫는 지족해협은 두 섬의 거리가 워낙 가까워 물살이 거센 데다 조수간만의 차가 커 이곳에 V자형의 참나무 말뚝을 박고 대나무로 그물을 엮어 물고기를 잡는 죽방렴이 발달했다. 죽방렴에서는 온갖 바닷것이 다 잡힌다고 했지만 그중 최고는 은빛 멸치다. 죽방렴에서 잡아 올린 멸치는 그물을 사용하지 않

남해 사람들이 신성시 여기는 물건리의 방조어부림.

기 때문에 몸에 생채기가 없고 크기가 크며 맛도 좋다고 했다. 이곳에서 잡은 멸치는 1킬로그램에 20만~30만원을 호가하는 몸값을 자랑한다. 지족해협을 가로지르는 창선교 위에 섰다. 과연, 시퍼런 바닷물이 기세 좋게 흘렀고 열 개 남짓의 죽방렴이 우뚝우뚝 서 있다. V자 그물 끝에는 들어온 고기를 가두는 둥근 모양의 임통(불통)이 있는데 그 모양새가 마치 두 팔을 활짝 펴고 하늘을 나는 '로봇 태권V'를 떠오르게 한다.

마을 사람들은 고기 잡는 철이 되면 하루에 두어 번 목선을 타고 들어가 뜰채로 건져 고기를 잡는다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직접 작업하는 것은 보지 못했다. 멸치잡이 구경을 놓쳤으니 맛이라도 봐야지 싶어 찾아간 곳이 읍내 '우리식당'이다.

이국적인 독일마을에서 하룻밤

겨울을 재촉하는 비가 내린 뒤라 바닷바람이 꽤 차가웠다. 파란색 돌고래 무늬가 그려진 두꺼운 담요를 돌돌 만 채로 잠이 들었는데 눈을 떠보니 해는 이미 중천에 떠올랐다. 크림색 커튼을 젖히자 말간 햇빛이 창으로 쏟아져 들어온다. 이국의 모양을 한 장식품들, 독일어 책들, 낡은 가죽 가방,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비단 쿠션과 방석들, 손때 묻은 가구들까지. 독특한 소품으로 가득한 이 방의 원래 주인은 독일인 스트라우스씨와 그의 한국인 아내 김우주씨 부부이다. 독일마을에 스며들어 하룻밤쯤 보내려 찾은 민박집이었는데 운이 좋게도 그 부부를 만나게 된 것이었다.

유리창을 열었더니 정갈한 정원 너머로 물건리의 바다가 시원하게 펼쳐진다. 그때 창문으로 김우주씨의 얼굴이 불쑥 나타난다. 아침 식사가 준비되었으니 위층으로 올라오란다. 그러면서 남편인 스트라우스씨는 한국어를 잘 못한다며 양해를 구한다. 테이블에 둘러앉자 김우주씨가 녹색 초에 불을 붙인다. 식탁은 조금 전 정원에서 꺾어 온 붉은색 열매가 달린 백량금으로 장식돼 있었고 몇 가지 곡물 빵과 버터, 잼, 치즈와 햄 그리고 과일 등으로 차려져 있었다. 스트라우스씨는 손님의 찻잔에 향기로운 차를 따라주었다.

남해 물건리에 자리한 독일마을은, 1970년대 '조국 근대화의 외화벌이'를 위해 독일로 건너갔던 한국의 간호사들 중에 독일인과 결혼해 20~30년 이상을 살다 한국에 돌아와 정착해 생겨난 마을이다. 독일마을은 마을 전체가 독일의 어느 시골마을을 뚝 떼 온 듯 저마다 뾰족한 세모지붕과 다락을 가졌으며 유난히 정원을 가꾸는 데 애착을 가진 듯했다. 현재 독일마을에는 모두 35개의 주택이 지어졌는데 실제 거주하는 독일인 가정은 4가구 정도라고 한다.

유명한 원예작가들이 참여해 만든 20여 채의 원예예술촌.

물건리의 아름다운 바다를 향해 늘어선 독일마을 전경. 35채의 독일 양식 주택이 있다.

독일마을 위쪽으로 가면 원예전문가 20여 명이 모여 각자의 집과 정원을 조성해 이룬 마을인 원예예술촌이 있다. 작지만 아기자기한 정원과 흙을 밟고 살 수 있는 주택에서의 삶을 꿈꾼다면 꼭 한번 들러볼 만하다.

독일마을에서 물건리의 바다를 내려다보면 마치 보송보송한 양털구름떼가 흘러가는 듯한 숲이 보인다. 물건 방조어부림(防潮魚付林)은 지금으로부터 3백70여 년 전 바닷바람과 해일 등의 피해를 막기 위해 조성된 인공 숲이다. 멀리서 보면 해안을 따라 활처럼 휜 모양으로 조성돼 있는데 그 길이만도 1.5킬로미터, 폭은 30미터에 이르는 규모다. 이 숲에는 1만여 그루의 잘 자란 나무들이 서식하는데 위층에는 팽나무, 푸조나무, 상수리나무, 참느릅나무 등의 키 큰 나무가, 아래층에는 보리수, 동백, 광대싸리 등의 키 작은 나무들로 이루어져 있다.

경이로운 방조어부림과 편백나무숲

19세기 말 이 숲의 나무를 일부 베어낸 다음 폭풍이 닥쳐 마을에 큰 피해가 난 뒤에는 숲을 잘 보존하려는 노력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숲 속을 걷다 보면 대단한 기운을 가졌음을 한눈에 알 수 있는 커다란 이팝나무가 보이는데 바로 이 나무가 마을사람들이 매년 음력 10월 15일에 제사를 올리는 당산목이다.

남해 사람들이 아끼는 숲이 또 하나 있다. 삼동면 봉화리 내산마을에 위치한 남해편백자연휴양림은 '치유의 숲'이라는 별명을 가졌다. 남해의 푸른 바다가 키워낸 울창한 편백나무숲은 1년 내내 상쾌한 초록빛을 띤 채 숲을 찾는 이들에게 포근한 곁을 내어준다. 울창한 숲과 어우러진 나무로 지은 숲 속의 집은 새소리 바람소리와 함께 하룻밤 묵어가기에 더없이 좋은 곳이다. 떼도, 목도, 콩섬, 소치도 등 남해가 품은 작은 섬의 이름을 단 통나무집을 지나면 전망대까지 가는 1킬로미터 남짓의 등산로와 산책로가 있고 북쪽으로는 임도를 따라 난 산림체험코스와 원시림처럼 빽빽이 들어찬 편백나무숲이 조성돼 있다. G 글 · 고선영 (여행작가) / 사진 · 김형호 (사진작가)

여행수첩

찾아가는 길 남해대교를 건너 설천면으로 들어가거나 사천에서 삼천포대교를 건너 남해에 닿을 수 있다. 창선면과 삼동면을 연결하는 창선교 아래에 지족마을 죽방렴을 볼 수 있고 77번국도를 이용하면 독일마을과 물건 방조어부림을 차례로 만날 수 있다. 삼동면 물건리에서 미조항까지 이어지는 물미해안도로(77번국도)는 대단히 아름답지만 동시에 위험해 운전자들은 야간 운전에 특히 조심해야 한다.

먹을 곳 지족마을에서 죽방렴 멸치요리를 꼭 맛봐야 한다. **우리식당(☎055-867-0074), 여원식당(☎055-867-4118)** 등은 남해 사람들도 즐겨 찾는 맛집이다. 푸짐한 멸치쌈밥(8천원), 고소하고 담백한 멸치구이(1만2천원), 매콤 달콤한 맛으로 입맛 돋워주는 멸치회(2만원) 등 다양한 음식을 맛볼 수 있다. 끝자리 2, 7일에 열리는 남해읍내 5일장에서는 향기로운 유자가 등장하기 시작했고 강원도 사람들이 '곰치'라 부르는 물메기도 등장했다. 김치 숭덩숭덩 썰어 넣고 팔팔 끓여내면 기차게 맛나다.

잠잘 곳 연말연시 이국적인 분위기에서 하룻밤을 보내보면 좋겠다. 물건리 독일마을에서 민박할 수 있는 집이 여러 곳이다. **첼로펜션(☎055-867-1441), 크란츠러펜션(☎055-867-8382), 알프스하우스(☎055-867-3101)** 2인 기준 8만원부터 다양하다. 아침 식사가 가능한 곳도 있으니 예약할 때 문의하면 된다. 삼동면 봉화리의 **남해편백자연휴양림(☎055-867-7881)**은 늘 인기 있는 휴양림이고 가천 다랭이마을에도 민박집이 많다.

문의 남해군 관광안내 콜센터 ☎1588-3415

조개의 황제, 전복

전복은 맛도 좋고 귀해서 예로부터 '조개류의 황제' 대접을 받아왔다. 게다가 영양분까지 풍부해 '바다의 산삼' 또는 '바다의 웅담'이라는 별칭도 갖고 있다.

조선시대 왕실의 연회를 기록한 〈진연의궤〉나 〈진작의궤〉 등에는 생복회, 생복초(生鰒炒), 생복증(生鰒蒸), 생복어음적(生鰒於音炙), 생복화양적(生鰒花陽炙), 전복초(全鰒炒), 전복숙(全鰒熟), 숙복초, 전복홍합초(全鰒紅蛤炒), 전복저태초(全鰒猪胎炒), 전복절(全鰒折), 추복탕(槌鰒湯), 인복회(引鰒膾), 전복복지(全鰒卜只), 전복다식(全鰒茶食) 등의 다양한 전복요리가 등장한다.

허균의 〈도문대작〉에는 큰 전복을 얇게 썰어 만드는 만두가 맛이 좋다고 했고 '전복을 따서 꽃 모양으로 썰어서 상을 장식하는' 화복도 나온다.

중국에서도 전복은 귀한 식재료로 취급되었는데, 〈한서〉에는 한나라를 무너뜨리고 신나라를 세운 뒤 황제에 즉위했던 찬탈자 왕망(王莽)의 사치스러운 생활을 묘사하면서 그가 "편안한 자리에 앉아 전복만 먹었다"고 했을 정도이다.

"말려서 포로 만들어 먹는 게 가장 좋다"

전복을 한자어로 복(鰒) 또는 포(鮑)라고 하는데 생복은 살아 있는 전복이고, 전복(全鰒)은 통째로 말린 전복을 뜻하며, 숙복은 삶은 것, 추복은 방망이로 두드려 펴가면서 건조한 것, 인복은 얇고 길게 저며서 말린 것을 의미한다. 말린 것은 또 건복(乾鰒) 또는 명포(明鮑), 회포(灰鮑)라고도 했다.

1803년에 나온 김려의 〈우해이어보〉는 "살아 있는 것은 생포(生包)라 하고 죽은 것은 전복(全鰒)이라고 한다"고 했다. 정약전의 〈자산어보〉는 전복을 복어(鰒魚)라 하였고 "그 살은 맛이 달아서 날로 먹어도 좋고 익혀 먹어도 좋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말려서 포를 만들어 먹는 것"이라고 했다.

전복은 옛날에도 값어치가 높았던 모양으로 조선시대의 대일(對日) 국교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증정교린지(增正交隣志)〉에는 전복 1첩은 쌀 8말과 바꾸고, 생복 1개는 쌀 1되와 바꾼다고 기록돼 있다.

전복이 쓰이는 곳은 궁의 잔치 외에도 많았다. 〈성종실록〉에 여러 차례 나오는 명나라 황제의 요구 물목(物目)에도 전복은 빠지지 않았고, 임금이 신하들에게 내리는 하사품으로도 흔히 애용되었다.

조선DB

이렇듯 귀한 전복의 수요가 많았던 만큼 그 공급도 만만치 않았던 모양이다. 〈국조보감〉, 〈홍재전서〉 및 〈이조실록〉 곳곳에는 제주와 양산 등지에서 전복 채취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상소문이 다수 기록되어 있다.

정조는 그러한 상소에 답하여 "제주는 아득한 바다 밖에 있는 섬이다. 근래에 흉년이 들어 대다수의 백성이 기근에 시달리고 있으므로 생각할 때마다 늘 내가 당한 것처럼 마음이 아팠다. 차라리 어공(御供)을 줄일지언정 어찌 우리 백성을 수고하게 할 수 있겠는가. 연례적으로 진공하는 회전복(灰全鰒)을 영구히 감하도록 하라"고 하교하기도 했다.

조선시대의 요리서에는 여러 가지 전복요리법이 나오는데 〈시의전서〉는 전복숙 요리법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좋고 큰 전복을 삶되 처음 삶은 물은 버리고 쇠고기, 해삼, 문어, 홍합 등을 넣어 무르게 고아 건진다. 큰 전복은 저미든지 통째 열십자로 잘라 다시 잘게 자르고 파와 마늘을 다져서 넣는다. 전복숙은 후춧가루, 기름, 깨소금, 꿀을 넣어 삶은 물에 졸여야 좋다."

서울 방이동의 마시마니에 가면 완도 노화도에서 직송해온 전복으로 만든 회, 찜, 구이 등 다양한 전복요리를 합리적인 가격에 맛볼 수 있다. G

글 · 예종석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 · 음식문화평론가)

완급조절을 못해서…

학교에서 배웠던 인물에 대한 이미지가 실록을 통해 직접 확인하면서 바뀌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조광조(趙光祖·1482~1519)도 필자에게는 그런 인물 중 하나인데 그다지 안 좋은 쪽으로 바뀐 경우라 하겠다.

성종13년에 태어난 조광조는 가장 민감한 때인 10대를 고스란히 연산군 시절에 보냈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17세 때 평안도 시골의 찰방(察訪)으로 부임한 아버지를 따라갔다가 근처 희천에 유배 중이던 김굉필을 만난 것이 그의 남은 인생을 사실상 결정지었다고 할 수 있다.

당시 조선은 연이은 사화로 인하여 〈소학〉을 읽는 것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었다. 사림들이 대부분 〈소학〉이라는 책을 통해 요즘 식으로 말하자면 '의식화'되었는데 김굉필은 별명이 '소학동자'일 만큼 〈소학〉을 중시했다. 그 영향으로 조광조도 〈소학〉의 세계에 빠져들었다.

세조의 왕위찬탈에 이어 연산군의 폭정과 피비린내나는 사화가 이어지자 사림들은 사실상 절대 왕정에 대해 비판적이었다. 사림은 점차 신권(臣權) 중심으로 나아가려는 흐름에 동참한 인물들이었다. 사화 또한 왕권중심과 신권중심의 충돌이었다.

〈소학〉을 통해 철저한 신권중심주의자로 무장한 조광조는 '도학(道學)'정치를 표방했다. 조광조가 문과에 급제한 것은 중종10년(1515), 그의 나이 33세 때였다. 남들에 비하면 조금 늦은 출발이었으나 조정의 주목을 받으며 급성장했다. 다만 원로들은 그의 지나친 급진성을 경계하며 '화태(禍胎)'라고 불렀다. 장차 큰 화를 불러올 수 있는 인물이라는 뜻이다.

문과급제 불과 3년 만에 홍문관 부제학에 오른 조광조는 임금의 마음을 바로잡는 것이 도학정치의 출발임을 내세워 일종의 도교 사원인 소격서 혁파를 주창해 뜻을 관철한다. 철저한 성리학적 질서에 따른 정치를 내세운 것이다. 그래서 실은 이때부터 성리학적 관념주의가 싹트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어쩌면 조선사회를 공리공담의 나라로 몰아간 원조가 조광조라는 비판도 가능하다.

게다가 '현량과'라는 사실상의 추천방식 인재선발제를 실시해 신진인사들을 뽑고 요소요소에 자기 사람들을 심었다. 그리고 중종반정으로 공신반열에 오른 인물들 중에 '가짜'가 너무 많다며 위훈

일러스트 · 유재일

남들보다 늦은 나이인 33세에 문과 급제
도학정치 내세워 성리학적 관념주의 싹틔워
성급한 자파세력 심기 나서자 원로들 반발
자기주장만 하는 조광조에 중종도 등 돌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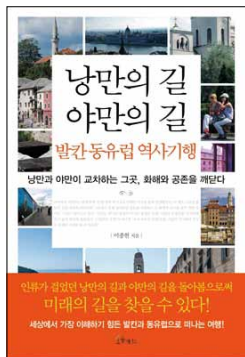
삭제를 강력하게 밀어붙였다.

결국 기묘년(1519), 남곤 심정 등은 조광조 일파가 당파를 조성하고 있다고 중종에게 고했다. 이미 소격서 혁파 등 자기주장만을 펴는 조광조에 염증을 느끼던 중종은 조광조와 그 일파의 제거를 결심한다. 기묘사화의 시작이다. 그해 말 조광조는 사약을 받았고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갔다.

조광조의 지향점에 대한 동의여부를 떠나 그의 일 추진방식은 너무 급진적이었다. 완급조절을 몰랐던 것이다. 훗날 '제2의 조광조'로 불릴 만큼 적극적으로 도학정치를 표방하는 이이조차 조광조를 이렇게 평하고 있다. "그는 어질고 밝은 자질과 나라 다스릴 재주를 타고났음에도 학문이 채 이루어지기 전에 정치 일선에 나간 결과 위로는 왕의 잘못을 시정하지 못하고 아래로는 구세력의 비방도 막지 못했다." 그런데 훗날 이이도 이와 비슷한 비판을 받게 된다. G

글 · 이한우 (조선일보 기획취재부장)

〈낭만의 길 야만의 길〉

동유럽을 보면 한국이 보인다

이종헌 지음
소울메이트 · 1만9천5백원

인종·종교·역사 문제 때문에 오랜 내전과 인종청소를 겪었던 보스니아의 도시 모스타르. 주민들은 화합과 평화를 축원하는 동상을 세우기로 한다. 누가 제일 좋을까. 주민들의 답은 이소룡이었다. 그 어디든 오래된 중세의 냄새가 짙게 배어나는 도시 모스타르 한가운데에 웃통을 훌떡 벗은 채 쌍절곤을 옆구리에 찬 노란색 트레이닝복을 입은 이소룡이라….

이유는 딱 하나다. 모든 주민이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인물이 이소룡뿐이라서. 아무런 연고 없는 이곳에 서 있는 이소룡 동상 앞에서 저자는 “공유할 수 있는 뭔가를 갖다두고 여기에 기대어 분열과 갈등을 막아보려는 주민의 의지에 고개가 숙여진다”고 썼다.

그래서 이종헌 UPI 서울지국장이 쓴 〈낭만의 길 야만의 길〉은 성찰적이다. 세르비아, 크로아티아, 폴란드, 체코, 헝가리 등 동유럽의 낭만적 풍경에서 야만적 역사를 떠올린다는 점에서 그렇다. 또 안으로는 분단과 지역감정으로 찢겨진, 밖으로는 한·중·일 역사전쟁을 치르고 있는 조국을 떠올렸다.

체코의 바츨라프광장에서 저자는 ‘프라하의 봄’이 당시 체코 국민 1인당 GDP가 3천달러가 넘었을 때 벌어졌다는 점을 강조한다. 북한의 소득은 1천달러 미만이다. 더구나 북한은 동유럽처럼 강인한 종교적 결속력이 있는 것도 아니다.

국제사회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에너지 자원이 있는 것도 아니다. ‘북한의 붕괴를 바라지 않는 절대 강자 중국’도 버티고 있다. 급작스런 변동이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 이런 상황에서 북한 주민들이 민주화를 요구할 수 있을까, 요구한다 한들 국제사회가 지원해줄 수 있을까 고민한다.

세르비아에서는 일본의 얼굴을 떠올렸다. 사람들은 코소보 침공사태를 일으킨 세르비아를 비난하지만, 세르비아는 오히려 자신이 억울한 피해자라 생각한다. 동방정교를 믿고 있다는 이유로 가톨릭, 개신교는 물론 심지어 이슬람세력도 우릴 배척하지 않았던가? 특히 가톨릭인 크로아티아는 세르비아에 대해 인종청소까지 시도하지 않았던가? 그래서 또 당하기 싫어서 먼저 군사행동을 했기로서니 그게 그렇게 몹쓸 짓이었던가? 시내 곳곳에 나토군이 폭격한 자리를 고스란히 보존해둔 세르비아의 모습에서, 침략에 대한 반성보다 원폭 피해자임을 내세우는 듯한 풍경이 오버랩된다.

가장 인상적인 것은 아무래도 폴란드 얘기다. 폴란드는 늘 이웃 강대국 독일·러시아에 시달렸다. 자신들의 특권만 보장된다면 국적 따윈 상관없는 귀족들은 나라를 팔아먹었다.

그래서 독립운동은 늘 프랑스·영국·미국 등 외세에 기댔다. 이 기대는 배반당하다 결국 공산화됐다. 저자는 구한말 국제정세에 대한 정확한 분석 없이 친일, 친러, 친미로 갈라져 큰 희생을 치르고 결국 일본에 합병된 우리나라를 떠올렸다.

낭만적인 풍경 속에서 야만의 역사 끄집어내

그런데 이 정도라면 ‘성찰’이라 부르기 어렵다. 저자는 한걸음 더 나아간다. 이런 고통의 역사 때문에 폴란드는 극도로 강력한 민족주의로 무장해버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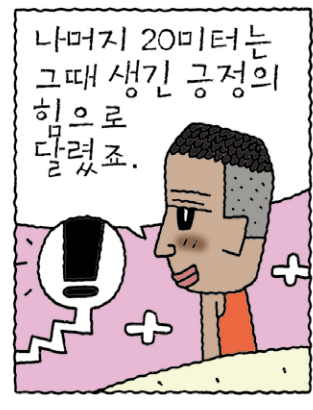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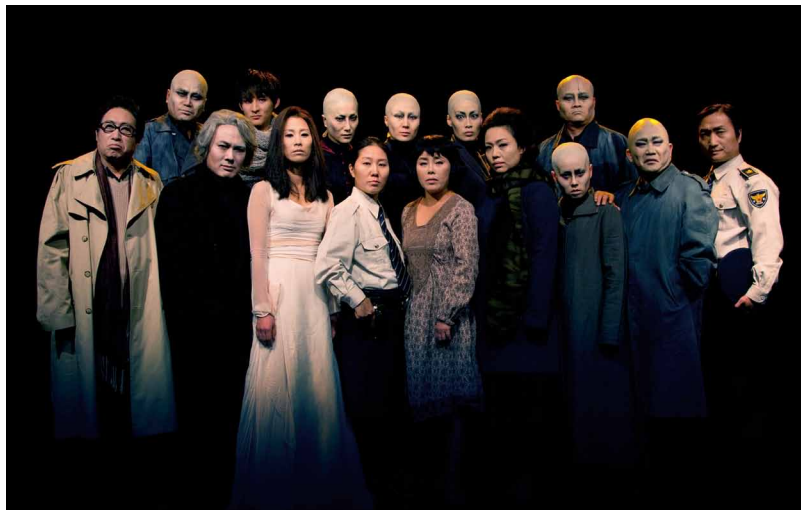
공식 역사에다 나치즘이 노린 것은 유대인이 아니라 폴란드인이라 기록할 정도였다. 가장 잔혹했던 아우슈비츠가 폴란드에 있어서 어느 누구보다 그 실상을 잘 알면서 말이다.

아우슈비츠에서 저자는 더 경악한다. 이곳을 방문한 이스라엘 학생들이 ‘참배와 추모의 표정’을 짓는 대신 이스라엘 국기를 어깨에 두르고 전의에 찬 표정으로 전시장을 헤집고 다니는 풍경을 봤기 때문이다. 화해와 협력, 과연 가능할까.

남 탓 할 것 없다. 저자가 보기에 “한편에서는 반공교육, 다른 편에는 반미교육이 세대를 넘어 유지”되고 있는, “상대에 대한 집단적 기억과 집단적 증오”를 키워가는 측면에서는 우리도 별 달리 나을 바 없기 때문이다. 엄지로 코 한번 튕기고 아뵤~ 괴성 지르는 이소룡 동상 앞에서, 저자가 마냥 웃을 수만은 없었던 이유다. G

글 · 조태성 (서울신문 문화부 출판팀장)

나머지 20미터는…

글과 그림 · 최영순

웃음은 가장 값싸고 가장 효과 있는 만병통치약이다.
- 러셀

<장화홍련>은 고전소설 <장화홍련전>을 새롭게 창조한 현대적 창극이다.

비극의 가족사로 다시 꾸몄다

스릴러 창극 <장화홍련>

국립창극단이 창극 <장화홍련>을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선보인다. 고전소설 <장화홍련전>을 현대적으로 해석해 창극으로 꾸몄다. 한태숙 연출가와 정복근 극작가는 2001년에 원작 <장화홍련전>을 바탕으로 한 연극 <배장화 배홍련>을 무대에 올린 바 있다. 이전 작품이 '계모 허씨의 죄의식'에 초점을 맞췄다면, 창극 <장화홍련>은 현대인의 이기심과 소통의 부재에 중점을 뒀다.

작품의 내용은 단란해 보이는 한 가정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결혼과 유학에 들떠 다른 가족의 고통에 무관심한 장화와 홍련,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방관자가 된 계모 허씨와 무기력한 아버지 배무룡 등이 주인공이다. 결국, 이들은 서로의 무관심과 이기심으로 인해 비극적인 결말을 맞게 된다.

무대와 객석을 뒤섞어 배치한 무대연출이 눈에 띈다. 관객 바로 옆자리에 배우가 앉아 있거나, 모르는 누군가의 손길이 관객의 등을 만질 수도 있다. 한태숙 연출가는 "무대에서 바라보는 어두운 객석이 검은 물의 이미지와 잘 맞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무대 위에 6백27석의 객석을 'ㄷ'자로 올리고, 원래의 객석은 장화와 홍련의 영혼이 떠도는 검은 호수로 처리했다"고 말했다.

고수의 북 장단이나 수성 가락 없이 소리가 이뤄지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기존 창극 무대에서는 고수가 북 반주를 통해 소리의 맥을 짚어주는 것이 필수적이었다. G

정리 · 정소안 인턴기자

기간 11월 27~30일 **장소** 국립극장 해오름극장 **문의** ☎02-2280-4115~6

공연 랑랑 피아노협주곡 콘서트

피아니스트 랑랑이 피아노협주곡으로 한국 관객을 찾는다. 랑랑은 베를린 필하모닉, 빈 필하모닉, 미국의 5대 정상급 오케스트라와 협연한 최초의 중국인 피아니스트이다. 2011년 랑랑이 로열 콘세르트허바우 오케스트라와 함께한 유럽 투어는 전석 매진을 기록하기도 했다. 4년 만에 한국을 찾은 그는 이번 공연에서 베토벤 피아노협주곡 5번 '황제', 프로코피예프 피아노협주곡 3번을 연주한다.

기간 11월 28일 **장소**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문의 ☎02-541-3183

공연 2012 SCF 서울 국제 안무 페스티벌

한국현대무용진흥회에서 주최하는 '2012 SCF 서울 국제 안무 페스티벌'이 11월 21·23·25일에 아르코예술극장 소극장에서 열린다. 경연 형식으로 펼쳐지는 이번 축제는 한국의 유능한 안무가를 발굴해 세계적인 무용가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열린다. 객관적인 심사를 위해 해외 유명 문화예술인을 초빙하고, 국내에서는 무용 외의 예술 분야에 종사하는 예술가를 초청해 평가한다. 총 10팀이 본선에 진출하며, 한 팀당 공연 시간은 10~20분 내외로 짧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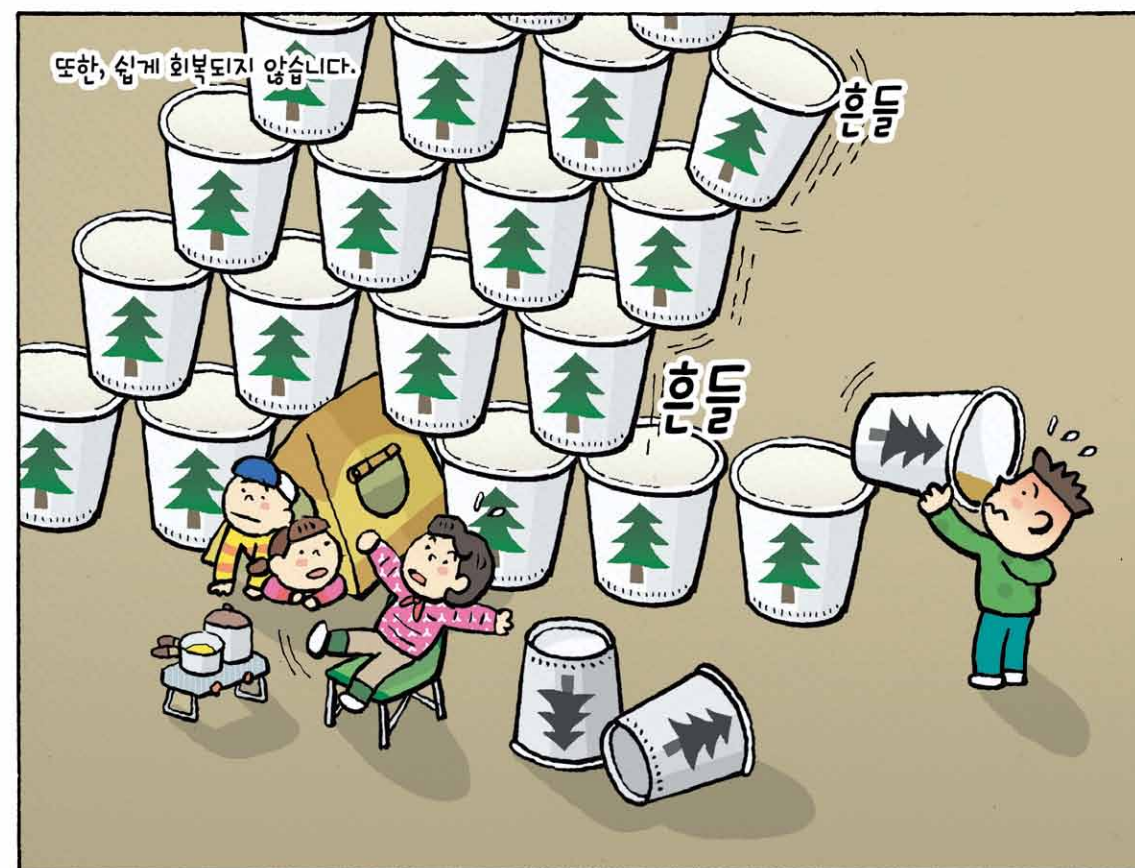
기간 11월 21·23·25일 **장소** 아르코예술극장 소극장
문의 ☎02-325-5702

11월 셋째 주 가온차트 가요 인기순위

11월 3일~11월 9일

	곡명	가수
1	1,2,3,4(원,투,쓰리,포)	이하이
2	Officially missing you,too	긱스, 소유
3	?(물음표)	프라이머리
4	보여줄게	에일리
5	이러지마 제발	케이윌
6	하지 못한 말	노을
7	귀여워	별
8	남자가 다 그렇지 뭐	김종국
9	남자 없이 잘 살아	미쓰에이
10	먼지가 되어	로이킴, 정준영

자연보好

구성 | 권우영
그림 | 안종만

자연보호는 일회용품 자제에서 시작됩니다.

‘록의 전설’ 신중현, 그가 돌아온다

1960년대 말부터 1970년대 중반까지 한국 대중음악계를 이끈 신중현의 음악이 돌아온다. 그것도 특별하다. 신중현은 당시 국내에서는 생소한 서구 록을 한국인의 입맛에 맞게 창조적으로 가공해 ‘한국 록의 대부’, ‘한국 대중음악의 총 설계자’라는 역사적 위상을 갖는 음악가다. 먼저 오는 12월 1~2일 이틀간 서울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신중현 콘서트가 개최된다. 또한 전설급의 베이스 연주자 송홍섭이 주축이 된 프로젝트팀이 그의 전성기 음악을 되살린 앨범 ‘뮤직 오브 신중현’을 곧 출시할 예정이다. 다시금 신중현이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다.

2006년 은퇴를 선언한 그가 공연에 나서는 것도 각별하지만 그가 특별하게 돌아온다고 하는 이유는 ‘카도’라는 이름의 프로젝트팀이 준비한 신중현 음반이 새로운 접근법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송홍섭, 신윤철, 신석철, 김책, 황유림의 5인조인 ‘카도’는 인디언 추장을 가리킨다. 카도는 곧 신중현이다. 카도 멤버 가운데 신윤철과 신석철은 신중현의 둘째·셋째 아들이다.

프로젝트의 핵심은 반(反)디지털이다. 세상이 온통 디지털로 뒤덮여 있어도 신중현의 전성기 음악은 아날로그 시대의 음악이기 때문에 바로 그 방식으로 신중현 음악을 재해석하겠다는 것이다. 그 시절 사운드 그대로 후대들에게 신중현 음악의 진정성과 오리지널리티를 전하려는 취지인 셈이다. “그때 신중현 음악의 사운드는 이랬다! 이랬어도, 지금의 사운드와 판이했어도 그 창의성은 보석처럼 찬란하게 빛난다!”고 열변하고 싶은 것이라 할까.

카도는 이를 위해 그 옛날처럼 ‘릴 테이프’에 의한 녹음 방식, 이른바 아날로그 녹음방식을 택했으며 모노(Mono) 믹싱을 취했다. 여기에다 다섯 명이 스튜디오 안에 들어가 곡 전체를 한방에 녹음하는 과거 ‘원 테이크’ 방식을 고집했다.

왜 이렇게 한 것일까. 그들은 지금 레코딩 방식이 음악 본연과 너무 멀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요즘은 이것저것 갖다 붙이고, 음정과 박자가 틀려도 해결되고, 그리하여 가수는 심한 경우 완창도 해보지 못하고 녹음을 완료하는 기술만능의 시대다.

결과물은 신선하다. 비록 낡은 터치가 퍼져 있지만 음악이 생물처럼 살아 꿈틀댄다. ‘소문났네’, ‘님은 먼 곳에’, ‘하필이면 그 사람’, ‘그대는 바보’, ‘후회’, ‘거짓말이야’는 정말 1969년과 1970년 김추자가 노래하던 당시의 트랜지스터 라디오를 듣는 기분이다. 여섯 곡 모두 신중현 선생이 ‘사단의 특급스타’ 김추자에게 준 곡들이다.

프로젝트팀 카도의 재해석 음반에 행복감

사운드는 두터운 듯해도 인간적이고, 투박한 것 같아도 자연스럽고, 오래된 것 같아도 윤택한 느낌이 전편을 관통한다. 멤버들은 각자의 파트를 알아서 스스로 디자인해서 연주에 임했다고 한다. 즉 작위적인 편곡을 따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음악이란 라이브가 증명하듯 원래가 ‘자유의 표현’이다.

카도가 원했던 것은 바로 자유 그리고 자연스러움이다. 노래를 부르는 방년 20세의 여성 황유림도 밋밋하고 건조할 수도 있지만 소박하고 담담하게 그리고 인내하며 소리를 풀어낸다. 감정과잉이란 없다. 그 차이는 곳곳에 악센트를 부여하는 김추자의 노래 ‘님은 먼 곳에’와 ‘거짓말이야’ 원곡과 비교해보면 확연하게 드러난다.

신중현 음악을 단순히 우리 시대로 불러낸 것이 아니다. 신중현이 실제 정력적으로 한국 대중음악의 정체성을 구축했던 당시의 순수, 열정, 진보성에 대한 소환이다. 낡은 것, 옛날 것이 결코 뒤지는 게 아니다. 디지털 세계에는 없는 온기가 있다. 아니 습기도 있다. 그 온습(溫習) 때문에 타임머신을 태워 40년 전으로 보내도 우리는 지금 2012년보다 더 행복하다. 신중현 음악은 여전히 위대하다. G

글 · 임진모 (대중음악평론가)

조선DB